

MAXIM



KOREA

69 GIFT AWARD

먹는 선물, 입는 선물, 타는 선물, 쓰는 선물...
2012년 결산, MAXIM 선정 BEST 아이템 1위부터 69위까지
용도를 초월한 최고의 성탄 선물 통합차트를 공개한다.

배소은

영화 <닥터>의 여주인공 배소은이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선보인 파격 드레스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우는 새기한테
선물 안 준다고 했잖아

2012 MISS MAXIM FINAL

드디어 결승전이다. 최후의 2인 대님 푸, 엄상미가
위험수위의 크리스마스 화보를 선사한다.
12월호 발매와 동시에 결승 투표 개시!
잘 뽑은 미스맥심이 1년 MAXIM을 좌우한다. 알지?

SEX

방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XXX-MAS 필승 비법

TROUBLE

아이유의 계획: 병문안 스캔들에 관한 충격 가설
문재인 VS. 안철수: 단일화, 남자답게 헌피 떠서 정한다
래남과 옥구슬의 정략: MAXIM 와서 쌍욕 투척

GAME



에디터의 2012 지스타 원정기
MAXIM VS. NEOWIZ
이번 달은 네오위즈의 FPS게임
A.V.A 운영진이 맥심에 도전했다
게임 말고 실전 총싸움으로!
야게임 미소녀 완전정복

2012년 12월호
정가 5,600원

Santa's Pin-Up
각지민

교복, 웨딩드레스, 이번엔 산타!
로망을 차례로 실현시켜주는 배우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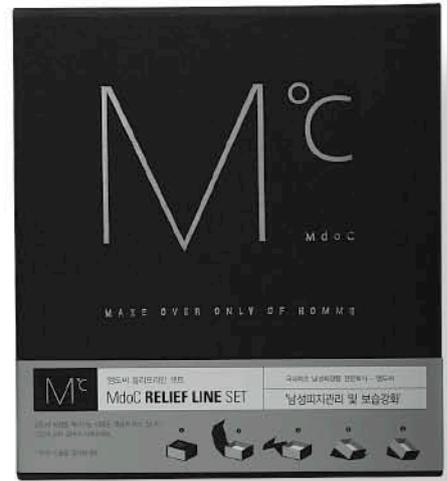


ANTI-WRINKLE TREATMENT ESSENCE
Take care of men's wrinkled skin with this one drop!



M-CARE MASSAGER
Wrinkle Care Total Solution

www.mdock.co.kr



RELIEF GIFT SET
Moisture/Special edition

RELIEF FIRST PEELING GEL
Start with relief first peeling gel to remove
dead skin cells of men's face.



RELIEF TONIC
Feel the freshness with zero-stress relief tonic-



Beyond Perfect Man's Skin!

Only Man's Cosmetic Brand

RELIEF ESSENCE EMULSION
Rich moisturization of essence --
no more oily skin with silky finish!



RELIEF ESSENTIAL MASK
Amazing effect from botanical ingredients only for men

RELIEF FOAM CLEANSING
Foam cleanser best suited for men's skin type --
feel the freshness.



MEN'S B.B CREAM
Present yourself with confidence by naturally covering widened pores and blemishes.
(Triple function product)



국내최초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엠도씨

HOME PAGE
www.mdock.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korea.com

M°C
M d o c



CONTENTS

98 **곽지민**

올해 크리스마스는 선물로
쓰레기를 받아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예쁜 산타가 우릴
찾아왔거든. 배우 곽지민이 주는
황송한 크리스마스 선물!
빨리 포장 풀어!



CIRCUS MAXIMUS

- 14 멸망의 기운을 풍기는 구름들
- 16 문재인 vs. 안철수, 현피 뜨면 누가 이겨?
- 18 자이언트에서 마이크로 육봉까지,
록 스타 섹태 보고서
- 20 21세기 최고의 음모(陰毛)론. 이젠 털 얘기다.
- 22 첨단 자위 기구의 세계
- 24 <슈스케4> 쾌남과 옥구슬의
정력, 오다길이 반한 MAXIM 최고 미녀는 누구?
- 26 컵&봉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 라면의 싱크로율은?
- 28 일이 힘들어 징징대는 당신에게 소개하는 극한 직업

HISTORY

- 32 조선 말 최고의 악녀가 <각시탈>에 나왔다네~!

RATED

- 34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영화
- 36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 떨리는 재앙 만화 4
- 38 역대 최강 스케일! 소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세계

MUSIC

- 40 욕도 아무지게 잘하는 진짜 슈퍼스타
'쾌남과 옥구슬'의 MAXIM ATTACK!
- 42 아이유 사태: 모든 것은 지은이의 계획대로

24 HOURS TO LIVE

- 46 형제는 웃겼다! 죽는 순간까지
시바이(?) 치는 양세형&양세찬

GAME

- 48 에디터의 2012 지스타 원정기
- 54 입맛대로 골라! 야게임 미소녀

STUFF

- 58 PC 사운드 대격변!
AUDIOQUEST 드래곤플레이
- 60 이달에 에디터가 지른 물건:
와콤 뱀부 스타일러스 포켓
- 62 맥심 만물 상화: 허두리 캠의 추억

MOTOR

- 65 MAXIM이 선정한 이달의 자동차: THE BEETLE
- 66 자동차 걸토크: 미니 쿠퍼 쿠페
- 70 에디터 시승기: 토요타 두목 벤자
- 74 악어에서 슈퍼카까지! 007 본드카 50

CONTENTS

DEPARTMENTS

STYLE

82 온로드 vs. 오프로드
모터스포츠 시계에도 T.P.O가 있다.
84 살이 깨끗한 남자를 위한 세정제 사용기
86 싸제 워장크림 비교 테스트

SPORT

90 박지성 대체 한다던 카가와 신지,
어디 잘하고 있나 볼까?

SMOKE&DRINK

92 보르도 메독 와인 일주일 베틀치기
96 연애 도와주는 맥주: 코에도 베니아가
97 클럽 파티를 위한 HOT STUFF

ICON

106 이 아저씨, 배우야? 시인이야?
바람이 묻어있는 노숙자 역할이
가장 좋았다던 배우 오광록

MISS MAXIM FINAL

110 2012 미스 맥심 결승 진출자 대닝 푸와
엄상미의 섹시 산타 대결. 승자는?

HISTORY OF THE END

118 지구종말론은 과연 다 개소리?

MAXIM vs. NEOWIZ

120 FPS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가 서바이벌
게임에도 강할까? 배꼽 빠지는 코스프레까지
더해진 MAXIM과 네오위즈 A.V.A팀의 대결!

FIGHT

124 지상 최고의 헤비급 괴물 계보

MILITARY

134 FPS 게임을 정복할 소총 BEST 5

X-MAS GIFT 69

138 1년 동안 MAXIM을 열독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69가지

PARTY

148 2012년 마지막 MAXIM PARTY는 블리자드와 함께!

LOVE

152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시뮬레이션

RECRUIT

156 WE WANT YOU! 2013 맥심 신입사원 정가공채

+
128

MAXIM 여신 발굴 프로젝트 #6

배소은

레드 카펫으로 주목 받은 그녀가
다시 한 번 레드 카펫 위에 섰다.
더 핫하게, 더 섹시하게 꽃잎을
휘날리면서 말이다.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 3540D.Z1

PERFETTO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지 영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롯데백화점(대전점) 042)601-2149
- 롯데백화점(시엔점) 051)810-4138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사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뉴코어이클렛(부천점) 032)624-8337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 플 랑(부산점) 051)245-7965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인천점) 031)909-3293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와 외 치(강남점) 02)537-8977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원 타 임(왕십리) 02)2200-1355
- 탑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제이클렉션(천안점) 041)564-5465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파 니(광주점) 062)671-7458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48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623-2163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가드파이버(송파점) 02)2157-5000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미 금 사(중랑점) 02)434-488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북 와 치(청주점) 043)223-1333
- 엘 기(구미점) 054)451-6940
- 조 이 필(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장성점) 02)2143-7282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현대백화점(부산점) 051)667-1159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오해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워치 락(노원점) 070)4136-5090
- WatchFII(부평점) 032)501-7015
- 예진시계(대전점) 042)280-9117
- G-ZONE(구미점) 054)455-2410
- 타임피아(포항점) 054)263-8855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롯데백화점(창원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영북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구로점) 02)1839-512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세운스퀘어(중랑점) 02)2272-2688
- 다큐비티(신도림) 02)2211-0149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뽕 기 흥(부천점) 032)662-0686
- 엘 기(대구점) 053)255-6940
- 골드 룩(광주점) 062)410-0137
- 타임폭발(부산점) 051)919-4704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주임 이영환 lyh@maximkorea.net
주임 조웅재 wj@maximkorea.net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ri@maximkorea.net
박종원 ttt3314@maximkorea.net
최동희 t578@maximkorea.net
최성준 csjet89@maximkorea.net

직원 에디터 이용수 (레투 칼럼니스트) 김덕중 ((엑스포츠) 기자)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광희, 박종현 (라면 리뷰어 '누들러')
급시니스트 (카툰 작가)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신속희 ssh@maximkorea.net
주임 전은경 eun@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탐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메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메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비서 김화현 sm@maximkorea.net
인턴 이현구 leehg@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크엔
탐장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영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오준섭

교섭

신선경 kshin0111@daum.net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은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자석리 192-1 인쇄인 아편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12월호 통권 제32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urawong Kruaefan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íaz Rojo	SERBIA Lazar Jovanovi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Alexander Zhek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ung-Bee Lee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Pure Scandinavian Style
COPENHAGE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투타임 www.eurotime.kr



[연세 집] 새주출판면세점 (08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영등포 (02-2630-6883) / 대전 (042-601-2253) 신세계백화점 진인 (041-640-5496) / 광주 (062-360-1291) 현대백화점 부산 (051-667-1159)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구로 (02-839-5128) / 원주 (033-611-5535) / 명덕 (031-646-8139) NC백화점 순천 (061-720-5124) 뉴코아백화점 인천 (031-8085-1708) / 울산 (052-210-4010) / 아남 (031-701-6841) 2001아울렛 분당 (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지왕 (02-455-6841) / 포항 (054-278-6848) 다류브백화점 구로 (02-2211-0143) / 가계 (055-680-0193)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세점] 제주충무문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 잠실 (02-2143-1922) / 전주 (063-289-3191) / 대전 (041-601-2253) / 청주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인천 (032-430-1486) / 광주 (062-380-1291) / 천안 (041-640-5081) 대구백화점 (053-422-3191) 현대백화점 중동 (032-623-2163) / 부산 (051-667-1159)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평택 (031-646-8139) / 구로 (02-839-5128) / 원주 (033-811-5535) NC백화점 강서 (02-2667-9508) / 송파 (02-2157-5236) / 순천 (061-720-5124) / 일산 (031-900-5163) / 불광(02-350-8478) / 부산 (051-509-7226) / 공촌 (031-380-5816) 갤러리아백화점 수원 (031-548-8998) 디류브백화점 거제 (055-680-0193) / 신도림 (02-2211-0142)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판매처]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 (2012-0625) / 와와치 (537-8977) / 연타임 (2200-1355) / 선진상사 (784-4716)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머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루워치 (779-6964) 경기(031) 시계상사 (441-0158) /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타임플러스 (371-6850) 경기(032) 대성 (325-7467) / 병기동 (662-0686) / 타임런 (504-8245) / 카시오모우 (502-7138) 타임앤멜로 (222-3114) 광주(043) 보보스워치 (235-1510) / 복워치 (223-1333) 대구(053) 공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프 (425-0157) / 스위치워치 (593-4844) / 신세계플렉스 (566-3316) / 휴얼리아 (428-2668) / 헤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덕진시계 (333-8849) / 타이머블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LETTER FROM MAXIM

MAXIM
대국민투표:
페이지 증면?



미국 세포



얼마 전 한 온라인 서점에서 본 배너다. 잡지를 사면 '미국 세포'를 준다니 엄청 신산하다! 뭐지? 클릭하니 잡지를 사면 '미국 세포' No.1 스킨케어 브랜드 필로소피 3중이라는 화장품 세트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CSI 요원들이 면봉으로 모은 구강상피세포를 증거 봉투에 싸서 잡지에 얹어주는 걸 상상한 나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요즘 온라인 서점의 잡지 코너 첫 화면에는 '부록이 좋은 잡지'라는 큰 배너와 별도의 부록 카테고리 보인다. 재미 있는 잡지, 화보가 좋은 잡지, 교양과 좋은 생각이 마구 샘 솟는 잡지가 아니라, 그냥 '부록이 좋은 잡지'라니, 참 노골적이고 낮뜨거운 말이다.

소위 '부록빨' 뽐뿌한 잡지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특별 대접을 받는다. 몇만 원씩 하는 정쟁한 부록을 낀 잡지들은 판매대에서도 '일진' 자리에 놓인다. 아예 잡지 코너에 부록만 모아놓은 별도의 진열대를 둔 서점도 있다. 부록이 얼마 짜리인지도 적혀 있다. "소비자가 3만 원 상당 000 스킨케어 정품+OO 매거진!" 이 물건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잡지 사면 그냥 준다는 거다.

매월 월간지가 쏟아져 나오면 잡지 블로거들은 잡지 표지나 내용이 아닌 부록을 포스팅한다. 히트 부록의 영예를 차지한 잡지는 금방 품절되기 때문에 그 부록(+잡지)이 어느 서점에 남아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잡지사들은 '가장 볼 만한 잡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부록을 붙인 잡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러면서 이번 달 부록이 좀 괜찮다 싶으면 '임시 특별가'라는 명목으로 1천, 2천 원을 슬쩍 더 올려 받기도 한다. 부록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잡지값이 미친년 날뛰듯 오르내리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격정적이다.

MAXIM에는 부록이 없다. 쪽 그랬다. 다른 남성지의 화려한 부록을 보고도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느냐고? 하지만 우리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화장품이나 잡화는 팔아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자랑은 아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못해서 솔직히 좀 멋쩍다. 대신 MAXIM은 지금까지 순수하게 편집부 에디터들과 기획자의 아이디어와 구성력,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정면 승부해왔다.

뭐 믿고 그러냐고? 독자들 믿고 그러다. 오늘도 '부록의 향연'에서 시크하게 MAXIM을 사두고 나온 당신에게 우리 진심으로 감사한다. 당신들이 있기에 부록 전쟁 속에서도 부록 없는 MAXIM은 곳곳이 버티고 있다(이건 자랑). 지난달 유명 남성지 <에스콰이어> 한국판도 '無부록 정책'을 선언하면서, "부록이 아닌 콘텐츠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얘기다.

MAXIM은 부록이 없어서 임시 특가 같은 것도 못 하지만, 이유 없이 슬쩍 가격을 올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 "출판 인쇄업은 어렵다",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처음 잡지 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다. 이 불경기를 독자님도 함께 겪고 있을 텐데 별 이유도 없이 주머니에서 1천 원, 2천 원씩 더 꺼내게 할 순 없다. 가격 올릴 일이 있다면 독자들이 더 많은 기사와 화보를 원할 때, 독자님 당신의 허락을 받고 올리겠다.

한 달만 있으면 또 해가 바뀐다. MAXIM이 한국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는다. 돌이켜보니 MAXIM은 왜 이렇게 얇고 충고하는 독자들도 꽤 있었다. 말이 나온 김에 독자님께 묻는다. 내용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가?

1. 기사 8페이지 늘리고 200원 인상
2. 기사 16페이지 늘리고 300원 인상
3. 안 늘리고 가격 유지

위의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에서 독자 투표를 한 달간 실시하겠다. 스마트폰으로 위에 보이는 QR 코드를 스캔해도 투표할 수 있다. 혹시 광고 페이지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마라. 화보든 피쳐 기사든 콘텐츠만 늘릴 테니(세상에 광고가 우리 맘대로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편집부야 3번이 편하긴 하지만 늘리지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따르겠다. 인상된 200원 또는 300원은 종이값, 인쇄비, 운송비, 콘텐츠 제작비에 보태겠다. 아, 페이지가 늘어난다면 에디터도 한 마리 더 뽑아야겠군..

이제 올해의 끝이 보인다.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2013년에도 부록이 아닌 MAXIM다운 콘텐츠로 정면승부하면서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비록 '미국 세포'는 드리지 못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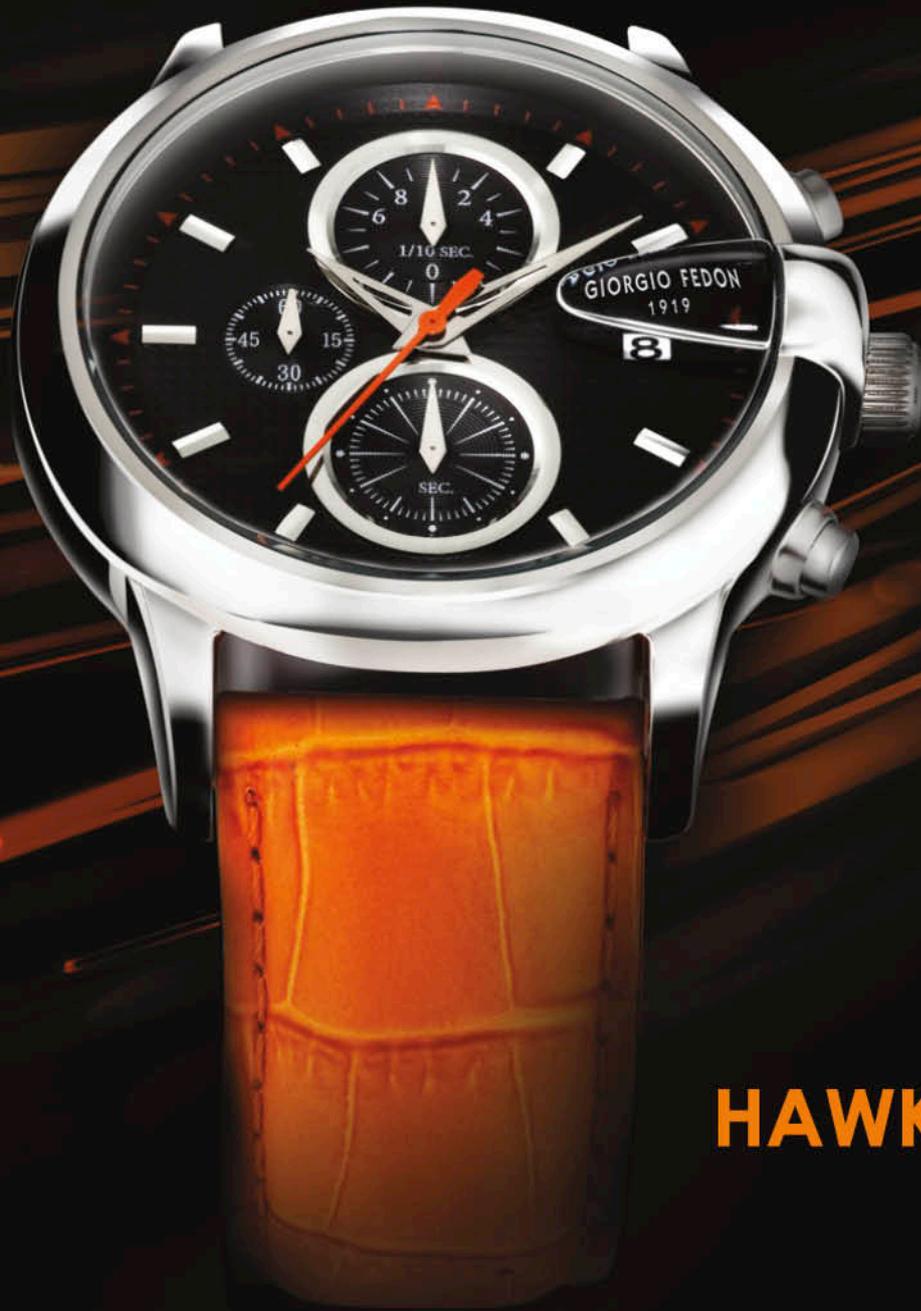
2012년 12월 편집장

이영하



'부록' 레스너

GIORGIO FEDON
1919



HAWK EYE





THIS MONTH'S HOT CLICK
MAXIM 독자들이
마우스 뽀사지도록 광활한
바로 그 기사!

2012 G-STAR, 미녀 수집의 현장 속으로!

성대하게 열린 2012 G-STAR 게임쇼 기사가 이달의 HOT CLICK 기사로 선정됐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거북이 떼처럼 백팩을 매고 손에는 카메라를 든 중고딩들 사이에서 여신을 찾아 헤맸던 에디터는 고군분투 끝에 '진주' 채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호 STUFF 기사 화보에 출연했던 최별하양과 인기 레이싱 모델 류지혜양까지, MAXIM이 G-STAR에서 건져올린 여신들을 더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THIS MONTH'S HOT SCAN

지난 11월호 잡지 속 QR 코드 중 독자들이 가장 미친 듯이 스캔해낸 기사는 'MOTOR 푸조 RCZ 시승 기사'다. 어느새 MAXIM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미모의 에디터 배경화면 떡밥 덕이다. 현재 아이폰 4, 4s 배경화면을 비롯해 모토로라 아트릭스, 갤럭시 노트용 배경화면까지 QR 코드를 통해 배포한 상태니, 필요한 독자들은 지난 11월호 RCZ 시승 기사(p.67) QR 코드를 스캔하고 다운 받으시길!

섭외 요청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는?

이달의 HOTTEST REQUEST 주인공은 2012 BFF 레드 카펫에서 발군의 육덕 몸매로 관심을 모았던 신인 배우 배소는 양이다. 섭외 요청 게시판을 보며 1.5L가량의 침을 흘린 박한빛누리 에디터는 당장 그녀를 섭외해야 한다며 소속사에 연락, 삼고초려 끝에 촬영을 성사시켰다고 하니... 배소은의 화보는 MAXIM 12월호 '여신 발굴 프로젝트' (p.128)에서 확인하시라!



HOTTEST REQUEST

MAXIM ONLINE POLL

당신은 T팬티를 입어 보셨나요?

입어봤다. (16.3%)

직접 입어본 자만이 T팬티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지.

아니! (83.7%)

차라리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라고 물어볼 걸 그랬다.

백건이 불어일행!



역시 MAXIM 애독자다웠다. 지난 10월 MAXIM이 진행한 "T팬티를 입어보았나?"라는 설문은 1,265명의 응답자 중 무려 206명의 성구자들이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이 똥 밟는 소리같이 어이 없는 설문은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담당 에디터가 심심할 때마다 매번 다른 주제로 업데이트하는 MAXIM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보시길.

HOT FIGHT: ROAD FC 010

한국 격투기의 자존심 <ROAD FC 010> 초대권 이벤트가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화끈한 남자들의 파이트와 링 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댓글 참여 행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당첨된 독자들은 사나이의 도시 부산에서 만나자고!



ROAD FC 010-IN BUSAN

일시: 2012년 11월 24일 오후 3시

장소: 부산 백스코 오픈도리움

 **이밖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MAXIM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참여를 기다린다!**



HELL DIVER

1942 SB2C



헬다이버 | <http://www.helldiverwatches.com> |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총판 프로워치 02.779.6964

서울 - 굿모닝시티 (동대문) 02-2118-8075 | 타임랜드(은평) 02-350-8417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 와와치(반포) 02-537-8977
이타임월드(신촌) 02-313-4108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두산타워 3F (동대문) 02-3398-5528 ,5F 02-3398-7527
이와치(명동) 02-771-7033
경기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보석상자(안양) 031-466-1014
탐타임(안산) 031-413-7656 | 타임24(일산) 031-931-5300 | 뽕끼통(부천) 032-662-0686
인천 - 워치보이 070-8632-5300 | 타임런 070-7516-4545 | 청주 - 복와치 043-223-1333 | 부산 - 타임붐 070-7530-1219



LETTERS

편집부 에디터들은 당신의 사연으로 광란의 크리스마이스브를
불태울 각오를 하고 있다. 모태 솔로 사연 우대!

독자 사연
투척하기!



헬스장 이용권보다는 미녀를 달라!



일단 겸손한 자세부터 취하고 들으시오. 본인은 무려 36개월 정기 구독 고객이니까 말이오. 고맙게도 사은품으로 월드짐 3개월 이용권을 받았는데, 솔직히 꼬박꼬박 다닐 자신이 없소. 3개월 동안 야근, 약속, 감기 기운 등 핑계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예정이오. 이용권을 썼으니 응당 동기부여라도 좀 해주시오!
좋은 예) MISS MAXIM 4인방이 거기 다니다 카더라.

FROM 헬스장기, 모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3년을 함께하실 독자님. 에디터는 지금 성인이 망극하여 엎드려서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월드짐은 월타군이 라고 불릴 만큼 핫하고 섹시한 처자들이 와서 몸매를 가꾸는 곳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셀룰라이트를 찰랑거리며 달리고 있는 처자에게 말을 거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친해진 그녀의 몸을 터치하며 운동법도 알려 주고, 끝나면 맥주 한 잔, 그리고 이어지는 피사시! 생각해보니 송승헌처럼 얼굴 되고 몸 되는 사기 캐릭터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네요. 에디터는 그냥 사우나 하러 헬스장 갑니다.

바코드 단일화가 시급합니다

저는 테스토스테론이 피아어그에서 분열해 혈액을 타고 몸 구석구석에 도달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서점에서 MAXIM을 구매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바코드가 뒷면에 표기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서점에 진열된 MAXIM은 바코드 스티커를 따로 앞면에 부착해 구매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FROM 박성민, 모바일 사연



찍어주세요



에디터
송중민

네네 고갱님~ 원래 뒤표지에 바코드가 있는 게 맞습니다만, 간혹 지방 서점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 별도의 바코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바코드가 부착된 걸봉투를 벗겨서 봉투만 따로 계산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MAXIM을 살펴보며 탄성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럼 주인아저씨도 "얼마나 기다렸으면 저렇게!"라며 MAXIM의 인기를 실감하시겠조? 고갱님의 작은 용기가 서로를 더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 상담원 송중민이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남자가 되었어요

저희 집 고양이 압둔이는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요, MAXIM 앞에서는 남자인 걸 숨길 수 없는가 봅니다.

FROM 이상진,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생선 눈갈처럼 깊은 압둔이의 슬픔을 당신이 알 턱이 없겠지요. 만약 당신이 불가항력으로 어제 고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갑자기 당신 앞에 섰던 미녀가 커버로 있는 잡지를 툭 던지고 갑니다. 심지어 그놈이 알고 보니 당신을 고자로 만든 새끼였다니! 게다가 당신을 보고 웃으며 "새끼, 고자 주제에 남자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쯤 되면 아시려나? 자기 전에 압둔이 발톱은 꼭 깔끔하게 자르시길 바랍니다.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동갑내기 처자가 있소. 작은 체구에 뽕망뽕망 귀여운 그녀가 마음에 들어 꾸준히 작업을 치던 중 고백을 했고, 그녀가 흔쾌히 받아들여 사귀게 되었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화가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몸살 버릇이 있었던 것이오. 대화라도 해보려 하면 썩소를 지으며 유유히 떠나가고는 며칠을 잠적했다 나타나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다오. 본인은 마냥 답답해 죽겠소. 이런 버릇은 대체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FROM 피자헛, 이메일 사연



원래만
볼과 마담 같은 것,
백 타서 때렸으니
타닥 오리다.



에디터
손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 독자님의 여자친구는 화가 나면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 보는 타입인가 보네요.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껏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여친을 두셨군요. 이번엔 나쁜 소식입니다. 며칠을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걸 보니 그녀가 독자님을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 버릇은 개도 못습니다. 앞으로는 여친이 떠나갔을 때 뜨개질이나 꽃꽂이로 마음을 단련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왔어?"라고 말하며 출내를 풍기세요. 그 여친, 아마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NEW ERA COLLABORATION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진짜 MISS MAXIM이 나타났다!

본인은 스물여덟의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요. 여느 때처럼 MAXIM을 구매하기 위해 시내의 큰 서점에 들렀는데, 잡지 코너를 어슬렁거리던 중 한지민을 닮은 매우 아리따운 처자를 발견했소. 일부러 주변을 배회하며 눈팅을 하고 있는데, 그 처자가 돌연 MAXIM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게 아니겠소! 놀란 본인은 쫓싸게 똑같이 MAXIM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소. 계산대 위에 나란히 MAXIM 두 권이 놓인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그녀가 피식 웃는 것이 아니겠소. 그때 말이라도 걸었어야 했는데, 뉘를 놓을 나머지 그녀를 놓치고 말았소. 혹시 이 사연을 보고 그 처자에게서 연락이라도 온다면 본인에게 꼭 링크를 걸어주기 바라오!

FROM MIRR, 이메일 사연



에디터
이영환

군에 간 남친에게 보낼 MAXIM을 구매하는 한지민 닮은 공신을 보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쌔쌔>나 <싱글즈>를 구매했다 칩시다. 상식적으로 그걸 댁이 보려고 샀겠습니까?(그렇다면 사과 머경, 두 번 머경) 여친 사은품 서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녀도 같은 이치겠조. 괜히 군바리 여자 건드렸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군인 남친한테 호국 죽빵 맞을 수 있으니, 괴기한 상상 마시고 디자인에 전념하도록 하세요.

식모를 원한 게 아니야



닭볶음탕은 좋은 마끼로구나

대학교 2학년 때 해외에서 유학하던 중 알고 지낸 아리따운 후배를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외로웠던 우리는 그렇게 친해졌고, 느낌이 좋았던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인인이라 혼전 관계는 안 된다며 얼버무렸습니다(사귀면 다 똥가똥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얼마 전 그녀가 닭볶음탕을 해주다며 제 원룸까지 찾아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아깝게도 식사 후 과외를 하러 간다면 원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보통 사귀고 싶지 않은 남자 집에 요리를 해주려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오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가는 그녀를 잡지 못한 제가 바스인가요??

FROM DAVID JUNG, 이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난이도 최고 레벨이라 불리는 신인인을 만났군요. 혼전 순결이라니, 태조 이성계가 할 소던 시절 이야기군요. <다빈치 코드>에 따르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스사를 하셨을 지도 모르다며 그녀를 살살 구슬려보는 건 어떨까요? 포톤 캐논도 시즈 탱크로 계속 공격하다 보면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녀의 방어선을 무너뜨려 프프 스사를 동반한 외박 후에, 다음 날 새벽 기도 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그냥 배가 처 불렀지



사랑해! 오빠

사람에겐 평생 두세 번 정도의 전성기가 온다고 하지만, 이번만큼 복잡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학교 동기 및 후배, 소개팅녀, 동네 친구 등 도합 4명의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데이트메이트 같은 사이로 지내는 중입니다. 늘 솔로인 것이 원망스러운 저였지만, 요즘은 외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대체 이 4명의 처자 중 누구와 이 소중한 날을 보내야 할지가 걱정됩니다. 다섯이서 같이 보낼 순 없잖아요..

FROM 020113,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이런, 올해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게 생겼군요. 당신이 데이트 메이트라고 표현한 네 명의 여자들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을 그냥 아는 오빠 혹은 친구라고 지칭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크리스마스에 그냥 아는 오빠나 친구와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순 없거든요. 당신이 사귀자고 하면 모를까... 욕심부리지 말고 빨리 그 중 한 명에게 고백하세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거절당할 확률이 0에 수렴하니깐요. 그나마 020113님은 남의 생일을 자신의 생일처럼 소중히 하는 착한 마음씨를 지니셨네요. 여자 다섯 명과의 주지옥림의 파티를 계획하다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그렇게도 기쁘세요?

독자 사연 응모

연말연시를 일차게 보내기 위한 독자 사연 투척 가이드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접수 빼빼로 데이도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 남은 건 크리스마스뿐인 MAXIM 편집부의 희망을 헛되이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빨간 선물 상자에 빼빼로와 사연을 함께 넣어서 투척하는 건 어떨까. 그게 싫으면 선물을 주면가!



빼빼로(돌기형)



쁘레전도

독자 선물

이번 달 독자 사연 선물은 당신의 힘없이 툭툭 끊어지는 모발을 인조 진디마냥 뽀뽀하게 만들어줄 **에브리맨택 씨크닝 그루밍 크림 티트리**다. 매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링과 동시에 모발과 두피에 트리트리트 기능을 실현해 앞머리가 바코드처럼 갈라지는 당신의 모발을 한결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real **automatic** watches for man



AR510SWS AUTOMATIC

New York based watch brand, Arbutus, introduces a new range of mechanical watches in South Korea. Targeted at entry level watch collectors in South Korea, its perfect for the consumer who is just starting to appreciate the craft of horology. Arbutus's exquisite fully mechanical watches amalgamate precision mechanical movements and sophisticated designs.

수입처 : GLOBAL TIME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ARBUTUS[®]
New York

www.arbutus.co.kr

CIRCUS M

THE SKY IS ON FIRE!

2012년 12월 21일, 지구 종말의 그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기운을 풍기는 구름들을 분석해봤다. 혹시 신이 그동안 구름을 통해 진짜 지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암시를 줬을지도 모르잖아?

BY 김희성 DESIGN 천은경



↑ 슈퍼셀

데미지 7

캐릭터 정보 폭풍우가 슈퍼파워 속도로 회전하는 걸 슈퍼셀이라고 한다. 핵구름 모양이 보이면 슈퍼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아니면 진짜 핵이 폭발했거나).

능력치 핵폭발인지 구름인지 고민하는 사이에 당신을 하늘로 집어삼킬 거다. 도시와 토트처럼 회오리바람 타고 사뿐히 하늘로 올라가는 최후를 상상했다면 그 꿈은 버려라. '오버 더 레인 보우'가 장승곡이 된다면 몰라도.

전적 2012년 5월 21일, MAXIM 6월호가 세상으로 나왔던 날 미시간 주에서 거대한 UFO 모양의 슈퍼셀이 나타났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야아~!

→ 눈폭풍

데미지 2

캐릭터 정보 말 그대로 눈이 폭풍처럼 내린다. 천둥, 번개도 친다.

능력치 눈 폭풍이 치면 주위가 온통 하얗게 되어 나는 누군지, 여기는 또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화이트 아웃'이라고 한다. 이대로 우리 모두 냉동인간이 되는 건가?

전적 2011년 미국 북동부의 눈 폭풍으로 정전, 도로 폐쇄, 사망, 휴고는 물론 할러윈 축제가 연기되기까지 했다. 귀신까지 쫓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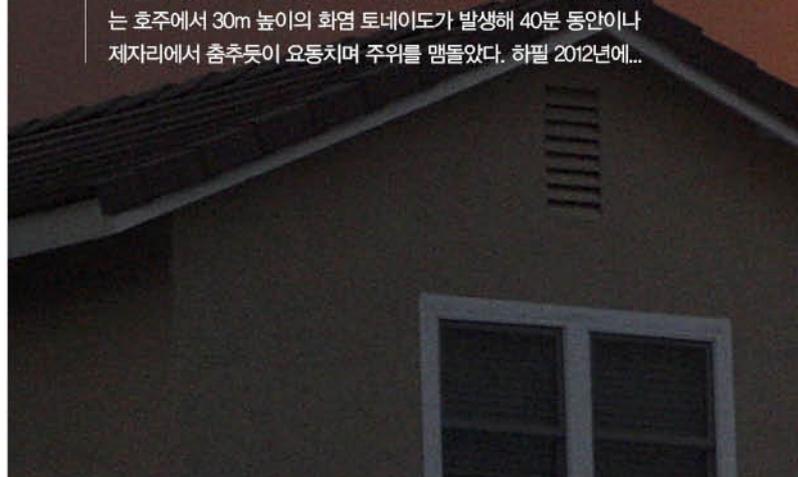
→ 화염 토네이도

데미지 10

캐릭터 정보 지상의 뜨거운 화염이 만든 더운 공기와 공중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생긴 상승기류가 폭풍 같은 속도로 회전하며 주위의 불꽃을 빨아들여 만들어진 뜨거운 불기둥. 지진이나 산불 등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화구뿔. ≡ 지옥불

능력치 2,000°C까지 뜨거워진다. 태양 표면에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더 와 닿으려나? 얼마나 지독했으면 막마의 불꽃이라는 별명도 있다.

전적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15분 동안 무려 3만8,000명을 죽였다. 서른 살까지 자기자신을 수양해 대마법사가 되면 파이어스톤을 쓸 수 있다더니 일본에 대마법사가 이렇게 많았나? 올해 9월에는 호주에서 30m 높이의 화염 토네이도가 발생해 40분 동안이나 제자리에서 춤추듯이 요동치며 주위를 맴돌았다. 하필 2012년에...



→ 동물비

데미지 2

캐릭터 정보 강력한 토네이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구의 중력보다 더 세계 동물들을 빨아들이기도 하는데 그 토네이도가 옮겨가면서 동물을 땅에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신의 분노 때문이라는 설, 조류가 먹이를 물고 날아가다가 떨어뜨린 거라는 설도 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요시히코 교수는 "실제로 올챙이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장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많다는 게 함정.

능력치 그리스의 역사가 아테나이오스가 쓴 역사집 <현자의 향연>에는 3일 동안 물고기가 실 새 없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비린내 어쩔...

전적 2009년 일본의 한 마을에서 올챙이 200여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호주 북부의 라자미누에서는 물고기가 산 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밖에도 물고기, 개구리, 두꺼비, 해파리, 벌레, 거미 등이 하늘에서 추락했다. 신이시여, 이게 성경책이나 예언서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이건 영화가
아니야



데미지 게이지 1 5 10

1 볼만 하네! 5 나 죽네! 10 다 죽네!



↑ 유방구름

데미지 1

캐릭터 정보 하늘에 몽글몽글한 구름 주머니가 잔뜩 걸려 있으면 유방구름이다. 유방처럼 생겼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유방구름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무리 그래도 유방구름이라니.

능력치 구름 바닥에 유방 모양의 돌기가 많이 매달려 있는 형태로, 구름에 있던 물방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구름이다. 지구 종말 직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적 건조한 상태로 지속되는 구름이라 비도 오지 않고 1시간 만에 없어진다. 생긴 건 종말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지만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하긴 저기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구름만 봐도 싸겠네. 싸겠어.



↑ 모래 폭풍

데미지 3

캐릭터 정보 황사의 폭풍 버전. <미션 임파서블 4>에서 봤지?

능력치 한낮인데도 밤처럼 순식간에 어두워져 지구 멸망의 기분을 잔뜩 느낄 수 있는 아이템. 엔진에는 먼지가 말라붙어 차가 멈추고 폐가 청소기처럼 먼지를 시원하게 흡입할 거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더라도 폐병으로 죽을 거야.

전적 2012년 7월 21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 길이 80km의 미친 모래 폭풍이 불어 시간당 최대 풍속 112km로 반경 50km를 휩쓸었다. 고온 저습한 날씨 때문에 해마다 모래 폭풍이 불긴 하지만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건 1930년대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에 피해를 준 모래 폭풍 이후 80년 만이다. 최악의 모래 폭풍이 왜 하필 2012년에 분 걸까?



1 스테미너



1953년 1월 24일생 / 올해 나이 60세
 1962년 1월 22일생 / 올해 나이 51세

» 9년 젊고 영양 상태가 좋은 안철수 선수 우세

2 체급

문: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큰 키가 돋보였다...는 건 사실 국회의 배 나온 정치 호빗들 사이에 있을 때 얘기다. 프로필상으로 겨우 172cm, 이제 다시 국회를 점령한 호빗들로부터 국가통치권 탈환을 노린다.

안: 평소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걸 서슴없이 밝혀, 한때 디씨에서 '키 158cm의 호빗'이란 치욕적인 소문이 생김. MAXIM이 국내 정치부 기자들에게 증언을 모아본 결과 약 165cm으로 추정.

» 두 선수의 공식적인 리치 측정 결과는 없다. 신장 차에서 예상되는 리치 차이로 보면, 리치가 더 긴 문재인 선수는 아웃파이트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 예상된다. 다리도 더 길기 때문에 킥에서도 우세를 보인다. 안철수 선수는 가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파이트를 벌이다 자칫 재수없으면 미들킥에 두개골을 허용하고 거품을 물 가능성이 있다. 두 선수의 공식적인 리치 측정 결과가 없다는 변수는 안 선수에게 유리하다. 의외로 안철수가 팔만 긴 변종 호빗이라면 문 선수가 당황해 오줌을 조금 쌀텐데 안 선수는 이를 놓쳐선 안된다. 현재로는 **문재인 선수 우세**

+남심 끼기, 눈알 찌르기, 물기 없기, 울면 지는 거.

문재인 vs. 안철수 현피 뜯다면?

이긴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BY 박수현 DESIGN 서용정

3 파이트 전적

문: 9사단 선임 분대장, 공수부대 제1공수 특전여단 폭파병 출신으로 특수전 훈련에서 특전사령관 표창, 화생방 훈련에서 여단장(당시 여단장이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 이력만 들어도 웬지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바쳐야 할 것 같다.

안: 와이프한테 군 입대 얘기 안 하고 간 것 외에는 특이 경력 없음. 하지만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메스로 뼈에서 살을 발라낸 유경험자라는 사실이 의외로 잔혹한 파이트 스타일로 발휘될지 모른다. 게다가 오랜 시간 키보드와 싸움을 해왔기에 날카롭게 단련된 손끝으로 상대의 혈을 찌를 수 있을 터. 키보드위리어한테 털리면 바로 죽는 거여.

» 하지만... 이 사진을 봐.



보온병으로 지뢰도 만들 것 같은 인상의 문재인(왼쪽), 그리고 오른쪽엔... 울맨?

포스가 남다른 문재인 선수 우세

4 디펜스 능력



청와대, 국회 물 맛
 쪼끔 봤음
 백신!!!!!!

» 안철수 선수는 짧고 굵은 목을 가지고 있어 멧집이 강하다. 안 선수가 인연에 편치나 킥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난타전으로 끌고 갈 경우 문 선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문재인 선수가 얼마나 빠른 풋워크로 아웃복싱을 펼쳐가기가 관건이다. 멧집에선 **안철수 선수 우세**

5 성량

“갈!!!!!!!!!!!!!!!!!!!!!!”
 대한민국에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멘탈과 육체를 단련할 시간이 없이 바쁜 정치인들은 사자후를 단련하곤 한다. 문재인 선수는 국딩 때 웅변 좀 했는지 쩌렁쩌렁한 고음 발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철수 선수는 와이프 운전 연수해주면서도 소리 한 번 안 지를 것 같은 조분조분한 음성을 가졌다.

» 데시벨이 더 높은 문재인 선수 우세

6 법적 공방

안경을 쓴 문재인 선수가 요령 있게 주먹, 발길질 이 오가는 길목에 얼굴을 잘 갖다 대면 안 선수를 살인미수로 보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다! 갱값 뜯기에도 더없이 좋은 조건.

» 안경집이 문재인 우세

고로 현재 이 현피는 문재인 선수 우세

애덤 애덤 리치맨



X나게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입에서는 육즙과 녹은 치즈가 질질 흐르고, 보는 사람 구강에서 아밀라아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극강의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자. 샌드위치 마스터 애덤 리치맨과 함께 (먹다가 심장마비와도 우리 책임 없어요, 팔자려니 하세요)

1. 밀 빵

겉이 바삭한 마늘 바게트 빵 반쪽을 밀장으로 준비. 안쪽에 파마산 치즈를 뿌리면 금상첨화. 왜 보드라운 식빵을 안 쓰냐고? 남자의 샌드위치는 베어먹는 게 아니라 찢어 먹는 거대 입천장 좀 까지면 어때? 맛있으면 장땡이다.

2. 야채

샌드위치와 최고의 속궁합을 자랑하는 아채인 양상추를 준비한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볶은 양파(하얀 양파도 OK)를 얇게 썰어 놓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른 뒤에 소금, 후추, 오레가노로 간한다.

3. 고기 No.1

얇게 썬 돼지고기 안심 햄과 라틴 향기가 물씬 나는 라임, 마늘, 고수 잎(실란트로)을 올린다. 고기가 흥이 나서 살사 시스템을 밟는구나!

4. 치즈

얇게 자른 스위스 치즈를 올려 살짝 녹인다.

5. 고기 No.2

겉은 잘 구워졌지만 안에는 피칠갑을 그대로 품고 있는, 미디엄-레어로 익힌 소 등심 슬라이스가 올라갈 차례.

6. 마요네즈

머스터드를 조금 섞은 마요네즈를 올린다. 일싸하니 맛이 좋다.

7. 고기 No.3

칠면조 햄이 드러눕는다. 뼈에서 갓 발라낸 햄이 맛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칠면조 햄도 괜찮다.

8. 마요네즈 더

*페스토 소스를 섞은 마요네즈가 고소함과 상큼한 향을 더한다.

*페스토 소스: 바질 등의 허브와 치즈, 오일 등을 잡 것들을 한데 섞어 만든 이탈리아 소스 마트에서 살 수 있다.

9. 바삭바삭함

어니언링, 모짜렐라 치즈 스틱이 돌을 번갈아가며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자. 구멍, 방망이, 구멍, 방망이... 이거 당신 특기 아닌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10. 소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소스에 빨간 고추를 다져서 넣으면 색 관찮은 소스가 탄생한다. 이제 발라버려!

11. 덮개 빵

남은 마늘 바게트 반쪽으로 덮어준다. 완성! 남자의 샌드위치!

자, 이제 다 처먹었으면 심장 전문의와의 상담 예약을 서두르자. 어썬후, 한 입 베어 먹을 때마다 병원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네.

이 먹성 좋은 놈 좀 보게





플라이 피싱

일인용 수상비행기가 파도를 일으키며 온다

죽여주는 비행 영상



오직 당신 하나만을 위해 물 위를 나는 비행기를 상상해본 적이 있나? **플라이나노(Flynano)**는 동명의 핀란드의 항공기 회사에서 만든 일인용 수상비행기다. 무게 약 70kg에, 최고 속도 약 145km/h로 물 위를 나는 플라이나노가 연구와 프로토타입 실험을 거쳐 드디어 내년엔 상용화된다. 아쉽게도 유럽에서만 볼 수 있다. FTA 좋은 게 뭐니까, 이런 것 좀 빨리 들여와서 대통령 퇴임 기념 광란의 4대강 질주를 보여주세요.



1. 가격은 미화로 약 4만 달러다. 요즘 달러가 똥값이니까 한 4천3백만 원?
2. 양 날개 사이 길이는 약 5m, 우리나라 도로 폭이 한 3~3.6m니까 이걸 뒤에 싣고 달리면 개민폐다.
3. 개인 전용기 안에서의 스릴 넘치는 섹스를 꿈꾸는가? 플라이나노를 타고 마알-하이 클럽(비행 중 섹스를 즐기는 사람의 모임)에 가입하려는 생각은 포기해. 플라이나노사는 조수석, 뒷좌석이 달린 모델을 만들 계획이 없다. 그냥 스스로 위안하라. 보는 눈도 없고, 물으면 물에 씻으면 되잖아?

악빨 받은 캡틴 아메리카

뉴 캡틴 취임 기념! 미국 대통령들을 불러 세워 물었다. "이노부새끼들, 여기 숨어서 뭘 피우냐!"

버락 오바마

10대 시절 오바마는 친구들과 '츄م 갱(Choom Gang)'이라는 괴상한 이름의 그룹을 만들고, 폭스바겐 밴 안에서 몇 시간이고 알팔파한 구름을 즐겨 마셨다. 자서전에 따르면, "청문을 공공 잡근" 밴 안에서 오바마와 친구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 가득 자욱한 마리화나 연기의 마지막 한 모금까지 빨았다"고 한다.



존 F 케네디

허리가 안 좋았던 JFK는 아예 마리화나를 약으로 처방받아 즐겼다. 냉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그는 그의 비밀스런 정부 메리 메이와 함께 3대의 대마초를 빨고 있었다. 메리가 그에게 4대째 마리화나를 권하자 JFK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지금 러시아가 무슨 짓을 벌이지 몰라..."

조지 워싱턴

미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아예 대마초 밭을 직접 일구었다. 1765년 그는 일기에 대마초의 암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기록하기까지 했다. 간실하고 숙련된 대마 농부라면 당연히 어떤 대마가 섬유를 짓고, 어떤 농이 알팔파한 기분을 선사하는지 알아야하니까. 하하..하.. 어르신, 그죠?



GOOD vs BAD

GOOD

BAD



온두라스

쿠바 시가가 세계 최고라고? 과대평가! 진짜 순수한 시가 한 모금을 원한다면 온두라스에 가서 카마초 시가를 피워보라. 참, 몸에 구멍날 각오는 하는 게 좋을 거다. 최근 UN은 온두라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살인 천국으로 선정했다.



브라질

폭력과 마약, 납치의 온상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해온 브라질. 하지만 세계 최고의 미녀 모델을 역시 브라질 출신이다. 들을 때마다 런천미트가 떠오르는 지젤 번천은 빅토리아 시크릿을 이끄는 끝판왕급 브라질 슈퍼 모델이다. 일단 나라 이름부터가 끝내주잖아. 브라 + 질.



시에라리온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아프리카의 나라. 하지만 슬프게도, 20년 넘게 지속된 실발한 내전과 극심한 가난 때문에 이 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41세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 앤드 디어~아, 그 다이아는 핏빛이로구나.



이란

핵 사랑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란은 미국과 그 우방국에게 골치 아픈 존재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생선알인 알마스 캐비어가 나는 곳도 바로 이란이다. 900g에 약 2만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7백만 원이 넘는다.



SII ● Seiko Instruments Inc.

J.SPRINGS



* J.SPRINGS 직영점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2-640-5082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051-745-2297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042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79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75
 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 02-2639-1337

디큐브(신도림점) 02-2211-0149
 디큐브(가재동점) 055-680-0193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08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36
 엘기(대구점) 053-255-6940
 엘기(구미점) 054-451-6940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초이필(구미점) 054-613-1170
 타임피아(구미점) 054-253-8855

● 공식수입원 성원 02-3445-4603 www.j-springs.com

* 면세점
 인천관광공사면세점 032-743-2107
 제주관광공사중문면세점 064-780-7865
 신라면세점 02-2230-3997

* J.SPRINGS 전문점

AK플라자(분당점) 031-8023-2032

록스타 섹태 보고서

먹고 자고 맛보고 즐기고
BY 이영환 ILLUSTRATION 관재혁

고미킹들의
삼집
퍼레이드



빌리 조 암스트롱



그린데이 / 빌리 조 암스트롱

빌리 조 암스트롱은 별로 안 스트롱한 고추가 달린 수컷 맹수입니다. 사이즈는 대략 7.6cm로 록스타 맹수 중에서도 단연 미니멀한 '나노 고추'를 자랑하는 녀석이지요. 최근엔 마약 먹어 몸 컨디션이 별로라고 하네요. 그나마 있는 고추도 화석이 되겠군요. 안타깝습니다.



오아시스 / 노엘 갤러거

고추 크기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입니다만, 거대한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조약한 고미 스킬 때문에 열혈 빠순이 암컷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소문입니다. 조숙한 초딩이 배개 끌어안고 버추얼 섹스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빅뱅 / 승리 the Johnsons

'Strong' Baby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 수컷은 최근 섬나라 암컷 원숭이와의 짝짓기 중 목을 즐겼다가 곤혹을 치른 바 있죠. 암컷 배에 수건을 던지는 마무리까지. '스트롱 베이비'라는 별칭답게 과연 스트롱한 수컷입니다.

오스봉이 오랑~ 한 번 데!

나도!

주다스 프리스트 / 글렌 팀톤

왕년에 잘나갔던 예순다섯 살의 '고미 킹'입니다. 이 녀석은 코카인 등의 마약을 좋아해 기공은 기괴한 형태의 고미 퍼포먼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물론 왕년에 이야기죠.

오미 좋은 것



오지 오스본 / 존 마이클 오스본

수많은 빠순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놈은 록 생태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고미 킹'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 그와 고미를 한 암컷들은 흥공을 수십 차례 횡단했다고 하네요. 'Crazy Train'(오지 오스본 곡)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암컷 암컷!

림프 비즈킷 / 프레드 더스트

빨간 뉴에라를 좋아하는 이 녀석은 발정난 개로 꽤나 유명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와와 고미 비디오 주인공으로 나와 유명세를 떨친 바도 있죠. 최근에는 새끼 기르느라 좀 안전해졌다는군요.



꺼... 꺼져 개놈아

카우치 / 뱀뱀

한반도 최고의 맹수로 손색없는 녀석입니다. MBC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추를 튕긴 죄로 1년 남짓 옥살이를 했었죠. 사이즈는 몰라도 정신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자리를 넘볼 만한 맹수입니다.



나는 헤비급 절대자다
나는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 챔피언이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전

UFC[®] 155

산토스 VS 벨라스케즈

12월 30일 (일) 오전 11시 30분

SUPER ACTION

음모(陰毛)론

2012년 대미를 장식할 21세기 최고의 음모론.
BY 박한빛누리 DESIGN 전은경



음모란?

사람의 두덩뼈 부위와 살 부위에 있는 털로, 거웃 또는 치모라고도 부른다. 때때로 허벅지 위쪽, 항문 주위에도 분포하는데, 이는 더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니 인상 찌푸리지 말자. 음모는 사춘기 때 갑작스러운 호르몬 분비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털이 없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연모(숱털)가 성모(종말털)로 바뀌는 거다. 이, 이건 음모야!



남자와 여자의 음모론

일반적으로 음모의 모양은 방패 모양을 띤다(남자는 한곳에 창과 방패를 다 가진 셈이다). 남성의 음모는 끝이 배꼽 쪽으로 자라나는 삼각형 모양이고 여성은 끝이 수평으로 자라는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자도 유승준처럼 배레나룻이 복근까지 치고 올라오면 간지 터질 텐데!



음모의 색깔론

모발 색이 같은 사람이라 해도 음모 색깔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대다수 사람은 음모 색이 두피 모발보다 어둡고, 눈썹 색깔과 비슷하다. 음모의 결은 거칠고 짙은 털에서 직모에 이르기까지 인종마다 다양하다. 즉, 음모의 모양은 곧 인종과 민족성을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모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음모의 無

음모는 남녀 모두 2차 성징을 거쳐 성호르몬의 작용을 받아 발모하지만, 뇌하수체호르몬의 이상이나 남성의 경우 고환의 발육부전 등의 질환으로 남성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음모가 안 자란다. 아직도 아랫도리가 사하라 사막인 수컷이라면 고환이나 내분비선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당장에 의사를 찾아가자. 다행히도 발모 부전증은 여성에게 많다.

음모의
기능

- 따듯하다.
- 성적 성숙을 보여준다.
- 분비된 페로몬을 모은다.
- 성교 시 외부 마찰을 줄인다.
- 외부 자극에 민감한 아랫도리를 보호한다.
- 가슴의 성장을 미리 알려준다.



음모를 심자

무모·빈모증은 모발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후두부에 있는 머리털을 한 가닥씩 분리, 음부로 옮겨 심는다. 1회 시술 시 머리카락 800~1200개를 이식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모양과 크기를 참고해 모발의 방향과 이식 높이, 분포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꽃을 때는 직모지만, 싹 빠졌다 다시 솟는 새 털은 파마라도 한 듯 특유의 음모형태로 휘어진다.

세계 음모론

그깟 음모가
꼬치털보다 중요하겠나만.



담배는 나가서 펄

9-11 테러

미국 정부가 9-11 테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묵인했다는 음모론이다. 테러 전 무역센터와 관련있는 거래가 유난히 활발했고, 테러 당시 유명 인사나 테러에 관련된 보안팀들이 하필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 빌빌대던 부시의 권력이 테러 이후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건물 하나로 인구 3억 명의 마음을 산 거라면 진짜 싸게 먹힌 거네.



셰익스피어는 없다

이 이론은 18세기부터 제기된 영문학계 최대의 음모론으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이름만 있고 실존 인물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실제 작가를 두고는 프랜시스 베이컨, 크리스토퍼 말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숨겨진 사생아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셰익스피어가 필명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맞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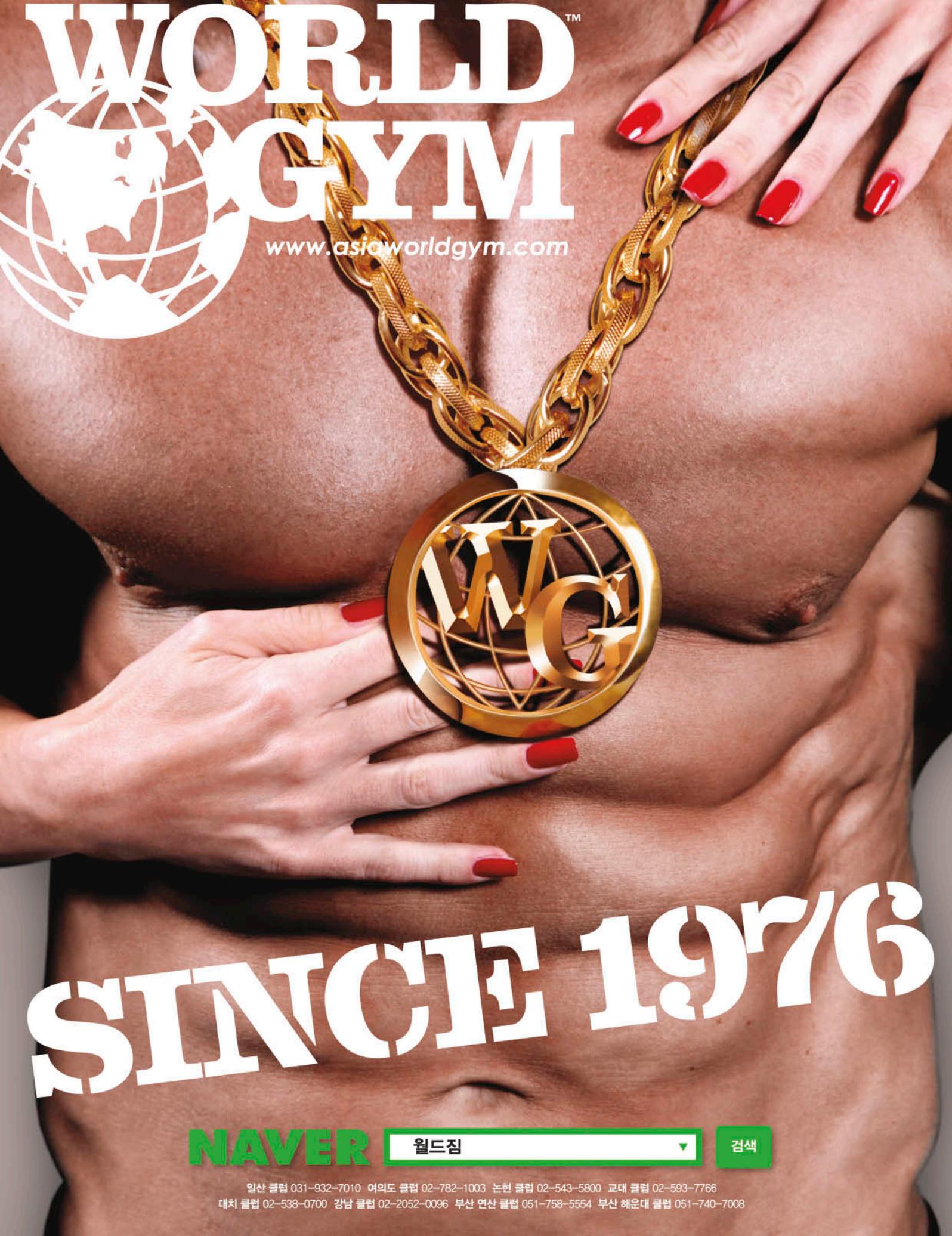
이오 빈아심경은 이런 거 없는데!

다빈치 코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아이를 두었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며, 그 내용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암시되어 있다는 음모론. 이에 관한 영화와 소설이 쏟아졌지만, 가톨릭 교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과 역사와 과학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누구든지 기독교 건물엔 음경이 되는 거지.

WORLD GYM™

www.asiaworldgym.com



SINCE 1976

NAVER

월드짐

검색

일산 클럽 031-932-7010 여의도 클럽 02-782-1003 논현 클럽 02-543-5800 교대 클럽 02-593-7766
대치 클럽 02-538-0700 강남 클럽 02-2052-0096 부산 연산 클럽 051-758-5554 부산 해운대 클럽 051-740-7008

첨단 자위 머신

이제 사랑도, 섹스도 오르가슴도 0101 디지털
BY 송종민 ILLUSTRATION 강영문 DESIGN 전은경

여기 넣어봐!

USB オナホール
3D カスタム 少女



3D 커스텀 소녀 + 오나콘 셋

닌텐도의 위모트 컨트롤러와 플레이스테이션의 무브, 엑스박스의 키넥트가 나왔을 때부터 모든 게이머가 기다려온 꿈의 컨트롤러, 오나니(자위를 뜻하는 일본말) 컨트롤러를 합친 오나콘이 등장했다! 대웅 소프트는 무려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여성의 체형과 목소리는 물론, 각종 복장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꿈의 게임 <3D 커스텀 소녀>! 이상형 섹스 파트너에게 허무한 마우스질(허공에 헛쫄질을 하는 것처럼 처량한)을 해야 했던 지난날이여 안녕, 오나콘에 너의 조팜메이를 삽입하고 문란하게 흔들어주면 화면 속 그녀가 너의 음란한 움직임에 맞춰 비명을 흘린다! 이거야말로 그녀를 휘젓는 매직스틱, 진정한 조이스틱이 아닌가!

SOM 조팜메이 펌핑 머신

다른 머신에 비하면 산업혁명 시대, 증기 기관차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풀 오토매틱 자위 머신이다. 다리 사이에 머신을 설치하고 리모컨을 누르면 기계가 너의 조팜메이에 무려 분당 80~180번의 인정은 없고 사정만이 있는 초고속 펌프질을 시전한다. 단점이라면 네 조팜메이의 흰 정도를 감지하는 기능 따윈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정될 수도 있겠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진다면 환경 친화적인 손 모양 어댑터가 달린 핸드잡 모델을 고르자. 아, 그리고 저 위 기계 이름은 내가 지었다.

여성용도 있는데 그건 차마... QR 코드 찍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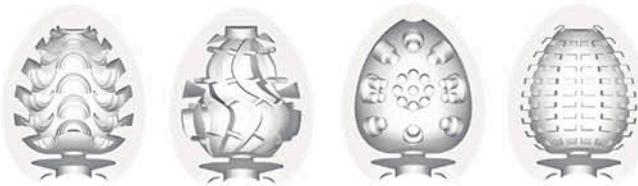
Love Palz

이제 사랑도 와이파이를 타고! 장거리 연애 커플의 필수품이 등장했다. 남성이 제우스(내부가 실리곤 재질인 자위 도구)를 통해 자위를 시작하면 제우스가 측정된 피스톤운동 속도가 블루투스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된다. 이 신호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 헤라(조팜메이형 자위 도구)에 전달되어 '동작 속도'를 결정한다. 또 여성의 반응도 제우스에 전송되어 '수축'을 유발한다! 이역만리에서도 익숙한 서로의 움직임과 조임을 느낄 수 있는 것! 영상통화와 함께라면 폰섹스의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가끔 지루하다면 친구에게 빌려줘 보자. 딴 놈의 움직임에 느끼는 내 여친의 모습을 보고 길티 플레저를 느낄 수도?! (이게 더 좋게 들린다?)



TENGA

이토록 자위용품이 유명 브랜드화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초절정의 인기를 자랑하는 일본 남성 자위 기구의 대표 브랜드. 텡가 에그와 텡가 3D는 앞서 설명한 오토매틱 기계들과 다른 수동형 실리콘 자위 기구지만 그 신묘함은 내부를 장식하는 다양한 주름에 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의 속이 똑같다면 섹스가 그리 흥미롭진 않을 것이다. 자위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저마다 맛(?)이 다르듯 트윈스터, 스파이더, 실키, 웨이비, 스테퍼 등 이름만 들어도 궁금한 다양한 내부 주름 표현이 흥미를 자극한다. 이 세상에 없는 독특한 감각을 자랑한다고, 이 또한 모두 정복해보지 않고 어찌 조팜메이 달고 태어난 남자라 할 수 있으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맛...



거울을 보고 심장 박동이 커진 적이 있나요?

남들보다 큰 가슴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나요?
살이 찐 편도 아닌데 유독 가슴만 볼록해서 고민으로 밤샘 경험은요?
그렇다면 혹시 **여성형 유방증**은 아닐까요?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임상자문의 및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외래 부교수 위촉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MAXIM 여직원 미모 배틀 정턱이 반한 그녀는 누구?

근데, 솔직히 나 아닌가? PHOTOGRAPH 텐아시아, ARC STUDIO DESIGN 전은경

→ <슈퍼스타K 4>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쾌남과 옥구술'이 지난 10월 29일 MAXIM 사옥을 방문, 사무실 습격 공연을 펼쳤다(p.40 참고). 정턱은 다음 날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어제 MAXIM에서 봤다"고 말했다. 그의 한마디에 MAXIM 여직원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 여자들, 정턱이 예쁘다면 그 여자가 모두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바뀐다. 지금 현재는 어제 MAXIM에서 본 분이다. 참 예뻐했다.

나도 어제까진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



"MAXIM 빌딩의 얼굴 마담은 바로 나."

/ 회계 총무팀 장선영 주임(26)

그동안 내가 MAXIM 얼짱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더니, 이제 와서 도전질이야? 최고 미인이 프론트에 앉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프론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입구에서 그와 가장 먼저 눈이 마주쳤다. 그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정턱씨, 오다길씨, 빨리 교통정리 좀 해."



"나, MAXIM 표지 모델로 나온 여자야."

/ 에디터 김화성 대리(25)

이중에 MAXIM 표지 모델 한 적 있는 사람? 2012년 5월호 에디터 뒤에 표지 사건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 웬만하면 안 밝히려려고 했는데... 어쩐지 촬영이 끝났는데도 내 주변을 맴돌러라! "정턱씨, 다음엔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번호 줘요."

"정턱이 내 무릎에 앉았다고!"

/ 에디터 손안나 주임(25)

나 고등학교 땀 예쁘다는 이유로 언니들한테 화장실에 끌려가 맞은 적도 있다고 요즘 우리 회사 대세가 나라는 건 다들 알지? 사무실에서 시크하게 원고를 쓰던 내 무릎에 갑자기 앉아버린 그, 알고 있다. 애드리브 같지만 다 계산된 동선이었던 걸.



"MAXIM 한효주 여기 있어."

/ 디자이너 전은경 주임(26)

우리 회사 여자들 하나같이 섹시 콘셉트잖아. 개성머리 없이... 딱 봐도 MAXIM 유일의 청순 가련형인 내가 돋보이는 건 당연해. 이번에도 내가 먹혔나 보네. 이젠 뭐 놀랍지도 않다. 남자들 보는 눈 다 똑같다. 니네같은 애들 좋아하다가 결국 결혼은 나한테 와서 하자고 매달리지.



"날 보고 볼이 빨개지더라. 귀엽게..."

/ 비서 김화현 사원(23)

비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지적이고 섹시한 오피스 레이디? 맞다, 그게 나다. 오죽하면 내가 이 세상 회사 사장 중 가장 눈이 높은 MAXIM 사장의 비서로 발탁됐겠나? 함께 셀카를 찍자는 내 부탁에 쾌남들도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다 필요 없다. 여기서 내가 제일 어려."

/ 인턴 에디터 최동희(22)

헐... 난 이 늑다리들이 자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웃긴 거 같아. 여기서 나보다 어린 사람 있어? 나이로 보나 볼살로 보나 여기서 내가 제일 탱탱하잖아? 사무실 공연 중에 내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씨익 웃어준 이 오빠, 나한테 반한 거 맞지?

연예인
쌘싸 먹는
촬영 현장



나라고, 이년애!

정턱이 답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MAXIM 여자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니들은 다 끝났어."

/ 회계 총무팀 최인영 대리(31)

이년들이 싹 다 위약을 처먹었나... 173cm의 키와 긴 다리, 브라질형 남미 몸매의 언니를 잊었니? 결혼 전엔 나도 날렸던 사람이야. 정턱도 여자를 좋아하는 모양이네. 유부녀라고 믿고 싶지 않을 이 육감적인 S라인에 반한 게 분명해. 쫓아다니는 남자들 귀찮아서 빨리 애를 낳든지 해야지 원.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김면발



박스프

컵라면-봉지 라면은 정말 같은 맛일까?

한 뺨속에서 난 라면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컵라면 vs. 봉지 라면. 누들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비교해봤다. BY 누들러 DESIGN 서윤정

에디터의 라면 먹방



1위 삼양 나가사끼 짬뽕

83점
싱크로 점수

맛: <미슐랭 가이드> 저자가 아닌 이상 국물 맛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 = 37점

면발: 대개 컵라면 면발은 봉지 라면의 면 굵기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나가사끼 짬뽕은 면발의 굵기가 거의 흡사하다. = 27점

원재료: 봉지 라면의 용량이 10g 더 크다. 컵라면에는 덴마크산 전분이 들어 있다. = 14점

디자인: 봉지 라면에만 나가사끼 짬뽕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 5점

단언컨대, AKB48 멤버들의 얼굴을 전부 구분해내는 작업이 더 쉬운 것이다.



2위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

72점
싱크로 점수

맛: 컵라면도 맛있지만, 원조 봉지 라면의 내밀한 맛을 흉내 내진 못한다. = 27점

면발: 컵라면 면발은 다소 가느다랗지만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이 좋다. = 29점

원재료: 봉지 라면의 후레이크는 농심 그룹의 자회사인 태경농산에서 만든다. = 8점

디자인: 봉지 라면 겉면에 더 많은 한자가 나온다. 당신이 천차만 급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봉지 라면을 추천! = 8점

컵라면은 114g에 515kcal이지만, 봉지 라면은 120g에 505kcal라는 점이 미스터리다.



3위 삼양 삼양라면

57점
싱크로 점수

맛: 면 굵기, 풍성한 국물 맛 모두 봉지 라면이 압도적이다. = 20점

면발: 컵라면 면에는 특수 코팅을 했는지 스프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 10점

원재료: 두 제품 모두 '미감에스유'라는 독특한 소스를 첨가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 18점

디자인: 5개 제품 중 컵라면-봉지 라면 간에 가장 흡사한 디자인을 고수한다. = 9점

봉지 라면에만 '녹황색 야채를 듬뿍 첨가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컵라면에는 녹황색 채소를 짚고 첨가했다는 건가?



4위 오뚜기 참깨라면

42점
싱크로 점수

맛: 봉지 라면은 맵고 칼칼한데, 어째서 컵라면은 느끼하고 부드러운가? = 12점

면발: 점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 25점

원재료: 봉지 라면이 컵라면보다 계란이 13% 더 많이 들어있다. 참깨의 양도 0.4% 더 많다. 당연히 열량도 40kcal 더 높다. = 3점

디자인: 컵라면에는 '참깨라면 맛있게 먹는 법'이 빠져 있다. 불친절하기 이를 데 없다. = 2점

봉지 라면이 컵라면보다 느끼한 이유는 봉지 라면은 유성스프를 쓰지만, 컵라면은 조미 첨가제를 쓰기 때문인 걸까?

싱크로를 채점표	100점(만점)
전체적인 맛(국물의 농도)	40점
면발의 굵기 및 탄력 정도	30점
용량 및 원재료	20점
외부 디자인	10점

농심 짜파게티 큰사발면 vs. 오뚜기 짜장볶이컵 더 맛있는 자장라면 컵라면은?



농심 짜파게티 큰사발면



짜파게티 봉지 라면은 면을 삶고 그 삶은 물을 버리는 데 반해, 컵라면은 (귀찮으니) 아예 처음부터 물을 조금만 부어 비벼란다. 흥건한 국물이 짜파게티 본연의 맛을 죽여버렸다. 아아, 짜파게티가 죽었습니다.



오뚜기 짜장볶이컵



농심에서 짜파게티를 만든 연구진이 단체로 오뚜기로 이직한 게 분명하다. 라면에 맞춰 스프를 비비면 비로소 원조 짜파게티의 맛이 난다. 탕웨이기 떠오르는 달콤한 소스, 판빙빙이 그려지는 굵은 면발 짜파게티의 컵라면 버전은 응당 짜장볶이가 되어야만 한다.

안경 쓰고... 살 만하십니까?

당신의 간지는 알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기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주겠다.
자, 두 눈 부릅뜨고 잘 보라고!

BY 김진욱 ILLUSTRATION & DESIGN 서윤정

샤워 후엔 나도 꽃미남, 문제가 뭐지?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우리 진욱이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32년째 나는 참 잘생긴 아이(할머니에게만...). 사실 나도 샤워하고 나면, 까암~짝 놀랄 때가 많다. 주름 없는 보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이만하면 나도 3초 장동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이지. 게다가 200만 원 넘게 들여서 한 개인 PT로 이거 이거, 복근에 청바지도 빨 수 있을 것 같은데, 균형 잡힌 몸매에 뛰어난 얼굴! 왜, 왜, 왜! 나는 애인이 생기지 않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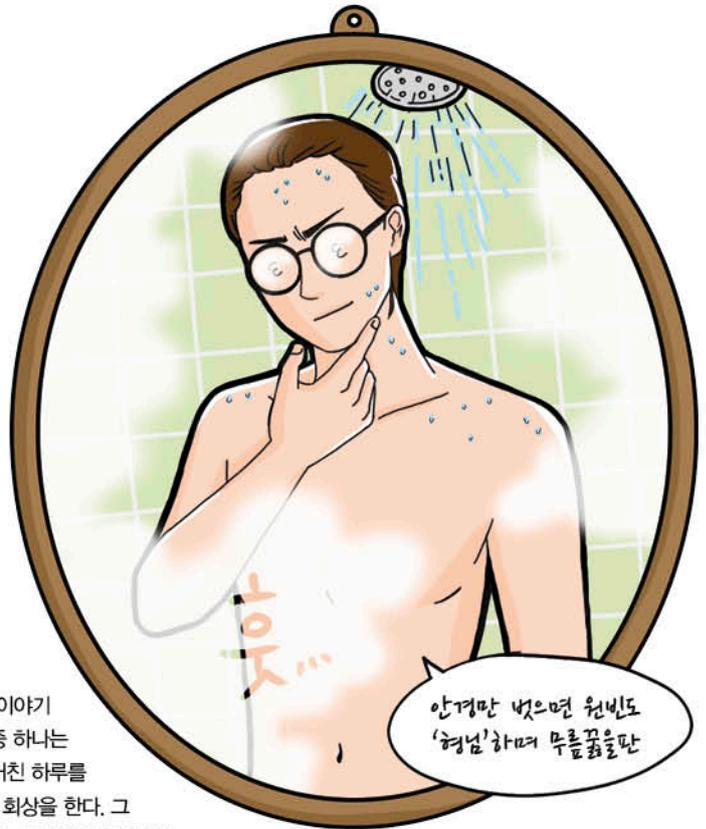
소개팅을 망쳐버린 내 안경

오랜만에 잡힌 소개팅, 3년 동안의 연애 공백기를 깨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부은 얼굴을 위해 근육 마사지도 받고, 새 코트도 구입하고, 겨울에 어울리는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예약했다. 출격 준비 끝. 나의 매력으로 그녀를 단숨에 녹여 버리리라.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레스토랑. 그런데 헐... 레스토랑의 난방은 최대로 가동 중이었고, 이내 내 두툼한 안경 렌즈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버렸다. 소개팅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그렇다고 안경을 벗으면 아예 보이

지도 않는데... 결국 서리가 가시기를 기다릴 수 밖에. 아...준비를 하면 뭐하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이놈의 안경이 문제인걸.

드라마의 진부한 소재를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그 중 하나는 남자의 샤워 장면. 무척 거친 하루를 보낸 남자는 샤워를 하며 화상을 한다. 그 날 낮에 있었던 두근거리는 그녀와의 로맨스를, 한 손으로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반드시 한 손은 거울에 손을 짚은 채로.

이런 맛있는 샤워 장면이 한 번씩 전파를 타면 다음 날 네이전은 '***샤워신', '***샤워' 등으로 도배되고 각종 게시판은 '몸짱***샤워신 여심 홀려' 등으로 가려진 남성들의 헬스 본능을 뽐뿌질해 급기야 헬스클럽의 등록 러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몸을 가꾼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 상상해 보자. 눈이 매우 나쁜 배우가 샤워 장면을 찍는다면? 보이지 않는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거울에 얼굴을 비빔 붙이며 얼굴이 뭉개지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멜로물에서 코미디물 혹은 호러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샤워 후에 꽃미남도 눈이 좋아야 보이고 소개팅에서의 첫인상도 자신 있게 맨 얼굴을 보이는 순간에 결정된다. 샤워 장면을 따라하고 싶다면, 소개팅에서 그녀에게 자신 있게 얼굴을 보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안경을 벗어라. 얼굴에 거추장스럽게 달린 안경은 당신이 훈남이 되는 화룡점정에 찬물을 끼얹는 장애물일 뿐이다.

이제 뭐가 먼저인지 아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MAXIM 지정 훈남 의사 서울밝은안과 김성일원장에게 안경을 벗고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한 라식, 라섹에 대해 물어 보았다.

Q: 수술할 때 아파요?

A: 한 마디로 No! 통증 없고 회복 빠르고, 요즘 시력 교정수술 엄청 좋아져서 예전의 비싼 가격과 오래 걸리는 회복 시간을 상상한다면 한참 뒤떨어진 생각이 다요~!!!

Q: 수술비는 비싸요?

A: 당신의 불금을 몇 번만 소박하게 보내도 수술 좋은 거 하고 남는데. 의술과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지요. 저를 만나면 "MAXIM 보고 왔어요! 형."이라고 불러보아요. 추가 혜택이 나갈 수 있을 테니! 아저씨 말고, 반드시 HYENG~HYENG!

Q: 수술 후 회복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요즘은 수술하고 바로 복귀하는 군인 동생들도 많아요. 라섹은 2일 정도 불편할 수 있어서 휴가 나오자마자 받는 경우도 많고, 라식은 휴식 기간이 의미 없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니 Don't worry~~~be happy. 자신 있게 웃는 거야. SMILE AGAIN!

Q: 수술하고 나서 술 마셔도 돼요?

A: 눈에 염증 생겨서 "아아아아" 하며 흉아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으면 드세요. 맘해 해줄 테니. 어떤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최소 3주 정도는 눈에 땀을 짓을 하지 말아야 다시 눈이 안 나빠집니다. 초기 관리가 시력을 좌우할 수 있으니, 조심조심!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5 MOST EXTREME JOBS

체험!
삶의 현장



이 정도는 해야 '월급 도둑' 소리 안 듣는다.

BY 조용재 IMAGE 연합뉴스 DESIGN 서윤정

건물 보수원

연봉 국내: 1,900만 원대 / 해외: 3,800만 원대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외벽, 창문, 지붕 등 건물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청소하고 관리한다. 사람들이 익히 아는 '창문 닦기' 작업도 이에 속한다. 낙사 혹은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뇌수가 철철 흐르는 사고가 가끔 일어나는데, 올해만 해도 9~10월에 걸쳐 충남 홍성군과 대구 달서구에서 추락 사고와 크레인 붕괴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물론 위험 요소만 배제하면 창문 밖에서 상사에게 털리는 신입 사원에게 조소를 날리거나 사장 머리 뒤로 뼈큐를 날릴 수도 있다. 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참치 카우보이

연봉 미상이나 벌 만큼 번다

호주 포트링컨의 참치 카우보이는 참치 떼를 양식 그물로 몰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참치 떼를 보고 군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상어의 아가리를 패대

기쳐 그물 밖으로 밀어내는 대담한 인간들이야! 필요하다면 약천후에도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해야 한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홀로 떨어져 상어 떼의 소중한 단백질원이 되기도 하는 위험한 직업이다. 포획 수입이 참치잡이 1회당 9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작업에 투입되는 카우보이가 수가 네 명뿐인 걸 생각하면 벌이도 꽤 쓸쓸한 듯. 혹시 이번 수능을 망쳐 망연자실해 있다면 어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워보자. 그런데 장비가 벤츠 한 대 값이잖아. 아마 안 될 거야.



벌목꾼

연봉 국내: 2,400만 원대

해외: 3,700만 원대

요새 누가 도끼질하나? 요즘 인부들은 자동화된 최첨단 크레인과 전기톱으로 벌목한다. 쓰러지는 거대한 나무

도 위험하지만, 강철을 종잇조각처럼 썰어버리는 살인 장비에 사지가 잘려나갈 위험도 크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4월, 고사목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벌목꾼 1명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2월, 영국의 한 62세 영감은 딸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전기톱질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해외에선 급여가 나쁘지 않다. 꽃땀이 육탄전으로 어수룩한 나무꾼 꼬셔서 빨 거 다 빨아먹고 애들과 친정으로 튀었다는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는 사실 셰익스피어 원작이 아닐까.



전기 기사원

연봉 국내: 2,000만 원대

해외: 4,800만 원대

그냥 전신주에서 고적대다 내려오는 직업 아니냐 싶겠지. 하지만 전신주 작업 중 감전을 당하게 되면 신경에

마비가 와서 몸이 굳고, 내부 저항에 트러블이 생겨 몸이 통구이처럼 타게 된다. 게다가 부정맥을 동반할 경우엔 즉사에 이른다. 지난 7월만 해도 한 달 동안 세 건의 전기공사 감전 사고가 발생해 한전 측에서 골머리를 앓았다. 어릴 때 콘센트에 젓가락 쑤시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나? 전신주에 흐르는 전압은 가정용 전압의 100배인 2만2,900V다. 이쯤 되면 전기줄에 얹은 참새가 피카츄로 보여도 이상할 게 없지.



MAXIM 에디터

연봉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사무실에서 키보드나 치며 노닥거리는 한량 같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박 모 에디터는 노숙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눈썰미 좋은 노숙인에게 걸려 집단 구타를 당할 뻔했으나 간발의 차로 일반인 사이로 뛰어들어 위기를 면했다. 김 모 에디터는 4차선 도로에서 화보를 찍다가 건너편에서 오는 탱크리과 프랜치 키스를 할 뻔했다. 지옥같은 마감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순정만화 주인공의 얼굴로 돌아와 심지수나 다도, 마라톤 등으로 자신을 수양한다...는 건 뺄. 그럴리가 없잖아.

→ 그래도 지원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MAXIM 홈페이지에서 'RECRUIT'를 클릭하자.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3개월 정기 구독	6개월 정기 구독	12개월 정기 구독	24개월 정기 구독	36개월 정기 구독	48개월 정기 구독
아싸 좋구나!	정가 33,600원 ↓	정가 67,200원 ↓	정가 134,400원 ↓	정가 201,600원 ↓	정가 268,800원 ↓
	3천 원 할인 1000씩 적립	7천 원 할인 2000씩 적립	1만 5천 원 할인 4000씩 적립	3만 원 할인 6000씩 적립	5만 원 할인 8000씩 적립
정가 16,800원	할인가 30,600원	할인가 60,200원	할인가 119,400원	할인가 171,600원	할인가 218,800원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딱=1원)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담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모르겠으면
찍어봐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대니시 디자인'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2년 12월 20일까지)

전역자랑겔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송영민 평생 30%

어느덧 전역한 지 1개월 다 돼간다. 막상 전역하니 뭐 좀 쓸쓸한 감도 들고 회의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밝이 좋은 것 같다. 면회 곧 갈 테니까 그때까지 다치지 말고 잘들 지내고 있어라. 특히 통신분과 힘내고, 화이팅!



최병영 평생 30%

우리 자랑스러운 해군 3함대 화생방지원대 수병들이 군 생활 하는 고생이 많다. 힘든 일 있어도, 서로 성격 안 맞고 다들 일이 있더라도 한바탕 탄 전우라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화지대 수병들이 되었으면 해. 나도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게. 전역하면 연락도 하고 ㅎㅎ



안지호 평생 30%

날 스타트로 11년 군번들이 가는구나... 열심히하 하고... 끝은 있으니까 포기 말고 웃으면서 군 생활 하도록!



김도용 평생 30%

아, 파도 치는 동해 바다에 오늘도 고무보트 메고 하들 셋 하들 셋 패달링하는 네 녀석들의 무릎과 허리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면서... 색기들이나다. ㅋㅋ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선물 하나 하려나. 난 해병 정신으로 벌써 일하고 있다. 부대에서 황룡병장 노릇하다가 사회의 찌고레기 하려나까 죽겠다. 나와서도 니들 면상이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다. 보고 싶다 ㅋ p.s 할 일 없으면 씨방 가서 미스 맥심 투표해라. 누구한테 해야 할지는 말 안해도 알지?



평생 30%

이태엽
애들아, 나도 벌써 전역한 지 2개월이 됐어ㅋㅋㅋㅋ 너네도 이제 술술 한 명 한 명씩 다 전역하겠지? ㅎㅎ 빨리빨리 나와서 술이나 먹자~ㅋㅋ



문홍만 평생 30%

혹한기 훈련 때 산에다 2명씩 버려두고 날밤 새우는 게 훈련이라고... 그때 너무 추워서 불지피다가 걸린 게 아직도 생생하네. 이제 막 피어올때 간부가 와서 걸리고ㅋㅋ 훈련 끝나고 주간 근무 나갔다 오니깐 사제 담배 8갑 짹박아 둔 거 걸리고ㅋㅋ 준익아ㅋㅋ 아직 일병이겠지?? 2014년 안 올 것 같지? 지금이 2012년인데... 그래도 전역은 할 거야... 어쨌든 전역하거나 휴가 나오기 전에 연락해. 쏘주+양주 사줄게 ㅋ



평생 30%

이병관
전역을 했다. 맥심 때문에 재미있었고, 그만큼 탈도 많았다. 맥심을 몰래 사와서 고참들한테 이쁨을 받았고, 걸렸을 때 내가 사왔다고 자처해서 얼치려 겁나 받았다. 시간 금방 간다. 거봐 나도 전역하잖아~ ㅋㅋㅋㅋ



평생 30%

최민우
후임들이, 나오니까 정말 좋아...라는 말로 끝날 것 같네!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건 며칠뿐이더라. 특히 너의 특급 부사수 준야. 니 덕에 내가 사람도 가르쳐보고 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호구... 아니ㅎ 좋은 후임이 들어왔구나 했어. 너는 성공할 것 같은 후임이었다. 내 최고의 부사수여 ㅋ ㅋ p.s 두통, 실신, 마음 병! 통신병 포에버~~~~



서문찬 평생 30%

39사단 119기동 아이들 아. 난 먼저 나와서 맥심 싸게 보고 있을게. ㅠㅠ ㅠㅠ 반입 금지라 어떻게 할 수도 없네. ㅠㅠ 100km 행군 곧 하겠네. ㅠㅠ 그다음엔 혹한기. ㅠㅠ 고참이 먼저 나와서 응원할게. 힘내 화이팅!



양진열 평생 30%

형, 한다면 한다. 너희들에게 과월호 질러준다고 형도 지르고 있다. 전역할 때 괜히 일장연설을 해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그래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야. 그러니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면 좋겠다. 마지막 휴식처라는 군대에서의 삶을 즐기고 진짜 말 그대로 휴식하고 쉬다가 나와. 내가 아끼는 후임 뚜뚜와 민호, 호국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꼭 쉬고 전역 준비 잘하고^^*



평생 30%

권정빈
안녕 애들아, 나도 군대에 있을 때 맥심을 보게 돼서 지금까지 보게 되었네. 너네나 후임들을 위해 전역 인증할게. 잘살고 나 나중에 면회 갈게. 안녕.



김지산 평생 30%

사랑하는 나의 작통단, 전역한 지가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이런 상실감, 너희도 느끼고 있니? 전역하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약간의 우울함과 그리움이 있구나. 전역증 사진은 웃고 있지만 지금 이걸 쓰는 내 얼굴을 너흰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야. 아무든 사랑한다. 보고 싶고 그리겠다

위 122명을 비롯하여 총 5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장군급 평생 30% VIP가 되었다!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매국노 원정녀
요화 배정자
貞子(사다코)

드라마 '각시탈'에 등장하는 '채홍이'의 실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사상 최악의 여자 매국노, 일본의 스파이로 활약한 배정자 (1870~1951)가 그녀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남자들과 엮인 삶으로 유명하지요.

몰락한 집안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기생집에서 판기로 길러지다가



이놈의 나라 안 망하나

도망쳐서 방황하던 중 일본 낭인 마쓰오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감.



원조 원정녀!

일본에 망명중이던 김옥균의 도움으로 일본에 적응하고.



안경모도가 대세라네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가 된다.

그 밑에서 정보요원 교육을 받고



물론 주업부는 방시중.

21세에 조선으로 돌아와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의 고관대작들과 교류



원정녀 하악하악

일본의 스파이로서, 러일전쟁때 고종이 러시아로 뒤희는 걸 저지.



어딜 가시나

이토 사망후 만주, 시베리아를 누비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요원으로 활약.



양아버지의 복수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는 일본인 고관대작들, 유명인사들, 심지어 독립운동가들과도 교제.



남자는 어장관리가 제맛이지요

일제 말기에는 위안부 모집에 관여, 100여 명을 속여서 위안부로 보냄.



동남아 진출 공기업 사무직 모집합니다!

독립후에도 그냥저냥 잘 살다가 1952년 서울에서 사망.



파란만장한 삶이었어

죽을 때도 20세 연하의 청년과 동거중이었다.



R A T 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우리 지은이 다 컸네!

일이 점점 재밌게 돌아가는걸?
BY 손안나 DESIGN 신숙희 IMAGE 연합뉴스

거참... 셀카 한 장에 유년들은...

지난 11월 10일, 아이유와 슈퍼주니어 은혁이 다정히 붙어 있는 셀카 사진 한 장이 아이유의 트위터에 올라왔다. 아이유가 실수로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이 들썩들썩했다. 팬들은 곧장 "저건 아이유가 아니다"라며 항변했지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불과 흰자위에 난 점을 포착한 네티즌 수사대의 예리함에 아이유 본인임이 밝혀졌다. 삼촌 팬들은 "저건 잠옷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은이는 멀치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울부짖었으나 사진 속 아이유가 입고 있는 건 두 달 전, "라면을 끓이려다 잠옷이 타버렸다"며 아이유가 직접 인증한 바로 그 잠옷이었다. "자... 잠옷이 도대체 왜 타버린 거냐?", "가스렌지 위에서 하다가

타버렸을 거다"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삼촌 팬들은 자아를 상실하고 있다. "은혁이 병문안을 간 것일 뿐"이라는 아이유의 소속사의 해명도 삼촌 팬들의 화를 더욱 돋울 뿐이었다. 남의 집에 병문안을 가면 옷통부터 까야 하는 건가보다. 이에 백천 누리꾼들은 '아진요(아이유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민사(아이유를 믿는 사람들)' 따위의 카페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여러분, 저런 거 다 회원 정보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거라니까?). ☹

패러디 영상 구경하기



아이유 사태에 대처하는 팬들의 자세

멀치집이형 삼촌:

"나의 순진한 아이유를... 저 멀치 새끼를 죽여야겠다."

백신 드랍형 삼촌:

"(울면서)아이유 이 더러운 X 개같은 저 날 사랑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한 실드형 삼촌:

"국민 여동생은 평생 남자 사귀면 안 돼?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될 걸, 병문안이 뭐냐. 쪽팔리게."

앨프(슈주 팬클럽): "오빠한테 고리쳤으면 조용하나 사귀길 것이지, 왜 우리 오빠한테 피해주고 지랄이야?"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NEW

Icevolt



Tonino Lamborghini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
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토니노 람보르기니 아이스볼트 타르 6.0mg / 니코틴 0.50mg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레드 카펫이 코피로 물들다

그갓 도금한 트로피 따위를 누가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BY 박한빛누리 DESIGN 신숙희



1위

맥주 기본 테이블로 주세요.



배소은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노출: ★★★★★ 화제: ★★★★★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 배소은제'였다. 매끈한 몸매를 뽐내는 황금빛 착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인이 인터넷 기사를 점령했다. 장인이 한 땀씩 공들여 만든 것 같은 이 명품 드레스는 사실 소속사 직원들과 디자이너들이 밤새워 제작한 거라고.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등과 11자 복근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그녀의 바람과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하나 헤아려준 디자이너에게 기립 박수를 쳐주고 싶다.



2위

손세빈 (제16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노출: ★★★★★ 화제: ★★★★★

지난 7월에 열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레드 카펫의 헤로인 손세빈. 풍만한 가슴을 드러내는 분홍빛 드레스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의 손놀림을 바쁘게 만들었다. 보형물의 힘을 빌려 척추부터 끌어모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가히 '역대급'이라 부를 만하다. 드레스 아래쪽을 시스루로 디자인해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또 한 번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매력 포인트다.



3위

유소영 (제49회 대중상 영화제)

노출: ★★★ 화제: ★★★

2009년, 유소영의 애프터쇼를 탈퇴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가 되어 레드 카펫을 밟으며 몸매를 드러내주시니 전하위복이 된 셈이다. 그녀는 이번 대중상 시상식에서 아찔한 라제리풍 드레스로 볼륨감을 유감 없이 뽐냈다. 시원하게 드러낸 가슴선은 물론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어깨끈 덕분에 시상식을 지켜보던 수컷들이 리모컨을 짝 쥐며 '저게 언제 흘러내리나'하고 침 흘렸을 거야?



4위

김자우 (제49회 대중상 영화제)

노출: ★★★ 화제: ★★★

이번 대중상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김혜수에 도전장을 내다'라는 수식을 받은 여배우 김자우. 그녀는 소문난 글래머로 그동안 화보를 통해 뛰어난 몸매를 여러 번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가슴이 깊게 파인 롱 드레스로 빨랫줄을 연상시키는 재질의 드레스가 가득이 나 큰 그녀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끌어모아 원기옥을 만들었다. 무거운 느낌의 드레스 때문에 허리까지 굽어 보이는 것이 다소 아쉽다.

레드 카펫의 여왕들

아, 이 누나들이랑 단일화하고 싶다.



김혜수

감히 김혜수를 빼놓고 시상식, 레드 카펫, 드레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드레스를 티타늄으로 만들어도 지탱하기 어려운 만큼 탄탄한 가슴은 나이를 먹어도 중력의 영향 따위는 개나 쥐 버렸다. 예림이, 그 때 봐봐, 그거 혹시 뽕이야?



오인혜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쳤다. 그냥 드레스가 커피라면 오인혜 드레스는 슈퍼 T.O.P.다. 심봉사가 취재진으로 갔었다면 당장에 눈을 땀을 거다. 이 정도면 아카데미 시상식에 데려가도 전혀 꿀릴 게 없지 않아?



김소연

〈순풍산부인과〉 이후로 다소 침체를 겪던 김소연이 이 드레스 한 방으로 흑뽕했다. 그녀가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보디라인은 청순하던 그녀의 이미지를 단숨에 바꿔 놓았다. 너무 풍만하지 않고 자극히 현실적이어서 더 관능적이다라.

OD MUSICAL COMPANY, CJ E&M, GANGDONG ARTS CENTER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한국 뮤지컬 10년의 신화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스캔하면
티켓쓴다



대학생
30%할인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강동아트센터 상륙! 12월 1일 개막!

|예매| 인터파크 · 오픈리뷰 · BC카드 LOUN.G · 클림서비스 |문의| 강동아트센터 440-0500 · 오픈리뷰 1588-5212

|주최| 강동아트센터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후원| KIBO 기술보증기금



아니야 스미글이야
아니야 골롬이야

반지의 제왕 주인공은
바로 나지

예고편도
전설급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전설이 뭐 이리 많아.
BY 송종민 DESIGN 서윤정

마이 프레샤스의 전설

호빗 12월 13일 개봉
〈반지의 제왕〉 프리퀀로 빌보가 어떻게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골롬이 어떻게 절대반지를 뺏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집밥 먹으러
갈까?

노랑진의 전설

저지 드레드 12월 6일 개봉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법관, 배심원, 사형 집행관까지 다 해먹을 수 있는거야?



우리도 주인공 하고 싶다!

비디오 게임의 전설

소원성취!

주먹왕 랄프 12월 개봉
30년째 똑같은 악당 역할에 지친 랄프가 파업을 선언하고 다른 게임들 속으로 뛰어든다. 비디오 게임을 추억하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동화.



우리 개봉해요,
말아요?

투자자들의 눈물 전설

타워 12월 19일 개봉
아, 이거 돈은 들었는데 개봉은 해야겠고, 개봉하자니 돈 들것 같고 이게 바로 계륵 아니겠는가?



19,900원입니다

티셔츠의 전설

해게바라: 뉴 맨 11월 개봉
길거리 인터뷰: 아~ 이 아저씨요~ 외국 연예인 아니에요? 티셔츠에서 봤는데? 록커 아닌가?



4편부터 더 벌어지지 말입니다

설날의 전설

가문의 영광 5 12월 19일 개봉
〈가문의 영광〉 신작 나왔는데~ 뭐? 벌써 추석이야?



나야, 배트맨이야?

브로드웨이의 전설

레미제라블 12월 개봉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뮤지컬의 영화 버전. 휴 잭먼, 러셀 크로우, 아만다 사이프리트, 앤 해서웨이 가 나와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다.

전두환 vs. 전두환

<p>이, 이보시오 의사 양반!</p> <p>아직 좀 더 웃으셔도 됩니다</p>	<p>남영동 1985 8,000원만 내면 삼청 교육대 두 시간 풀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투표하기 전에 꼭 한 번씩 봐야 할 것인데... 결론이 개운하게 날 리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무비로는 비추. 11월 22일 개봉</p>	<p>을 영화 많이 사랑해 주삼~</p>	<p>26년 〈남영동 1985〉를 먼저 보면 이 영화가 자동으로 명진다. 조직폭력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실 경호업체 실장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뭉친다. 11월 29일 개봉</p>
--	--	------------------------	--

이번 대결의 진정한 승자 이경영 두 편 다 나와

SF 액션의 새로운 시작, 전설이 부활한다

스캔하고
영화보자



저지 드레드

DREDD 3D

〈밴티지 포인트〉 피트 트레비스 감독



저지 드레드



12월 6일, 미래의 심판자 세상을 구한다!

원스년관람불가

인류 대 위기: 재앙이 온다!

우린 2013년을 무시히 맞이할 수 있을까?
BY 조종재 DESIGN 권은경



브레이크다운
뉴콩코믹스 / 사이토 타카오
재앙 포인트: 운석 충돌

©Minetaro Mochizuki/서울문화사
3식 한국어판

드래곤헤드
서울문화사 / 모치즈키 미네타로
재앙 포인트: 화산 폭발

➔ **멸망이 불러온 사랑, 배신 그리고 소아성애?**

<고르고 13>의 작가 사이토 타카오의 작품. 운석 충돌로 초토화된 일본에서 살아 남은 기자의 생존기다. 또 다른 생존자인 직장 상사에게 “살고 싶으면 말을 들으라”며 죽방울 날리는 모습이 꽤기 넘친다. 가끔씩 “나무에 고인 썩은 물은 먹지 마라”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쓸 만한 팁을 제공한다. 히로인으로 등장하는 미망인과의 로맨스가 있지만, 그녀는 거대 폭발로 사망하고 만다. 골짜기가 없어서 안심했던만 골대가 무너지다니! 결말에 가서는 어린 여학생을 보며 얼굴을 붉히기까지! 생존 팁이 종종 유지 팁으로 발전하는 순간이다.

➔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

시간선을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화산 폭발로 대부분 사망한 가운데, 살아남은 주인공과 여학생이 생존을 위해 개고생하는 이야기. 히로인이 예쁘고 잘빠져서 쓸데없이 웃을 갈아입는 서비스 신이 꽤 있다. 만화를 대표하는 기괴한 캐릭터가 초반부터 등장하는데, 무기를 든 겁 없는 찌파 새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준다. 갈수록 재앙 신보다 죽음의 철학을 얘기하는 장면이 더 많아 지루하다. 중딩 새끼들 주제에, ‘말 많은 놈은 죽는다’는 장르의 법칙에 충실한, 꿈과 희망 따위 없는 엔딩은 직접 확인하자.

최강 캐릭터 열전 운석을 부수고, 지진을 멈추고, 화산을 막겠지.

아빠와
애들!

한마 유지로 - <한마 바키>
주먹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고 탱크를 로보카 풀리다루듯 하는 자상 최강의 생물.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텔레파시로 던진 한마디는 “나를 받아라”였다.

손이 쳐다. 맞기 전에 손 치워라.

켄시로 - <복두의 권>
총탄을 튕겨내는 피부와 두께 5m의 바위를 한 손으로 찌개는 괴력의 소유자. 53분의 잠수 능력과 9m를 뛰어오르는 점프력까지 갖추고 있으나 100m 주파 시간이 9초대다. 점프력이 구라거나 다리가 사실 병신이거나.



©Tetsuya Tsutsui/SQUARE ENIX Co., LTD.



➔ 모기를 죽입니다

하수구를 통해 갑작스레 퍼진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을 파헤치는 두 형사의 이야기. 유혈이 낭자한 작화와 더불어 이토 준지가 허를 길게 빼고 도망갈 것 같은 '여체 숙주' 신은 작품의 백미다. 바이러스가 머리로 타고 올라가 숙주의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데, 터진 눈갈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것도 작품의 모미일까? 바이러스 인자가 '아디다스 모기'라는 설정은 맥 빠진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는 '벵기열'을 옮기는 개체로 알려져 있다고. 문득 몽클레어 패딩과 타이거 마스크 비니의 칩정환이 떠오르는 건 나뿐인가?

©KOMATSU Sakyō/ISHIKI Tokihiko/Kodansha Ltd.



➔ 초강력 작화와 기승전병 시나리오의 잘못된 만남

심해에서 발생한 단층 현상으로 일본 전역이 침몰한다! 섬세한 작화뿐 아니라 소설이 원작인 스토리는 참신하며 심지어 그럴싸하다. 고퀄의 작화로 일본 대륙을 완전히 개박살내는 초 슈퍼 울트라 액션은 묘한 통쾌감을 주지만, 질질 찌는 주인공을 보면 또 가슴이 먹먹해진다. 한국인으로서 보자면 '참 통쾌한 신파극' 정도일까. 잘나가나 싶더니 결말이 완전 뒤흔친다. 마지막 권을 덮는 순간, 입에서 후지산이 대폭발하듯 쌍욕이 튀어나올 거다. '아시발콤(아 씨발 꿈)'이라고 어느지 모르겠네.



브로리 - <드래곤볼>

탈지구급 클래스라 딱히 지구 멸망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전투력 10,000을 넘긴 '우주판 한 마유지' 브로리. 참고로 피콜로조차 프리더 전투를 제외하고 본편에서 전투력 10,000을 넘긴 적이 없다.



양골 모아 - <개구리 증사 케로로>

가루상 같은 모습을 한 착한 여고생. 지구를 파괴하려는 임무를 띠고 온 양골 족 소녀로, 계획보다 너무 일찍 온 나머지 평범한 모습으로 잠시 쉬고 있다. 필살기 '하르마게돈'을 쓰면 행성을 돌로 쪼갤 수도 있다. 알 좀 까는 여자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흔한 스케일

스케일로만 치면 역대 최강이다.

BY 김희성 DESIGN 서운정 COOPERATION 문학동네(031-955-8890)

〈클라우드 아틀라스〉 받기



〈클라우드 아틀라스〉

데이비드 미첼 지음/ 송은주 옮김/ 문학동네
각 13,000원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배우나가 할리우드에 진출해 비중 있는 배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만든 워쇼스키 형제, 아니 그 중 한 명이 공휴를 떴어버렸으니 이제 남매가 된 워쇼스키 남매 감독이 만든 영화라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매트릭스〉를 보면서 뇌가 저릿저릿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개봉하는 내년 1월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진짜 이유는 원작 소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구성과 스토리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영화가 아닌 책 섹션에서 다루기로 했다. 어차피 영화로 볼 테니 두

권이나 되는 두꺼운 소설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책을 읽지 않고 영화를 보면 이해도 잘 안 될뿐더러 졸리고 지루할 거다. 500년이나 되는 워낙 방대한 시간을 다룬 데다 6개의 다른 이야기가 교묘하게 섞이고 연결돼 있거든. 시사회 감상평이 극과 극으로 갈린 이유도 바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스케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디터가 시뮬건 토끼눈을 해가며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재미있게 보는 데 꼭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봤다. 너무 많이 알려줘도 재미가 반감되니 딱 필요한 만큼만 수위 조절했다. 리뷰랍시고 스포일러까지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마라.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 시간

1880년부터 2300년까지 약 500년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야기가 순서대로 이어지면 그나마 이해가 될텐데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니 이게 문제.

▶ 공간

시간뿐 아니라 전 세계 6개 도시를 넘나든다. 그중에는 서울도 있다.

▶ 서사 구조

총 6개의 이야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5개의 이야기는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도 대체 이게 뭐냐”는 분노가 끓어오를 수도 있다. 조금만 참아라. 이게 다 막판에 우리 재미있으라고 풀어놓은 장치니.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다행히 완결되는데, 이후 앞에서 중단되었던 다섯 스토리의 뒷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국 1-2-3-4-5-6-5-4-3-2-1로 연결된다는 말이지. 이거 완전 뽀빠우스의 띠, 케쿨레가 꿈에서 봤다는 벤젠 고리 구조론 동네.

벤젠고리 구조론 같은 서사구조

1. 애덤 어윈의 태평양 일지

19세기 남태평양 뉴질랜드에서 고향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선량한 공중인 애덤 어윈의 이야기

2. 제멜헬에서 온 편지

1930년대 벨기에의 고성에서 펼쳐지는 방황하지만 천재적인 젊은 작곡가 로버트 프로비셔의 이야기

(절반쯤에서 뜯어져버린 어윈의 일지를 침대 밑에서 발견한다)

3. 반감기 - 첫 번째 루이자 레이 미스터리

1970년대 미국에서 핵발전소에 숨겨진 거대 음모를 파헤치는 여기자 루이자 레이의 모험담

(우연히 프로비셔의 편지를 손에 넣는다)

4. 티머시 캐번디시의 치 떨리는 시련

21세기 초 인생 최고의 대박과 함께 찾아온 위기 때문에 파란처를 찾아 도망치는 티머시 캐번디시의 시련을 다룬 이야기

(투고작으로 들어온 루이자의 이야기 부분을 읽게 된다)

5. 손마~451의 오리존

디스토피아적인 근미래 한국에서 최하층으로 살아가다 지성을 얻고 변모하는 복제인간 손마의 이야기

(캐번디시의 모험담을 영화로 본다)

6. 슬로사 나루터와 모든 일이 지나간 후

모든 문명이 파괴된 머나먼 미래 하와이에서 살아가는 양치기 자크리의 이야기 (손마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손마의 인 터뷰 영상이 담긴 기기를 보게 된다)

〈엠브렐러 아카데미〉 당첨자 발표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댓글들

당첨 요즘 현역 전역자들에게만 30% 할인을 해주는 게 너무 부럽소. 공익나부랭이는 평생 정기구독 할인을 못받을 게 뻔하니 나에게 감동을 주면 안될까 싶다. 안그러면 망부석 설화처럼 공익을 하다 돌처럼 굳어버릴 것이오. (공익나부랭이)
뽑은 이유 지난해에 에디터가 망부석 설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센스를 발휘했기 때문에

당첨 23세 고시생의 신분으로 MAXIM 입문해 28세가 된 대학생이 처음으로 학생노님에게 글을 남기오. MAXIM에 대한 애독열을 알아 주길 바라면서. (영문동28세대학생)
뽑은 이유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하던 내방가사스러운 문체가 참신한데다 자신이 느껴져서

당첨 수능이 14일 남았는데도 MAXIM을 보고 있다. 남고생도 MAXIM을 본다! (박고3)
뽑은 이유 "수능 보느라 수고했다!"

당첨 27세 취준생 남자오. 벌써 30군데 떨어졌소. 엠브렐러 아카데미에 지원하고 싶은데 기업 분석을 위해 보내주길 바라오. (27취준)
뽑은 이유 취준생이라는 자신의 현재 신분을 이용한 궁극의 섹... 아니 섹스를 발휘했기 때문에.

당첨 전역 인증하고 정기구독한 MAXIM 신봉자오. 당연히 나 같은 상남자에게 줘야 하오. (정태X)
뽑은 이유 에디터는 상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의 오빠 같잖아, 버틸까? 버틸까? ?



화끈한 연인 할인
이성끼리 관람시 30%
현장에서 커플링, 커플티,
사진으로 확인
(인터넷 예매와 현장구매 가능)

2012.11.10-2013.2.11 | PMC 대학로 자유극장

공연시간 | 화-금 8시 / 토-4시, 7시 / 일 2시, 5시 (일침) | 티켓가격 | 전석 35,000원 | 관람시간 | 90분
출연 | 예능, 손승민, 조영주, 이우진, 오대환, 우현욱, 최정화, 장지영, 강인영, 김해정, 최선희 | 작/각막/연출 | 서윤미
제작/문의 | PMC PMC PRODUCTION 02)736-8289 | 예매 | 인터파크, R티켓, YES24, 옥션

남의 오빠 같잖아 버틸까?





MAXIM ATTACK: 래남과 옥구슬

진정 돌+아이 래남과 옥구슬이 MAXIM을 습격했다.
"MAXIM 개XX들! 감히 슈퍼스타를 몰리봐?"

BY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FILM 이영환, 최성준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프리버드(www.freebud.co.kr)

MAXIM 촬영 소감이 어떤가.

정택 그닥 땀까지 않았는데, 스케줄 많아서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한번 와봤다.

MAXIM은 언제 처음 접했나?

정택 모르겠다.
오다길 헤어진 여자 친구가 MAXIM 화보를 찍었다고 해서 처음 알았다. 그녀 이름은 비밀.
정택 (갸속말로) 차어서 저러는 거다.

래남은 뭐고 옥구슬은 뭔가?

정택 우리가 미남도 훈남도 추남도 아니잖나. 그래서 그냥 래남이라고 불렀다. 딱 맞는 이름 아닌가?
앨리스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다고 해서 옥구슬이란다. '앨리스'는 외국 느낌 좀 내려고 지은 영어 이름이다.

처음 '정택과 래남들'로 활동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음악을 시작했나?

정택 자기네들끼리 멋있는 척하며 허세에 젖어 있는 가요계에 뛰어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되고 싶었다. 똑같은 헤어, 똑같은 키높이 농구화...

잠깐, 농구화라면 지금 빅뱅을 논하는 건가? 초크슬램의 대가와 대마 브레이커를?

정택 솔직히 빅뱅이 우릴 따라난 것도 있다. 꼬랑지 머리도 내가 먼저 했는데 한 다섯 달 후에 비슷하게

하고 나오더라. 리젠트(소 헛바닥으로 활은 스타일) 머리로 바꾸니까 또 따라하더라. 양심은 있어서 회색으로 염색했다군!

무대 의상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나?

정택 이 옷? 중고로 샀다. 구제 숭에서.
오다길 내 옷은 미국 구제 숭에서 구입한 구조대원 옷이다. 택시 모시는 아버지 기사 복에서 떼어다 붙인 택시 패치가 포인트다.

이런 음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던가?

정택 산입체 다니면서 번 돈 죄다 끌어박았다.
오다길 난 타투리스트 해서 번 돈을 끌어박았지.
정택 바닥이 드러날 때쯤 <슈스케>에 지원했다. 요즘 섭외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귀찮다. 11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있다. 훗.

<슈스케> 참가 1주일 전에 앨리스양을 섭외했다고 들었다. 저 꼴골을 보고 제안에 응한 것이 옳다.

정택 험박했다. 같이 안 해주면 맨날 술 먹고 전화하고 헛소문 널 거라고, 우리 콘셉트도 <슈스케> 참가 바로 전달 말해줬다.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정택과 오다길의 첫인상은 어땠나?

앨리스 평소에는 멀끔하게 하고 다니더라. 다행히 무대의상은 무대에서만 입더라...
정택 우리가 그날은 또 짝 빼입고 갔지.

자주들 UV와 비교하는데, 짜증나지 않나?

정택 솔직히 살짝 참고는 했다. 빨아 먹을 건 빨고 버릴 건 버리고. 하지만 그쪽이 자금력이 있어서 먼저 나온 것뿐이지 우리가 카피한 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노가다 뛰고 돈 벌 때 그들이 먼저 나온 것 뿐.
*UV 2010년 4월 데뷔, 정택과 래남들 2010년 9월 데뷔

가요계 라이벌을 꼽는다면? 형돈이와 대준이?

정택 거긴 약간 못생겨서 아니고...

정택 씨 부친이 CJ의 고위급 인사라는데, 사실인가?

정택 우리 아버지가 CJ 간부라면 저는 이 꼬라지를 하고 여기 앉아있지 않겠조. 지금.

당신이 <슈스케> 탈락하고 우는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다. 진정 4강을 기대한 건가?

정택 마지노선이 4강이었다. 흐름 타고 뽀록꾸 터지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봤다.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이다. 혹시 영상학과 졸업했나?

정택 음악이든 영상이든 전혀 배운 적 없다. 늘 자신 있게 말하는데 난 좀 천재다.

됐고, MAXIM 독자에게 한 마디 해달라.

정택 인터넷에 우리 얘기 좀 많이 해줘. 굉장히 인기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

캐남과 옥구슬 ATTACKS MAXIM



슈퍼스타데요. MAXIM에서 일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죠.

느닷없이 MAXIM에서 일을 하겠다며 전화를 건 세 젊은이.
"돌아오는 상반기 공채 때 지원하라"는 통보를 받아, 슈퍼스타를 못 알아본 MAXIM을 박살내겠다며 편집부 사무실에 들이닥치는데..



MAXIM! 심팔! 슈퍼스타를 몰라보고!



쌍 출출한데 이거나 먹어라!



자네가 아까 전화 받은 걸인가?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는 그였다.



오, 시팔. 존나 재밌는 거 보고 있었잖아!

니가 틀어놓고 우리가 봤다고 하지마.



근무태만한 것 봐라. 편집장 나오라 그래!



편집장님. 밑에서 미친 사람이 있어요...

편집장실을 찾아 해매던 정덕은 <슈스케> 재방을 보던 편집장을 발견하지만..



"괘... 괜히 놀러왔어..."

엠넷이 끼이끼이 눈을 흘려 마땅한 힘합계 저평가 우량주의 아이콘 캐남과 옥구슬.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난 시점은 그들의 첫 번째 타이틀곡 '괜히 놀러왔어' 공연이 시작된 직후였다. 가히 합합계의 '터네이셔스D'라고 할 만한 일이 꼭 찬 사운드와 퍼포먼스였다.



좋아 죽겠지 이주?



I'm sexy and I know it

너무 대놓고 훑어보는 MAXIM 여자원들이었다.



스캔하라고!

기사보다 최소 곱절은 더 웃긴 캐남과 옥구슬의 MAXIM 습격 영상은 QR 코드 스캔 후 감상하도록.

아이유의 계획



모든 건 예정대로.
BY 유승민 DESIGN 신숙희 IMAGE 연합뉴스

나는 아이유 팬이다. 팬레터 한 통 보내본 적 없고, 팬 카페 한 번 들어가본 적 없지만 돈 내고 아이유의 노래를 다운 받아듣고, TV에 아이유가 나오면 돌리던 채널을 멈추니 팬은 팬인 거다. 아이유의 스캔들에 배신감도, 분노도 느끼지 않는 미지근한 팬이다. 그런데 스캔들이 터지기 불과 8일 전에 방송된 <GO SHOW>에서 그녀가 "언젠가 한 번은 팬들을 실망시켜야 한다", "팬들의 뒤통수를 한 번 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번 스캔들과 아이유라는 인물에 대해 전에 없던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단정할 순 없지만 문제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이 아이유 본인이라는 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수로 올렸다가 지운 거라고 하기엔 8일 전에 뿌려둔 예고편과의 호응이 너무도 절묘하다. 만약 그때부터, 혹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체 왜 그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해 스캔들까지 터뜨려가며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걸까?

지난 겨울, 아이유가 본인의 소신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새삼 떠올랐다. 여느 연예인처럼 이름만 걸쳐 놓는 '무늬만 대학생'이 될 바엔 활동에 전념하고, 대학은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가겠다는 거다. 지나도 한참 지난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겉모습만 보면 아이유라는 소녀는 소속사의 철저한 플랜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예쁜 '인형'일 것만 같다. 하지만 이 어린 가수의 면면을 되짚어보면, 오히려 아이유는 소속사를 머쓱하게 만들 만큼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인생의 큰 그림을 직접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대범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에 가깝다. 소속사라는 곳은 스캔들이 터진 뒤 며칠 동안이나 허둥대다가 '병문안'이니 뭐니 하는 공색한 변명거리나 들고 나오는 걸 보니, 이번 스캔들이 아무리 계획된 것이라 가정해도 최소한 소속사의 계획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아이유 본인이 <GO SHOW>에서 암시한 대로 '팬들의 뒤통수를 치기로'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정말 그렇다면 이 아이, 보통 아무진 게 아니다. 남들 다 가는 데에 안 가고, 남들 다 두려워하는

일은 저지를 두둑한 배짱이 있다. 스스로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했을 때 조금은 알아봤어야 했다. 여러디여러 보이는 이 가녀린 체구의 소녀 안에 장동건이나 안성기급의 '프로'가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대체 아이유는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소녀 가수 아이유는 이미 '국민 여동생'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정점을 찍은 이상 국민 여동생으로서 거둘 수 있는 더 이상의 성공은 없으며, 이대로라면 밀으로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따지고 보면 아이유 이전에도 많은 국민 여동생이 있었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문근영이다. 한때 국민 여동생 문근영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국민 여동생의 상승세는 성인이 되면서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문근영이라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다.





배우 이시영이 표지를 장식했던 MAXIM 2009년 2월호 31페이지: '이달의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당시 갓 데뷔한 아이유가 소개되었다

나름 '어른 여자'로 거듭나기 위해 애는 썼지만 그간 굳어진 이미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미 너무도 가족 같고, 친동생처럼 각인된 그녀에게 우린 음심을 품는 것조차 꺼려진다. 스물이 넘는 여자 연예인에게 아무도 음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연예인의 생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배우 문근영은 이미지 변신에 실패하고 '늙은' 국민 여동생이 되고 말았다. 제일 잘나갈 때 먹었던 콘셉트로 쌓은 성인범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그녀를 가로막은 거다. 아이유는 자신에게 곧 닥칠 숙명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가 넘어야 할 벽 또한 정확히 자신이 국민 여동생으로 거둔 성공의 크기만큼 두텁고 허물기 어려운 것이란 걸 말이다. 현아처럼 미성년자일 때부터 방송 금지를 받쳐먹으며 이미 섹시 스타로 굳어져서 무난하게 서너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밑에선 진작부터 차기 국민 여동생으로 낙점된 손연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하지만 문근영이 겪었던 몰락을 반복할 생각은 추후도 없었나 보다. 아이유는 이제 어차피 더 높이 쌓아올릴 수도 없는 성이 '벽'이 되어 가로막기 전에 포파시키기로 결심했다.

스무 살이 된 해라는 시점에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성인이 된 해. 바꿔 말하면 성인이 되어야만 하는 해다. 이대로 내년이 되면 그녀는 제대 성인이 되지 못한 발육부진아가 되어버린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토크쇼에 나와 밑밥을 깔았고, 여러 차례 의미심장한 암시를 던졌다. 어찌된 잠옷을 미리 인증해둔 것도 전부 계산에 있었을지 모른다. 누리꾼들의 잉여력이라면 이 정도 단서는 충분히 찾아낼 거라 예견하고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누리꾼들은 그녀가 적당한 길목에 걸아둔 잠옷을 덩싹 물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성들이 격렬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망상의 동물들은 그녀가 은혁과 나눴을 사랑의 행위들을 떠올리며 흥분하고 있다. 그중 상

당수는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가식 덩어리라고 돌을 던지려 한다. 나쁘지 않다. 그녀를 동생으로만 여기다 아이유가 성인이 되면 새로운 여동생을 찾아 떠날을 삼촌들이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깨끗하게 지켜왔던 여동생이 사실은 이미 다 큰 '여자'였다는 사실에 멘붕에 빠져 있다. 아이유를 국민 여동생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격렬하게 인식하는 중이다. 성공이다.

다른 국민 여동생(주니엘이라고 했던가?)으로 갈아타겠다는 협박도 괜찮다. 어차피 여동생 놀이는 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안 된다. 약탈하기로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진 아이유 성격인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하려고 애쓰고 지켜봤는데, 오늘 시원하게 널 딸깍으로 쓰고 접을란다"라는 낯뜨거운 댓글도 있었다. 최소한 이 남자는 이날 아이유를 동생의 영역에서 고집어내어 성인 여자의 범주에 넣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격렬한 질투는 남자를 망상의 동물로 만든다. 이제 우린 아이유의 사생활이 술술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국민 여동생이 아닌 '남자들의 로망'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마릴린 먼로도 당대 최고의 남자들(심지어 대통령)과 술한 스캔들을 뿌리며 못 남성의 질투와 흥미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질투도 사랑도 결국은 갈망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렇다고 벌써 뭐가 다 된 건 아니다. 이제부터 아이유는 준비하게 많은 '진짜 여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쌓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가장 큰 난제를 해결했다. 문근영이 그토록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면서도 해내지 못한 걸 충격 요법 한 방으로 해냈으니 출발은 괜찮은 셈이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 아마 대학 안 가기로 결심하기보다 100배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다. 하지만 아이유는 과감히 팬들의 마음속에 리셋 버튼

을 눌렀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CD를 깨부순 팬들의 인증샷을 보며 가슴이 쓰렸겠지만 의외로 담담했는지 모른다. 국민 여동생으로서 냐던 저 CD들은 어차피 아이유가 깨부숴야 했던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그렇다 해도 방법이 너무 과격했다고 어중간한 충고를 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다. 하지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누구처럼 미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섹스 비디옌 유출된 것도 아니다. 국민 여동생이 이제 잘 커서 여자가 되었다는 적당하기 그지없는 절묘한 스캔들이다.

제대로 대항 떡밥을 물었다는 듯 냄비 뚜껑같이 떠들어대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있자니,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하루빨리 해명을 해야 한다고 칼끝까지 써가며 난리를 치지만 그들이 떠들어대고 은근히 바라는 것만큼 아이유는 곤경에 빠져 있지 않다. 아이유의 제2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에디터가 가정한 것처럼 정말 아이유가 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결단을 내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실수였을 뿐인지 그 누구도 알 방법은 없지만 확실한 건 아이유는 지금 자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녀의 팬층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글쓴이 같은 미지근한 팬들 말이다. 여동생 아이유에 대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 소수의 의붓 오빠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들이 아이유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지도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 로리콘들의 시한부 요정을 졸업하고 진짜 전 국민의 스타를 꿈꾸기 시작한 아이유, 7~8년쯤 후엔 한국의 마릴린 먼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바로 투표하기



2012 MISS MAXIM FINALIST

VOTE NOW!
www.maximkorea.net

START NOW!
2013 MISS MAXIM

12월 1일부터 MAXIM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선보다 치열하고 화끈한
2012 MISS MAXIM 결승 배틀 시작!

11월 21일부터 MAXIM 홈페이지에서 MISS MAXIM 우승자를 뽑는
마지막 투표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MISS MAXIM CONTEST를 확인하고,
엄상미(좌) 또는 대님 푸(우)에게 투표하라! 하나만 고르자니 너무 힘들다고?
이게 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야.

명랑판타지

PAMA
Production
Musical Theater

미라클

THE MUSICAL

since 2003, 3,300회 돌파!
30만 관객이 확인한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OPEN RUN 공연중 | 평일 8시 토요일 4시,7시 일요일 3시,6시 (월요일 쉼) | 일반 30,000원 | 대학로 미라클 씨어터 1관
제작 (주)PAMA프로덕션 | 예약 및 문의 02.742.7261/2 |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옥션티켓 1566-1369

24 HOURS TO LIVE



형제는 웃겼다.

양세형&양세찬



무대에서 죽고 싶지 않으나는 질문에 두 형제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에이, 안 돼! 그럼 관객들이 안 웃잖아!"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박수현, 박종원, 최동희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블랙쉐도우(www.blackshadow.pe.kr)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24시간 후 죽는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

형: 오늘 촬영 콘셉트처럼 총 맞아서 죽고 싶지는 않다. 차다 죽는 게 좋겠다.

무대에서 죽고 싶다고 말할 줄 알았다.

찬: 잔인하다. 무대에서 죽으면 관객들 안 웃는다. 그 분위기 어쩔 텐가. 다음 코너는 또 어떨고? 죽음의 고통을 한 번 느껴보고 싶긴 하다. 한 번뿐이니까. 그 느낌이 궁금하다.

형: 미친놈 아냐, 이거.

묘비명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고 싶은가?

찬: 빙승게 은어 중에 '시바이(상황 연출)'라는 게 있다. '죽기 전까지 시바이 치다 가다.' 이런 묘비명도 개그맨으로서 꽤 괜찮을 것 같다.

형: '내 묘비 앞에서는 슬퍼하지 마시오'는 어떤가? 내가 죽고 나서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은 부디 슬퍼하지 말고 웃었으면 한다. 묘비에 침도 뱉고 오줌도 갈기면서 깔깔거렸으면 좋겠다.

나도 가서 오줌을 갈겨주겠다. 연애라도 많이 해보고 죽으면 덜 억울할 텐데, 어떤가?

찬: 둘 다 연애에 별 관심이 없다.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사랑을 모르는 형제라고...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가?

형: 자기 일 있는 여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자. 내가 뭐 흘리고 가면 엄마처럼 닦아주는 여자.

외모적인 이상형을 말해달라.

형: 당신 같은 스타일.

010-5050...

찬: 뭐지? 왜 나의 형수님이 되려고 하는 건가?

상관미라. 개그맨을 안 했다면 둘 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찬: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원을 하고 있었을 거다. 피쳐폰을 LTE폰이라고 거짓말하고.(웃음)

형: 내 사주가 산에서 도 닦아야 할 팔자라고 하더라. 유쾌한 스님이 되지 않았을까? 암머리만 길게 기른 채 목탁 치면서 비트박스 하는 스님.

형제끼리만 알고 있는 서로의 비밀이 있다면 이 참에 폭로해라.

찬: 우린 그런 거 없다.

형: 애는 요즘 탈모가 시작되고 있다.

찬: 심으면 된다. 심을 거다.

괜찮다. 대머리들이 정력가라더라. 연년생 남자 형제니만큼 많이 싸우면서 컸을 것 같다.

찬: 주먹다짐을 정말 많이 했다. 형 겁주겠다고 칼 들고 찌른다고 헐박하고... 별짓을 다했다.

형: 난 태연한 척 '짤레, 짤레' 하면서 오줌을 썼다.

더럽다. 지금 맞짱 뜨면 둘 중 누가 이길까?

형: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이길 자신 있다. 한때 권투 좀 했다. 한 이틀?

찬: 동생은 형을 절대 이길 수 없다더라. 내가 질 것 같다. 대신 자고 있을 때 발로 그냥 툭...

<코미디빅리그>에서 양세형이 있는 '소모임'과 양세찬이 있는 '개불' 중 어느 팀이 더 잘 나가나?

형: '개불'이 앞서고 있지만 '소모임'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엔 장도연, 박나래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 처음엔 개그도 안 풀리고 성격도 안 맞아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싸우다 보니 지금은 정들었다.

어차피 죽는 마당에 평소 <코미디빅리그> 피디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해라.

형: 초반에 감독님을 못 믿어서 죄송했다고 할 씬드리고 싶다. 아이템을 검사받을 때, 몇 번 볼을 꼬집고 심었다는 것도.

찬: 형이랑 반대로, 믿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대하고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너 잘해, 옷겨라며 힘을 많이 주셨다."

형: 이 새끼 자꾸 지 지랑만 하네.

찬: 감독님처럼 별로 안 친하다. 나보고 어쩌라고!

24시간 후에 죽는데, 공연이 잡혔다. 하겠는가?

형: 누가 해 안 한다. 돈도 필요 없는 거고.

찬: 형은 돈 때문에 개그해? 난 하겠다. 한다.

형: 이 새끼가 야까부터 자꾸 멧있는 척하네.

두 형제에게 MAXIM은 어떤 의미인가?

형: 남자로서와 닿는 공감대가 많아서 지주 사본다. 요새는 여성분도 많이 보시던데, 남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남자를 공략할 때 써먹으면 유용할 거다.

찬: MAXIM은 "나도 아직까진 본능이 살아 있는 늑대 같은 남자구나"라는 걸 일깨워주는 잡지다. 나머지는 형이 다 말했다. 맞는 말만 했네. 역시 내 형이다. 

이렇게
죽고 싶어?



GAME

BEXCO

BEXCO



게임의 메카! 부산 지스타 체험기



국내 최대의 게임 박람회 G-STAR 2012가 시작된 지난 11월 8일, 대한민국 게임의 현 주소를 가까이에서 보려는 사람들로 부산 벅스코가 들썩였다. 어여쁜 처지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수컷들의 심장도 함께 들썩였다.

BY 조웅재 PHOTOGRAPH 이영한, 최성준 DESIGN 서윤정



노란 게! 노란 게!



캔디팡

벅스코에 도착하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야외 부스가 있었으니, 이제는 아류를 벗어나 당당히 일류 캐주얼 게임이 된 <캔디팡>이었다. 여자가 많을 것 같아서 가 봤더니 이게 웬 일. 여자가 없을 것 같은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을 뿐. 스코어도 여자가 없을 것 같은 경이로운 점수 96만 점이 떠 있었다.



마법천자문

교육용 애니메이션이자 게임인 <마법 천자문>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끼고 버튼을 두드리고 있었다. “내가 죽었다!”라며 해맑게 웃는 아이와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 뭔가 오묘했다.



공부해 이 새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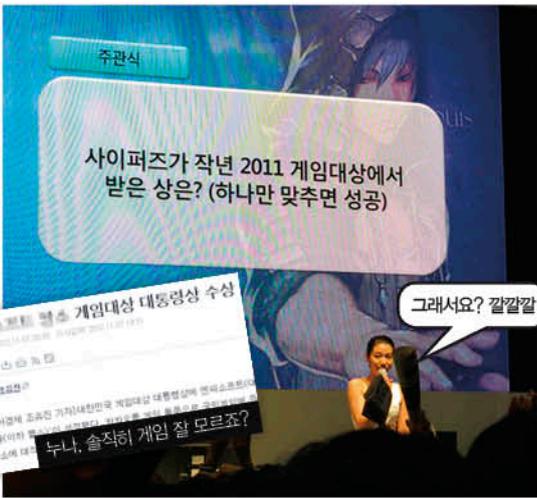
↑ ↓
사이퍼즈

액션과 공성전이 결합된 국산 AOS 대작 게임, <사이퍼즈>의 부스도 만만찮았다. 에디터가 지나갈 즈음에는 어여쁜 누님이 사은품 행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사이퍼즈가 작년 2011 게임대상에서 받은 상은?"이라고 묻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대통령상!"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누님은 배를 잡고 웃으며 "게임에 대통령상이 있 다니요!"라며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다.



↑
마비노기2 아레나

양팔의 움직임에 따라 가슴의 출렁임이 세세하게 다르게 작용하는 일명 '가슴 모으기 프로젝트'로 입소문을 탄 <마비노기2 아레나>. 에디터도 얼굴을 붉히며 마우스를 흔들어보려 했으나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했다. 분노에 찬 에디터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피파 온라인3>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10명, 5대5 동시접속 멀티플레이어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공격수 10명의 뜨거운 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지겠군.



↑
피파 온라인3

<피파 온라인3> 부스에는 한판해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간 <피파 온라인2>에 일가견이 있다며 항상 자신감 충만해 있던 이영환 에디터를 부추겼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

←
에이팀

어느 남자가 저 일러스트를 보고 지나치겠냐만, 영상을 본 에디터는 할 말을 잃었다. 나무토막 관절 액션... 저 나무토막을 보고 잠시나마 섹시하다고 느낀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후속작을 발로 만들어도 애내는 안 망할 것 같더라.



블리자드

〈WOW3 판다리아의 안개〉와 〈스타2: 군단의 심장〉 등, 연이은 신작 발매로 화제가 된 블리자드의 부스 또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명의 캐스터가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으나 재미는 없었다. 측면에 있던 블리자드 부스의 외국인 스태프도 심심한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월드 오브 워플레인

〈월드 오브 탱크〉의 제작사, 워게이밍의 화제작 〈월드 오브 플레인〉 부스에서는 귀염상의 누님이 단체 가위바위보를 통한 사은품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실마 졌다고 손 내리는 병신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기를 잠시, 가위를 낸 사람들이 우수수 손을 내렸다! 이 얼마나 때문지 않고 순수한가. 에디터는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자신을 자책하고 말았다.



게임빌

모바일 게임계의 최고봉 게임빌 부스에서는 설문을 작성한 사람에게 한해 과자(!!)를 나눠주고 있었다. 에디터가 천하장사로 3개 달라고 하자 그건 안 된단다. 내 참, 사 먹고 말지!



랩스봇캐치

이 부스는 인형 뽑기의 2세대형 대안을 소개하고 있었다. 로봇을 조종해 캡슐을 집어던져 상품을 뽑는 방식이지만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아 업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았다. 인공지능의 피와 땀이 서린 로봇공학 기술이 여기에 쓰이고 있구나. 아아...!



닌텐도

닌텐도 부스는 누님들의 미모가 뛰어났다. 에디터는 '버섯을 먹으면 커지는 마리오의 섹슈얼한 메커니즘'에 대해 누나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싶었으나 꼭 참고 눈팅만 했다.



몽크 더 월드 브레이커?

그때였다. 닌텐도 부스 근처를 지나가던 에디터는 군중 사이에서 심한 위화감을 유발하는 그를 만나고 말았던 것이다. 파.계.승.



원래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지만



너희, 즐거워 보이지 않구나.



내가 미안해...



체험 게임

'조작 게임'이 아닌 '체험 게임'을 따로 모아 둔 부스가 있었다. 3D 안경을 착용하고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즐기는 게임과 펀치 머신 그리고 인형 뽑기까지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



위메이드

스마트폰 게임의 강호 위메이드의 부스는 천장에 게임별 사인을 달아 카테고리별로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놓았다.

그중에서도 미녀들이 대거 등장하는 <터치 파이터>가 눈길을 끌었는데, 모바일 게임 주제에 섬세한 버스트 모핑을 구현했다! 언제 출시되나?



중고딩 게이머들의 패기는 역시 펀치 머신에서 드러나지!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인형 뽑기가 있었다. 취객 화물야 대상 호인 인형 뽑기를 이렇게 고팔로? 이것도 업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GIRL STARS



이예빈
애니팡



이은혜
샌드스크



김하울
던전 스트라이커

BEST
귀요미 상

뺨을 잃을 정도로 귀여웠다. 갠소 직할 사진 다량 확보!



이혜숙
블레스



이가나
위메이드

BEST
부스결 상

한때 레이스 모델 이가나의 팬이었던 에디터는 눈이 부셔 시력을 잃을 지경이었다.



BEST
친분 상

지난달에 제 머리 감겨줬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최별하
피파 온라인2



꼭 안기고 싶은 풍만한 그녀, 류지혜까지 등장!



김현정
마비노기2 아레나



BEST
인해전술 상

6명의 미녀 풀 세트, 가히 드림팀이라 할 수 있었다.

I PLAYED FOR YOU!

오해하지 마라. 기사를 위해 잠깐 해본 거다.

가서
뭔 짓 하다
왔냐고?



학생 출품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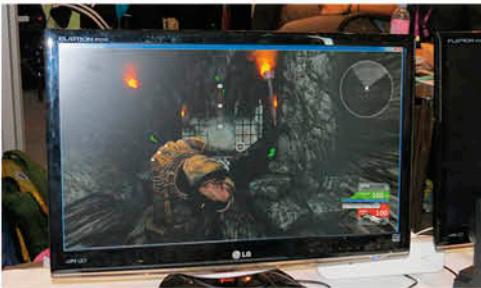
러스트블러드

사방에서 나오는 적을 죽이는 게임인데 공격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물어보기 귀찮아서 마우스를 내려놨더니 주인공이 적을 알아서 죽이고 있었다.



피드백

총을 쏘려고 마우스를 누르자 캐릭터가 총을 쏘며 회전한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누르자 이번엔 선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며 총을 쏜다. 조용히 마우스를 내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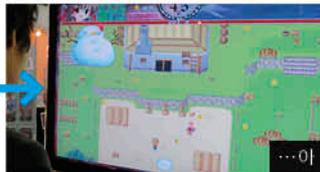
더 헌터즈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해서 그런지 그래픽이 후덜덜하다. 스테이지 끝에 있는 각종 함정을 피해가는 게임인데 난이도가... <슈퍼마리오>를 1인칭 시점에서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나?



코인러시

귀신같이 미소녀를 찾아낸 에디터. 오오!! 미연시인가? 두근두근...



총평

예쁜 모델과 상품 등 볼거리가 가득했던 전시장은 무척 즐거웠으나, 중국식 뷔페에 초대받아 하루 종일 탕수육만 먹고 온 느낌이 들었다.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만 가득한 전시관을 바라보며 코흘리개 시절 3만 원 달랑 들고 패키지 게임 사러 전시장에 가던 그때가 문득 그리워졌다. 아아. 그때 왜 난 복제 CD를 이용했을까!

에디터의 경공 체험기!!



행사장 밖으로 나온 에디터 일행은 <열혈강호> 부스를 발견했다! 경공 이벤트라는 걸 진행 중이었는데..



그냥 멀리뛰기 이벤트였다. 게다가 뛰기 전에 "열혈강호2 파이팅!"이라고 외쳐야 한다. 아 쪽팔려..



왕년에 멀리뛰기 좀 했다는 하남시 방아깨비 이영환 에디터와 부산 캥거루 최성준 인턴 에디터는 몸소 이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투지를 불살랐다.



"MAXIM에서 왔습니다!"를 크게 외친 이영환 에디터는, 마치 모나미 불펜의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가볍게 1위를 탈환했다. 주변 사람이 모두 탄성을 질러댔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1위를 빼앗겨버린 그는 외로이 쿠폰과 비닐 가방만 받은 채 등을 돌렸다. 뒤에서 사회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NEXON에서 오신 분, 안타깝습니다!"

♡ 미소녀를 추천해 드립니다

당신의 취향을 존중한 미소녀 찾기 프로젝트!

BY 조용재 DESIGN 서운정

NORMAL

정상 취향인 당신의
이상형은 이곳에서!



연예인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당신이라면

모리카와 유카(森川 由綺) / WHITE ALBUM / 제작사: LEAF

있을 때 잘하라는 불변의 메시지

막 연예계에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아이돌. 스토리 상 주인공의 여자친구로 이미 설정되어 따로 공략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달려드는 늑대들(매니저 개러기아)과 작중에 포진하고 있는 '미소녀들'이 당신과 그녀를 갈라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녀가 아프면 반드시 병문안 루트를 타자. 옷통은 벗지 마(벗겨).



90년대 일본을 달군 초스려운 아이돌 패션



병문안 왔더니 잠옷이네.jpg



헌혈 아줌마만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당신

알케이드 브룬스터드(Arcueid Brunestud) / 月姫(월희) / 제작사: TYPE MOON

이런 흡혈귀라면 목에 이빨 꽂고 살지

불사신 기믹이 있어 어지간하면 안 죽는다. 식칼 들고 다니는 중2병 주인공에게 살해당하고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대인배 중 대인배 여인. 옷으로 가려도 숨길 수 없는 몸매 또한 매력 포인트. 하지만 성룡이 떠오르는 흰 플라티에 보라색 월남치마라는 경악스러운 패션 센스는 욕 먹어도 싸다.



스토리 발판을 방해하는 징그러게 큰 눈은... 그냥 못 본 걸로 하자.



게임 원화보다 애니메이션 판이 낫지만 이쪽은 로리본.



신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픈 당신

츠키미야 아유(月宮 あゆ) / KANON / 제작사: KEY

눈이 얼굴 반만 한 미소녀와의 애절한 로맨스

매일 훑친 봉어빵을 입에 달고 사는 도둑고양이 같은 여자. 어린 시절, 주인공과 놀다가 나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후부터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는 그녀의 현재 모습은 사실 '영혼'이었다. 그녀와 사귀고 있던 주인공은 잊고 있었던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기적처럼 그녀를 일으킨다는, 억지 가득한 감동 스토리. 가만있자, 그리고 보니 주인공은 귀찮을 당한 거네?

이 계열에서 워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히로인



얼핏 봐도 클래머인데, 제작사 이 나쁜 놈들이!

청순한 외모 아래 숨겨진 꿀벅지가 좋은 당신

사카가미 토모요(坂上 智代)

CLANNAD~TOMOYO AFTER / 제작사: KEY

제작사가 우리에게 이중인격이라는 똥을 줬어

전작 <클라나드>에 등장해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한 그녀. 그렇게 발차기를 해대도, 심지어 이단 옆차기를 해대도 보이지 않는 팬티가 못 남성을 분노케 만들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었던 제작사는 아예 그녀를 주인공으로 외전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원작엔 없던 H신까지 제공하다니. 하지만 이를 플레이한 마니아들은 특유의 거친 소녀+격투 속성을 잃고 현모양처가 된 그녀를 보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이런 마조히스트 새끼들.



외전은 외전으로 보자.



이런 장면은 원작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에로게 용어 사전

'에로게'란 에로 게임(ERO-GAME)에서 비롯된 일본식 영어로, H신('H'는 '야한 짓'이라는 뜻의 일본 은어)이 포함되어 있는 미연시를 의미한다. 즉 미소녀들과 '질펀하게' 놀아나는 게임이라는 얘기다.

정상계열

순애물

'순애'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에로게다. 그래서 순수하게 게임 내의 H신을 제거한 버전도 판매한다. 그런데 그건 에로게가 아니잖아...

EX) TO HEART, 그것은 훔날리는 벚꽃처럼, 피아캐롯

나키게

'울음'이라는 뜻의 나키(泣き)와 게임의 합성어로,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드는 게임을 의미한다. 원화보다는 한 편의 멜로 영화 같은 탄탄한 스토리가 주를 이룬다.

EX) 화이트 앨범, KANON, AIR

쾌락계열

누키게

'뽑아냄'이라는 뜻의 누키(抜き)와 게임의 합성어. 다른 말로 '단백질 도둑'이라고도 한다. 이쯤 되면 뭘 뽑아내는지 짐작했으리라. 스토리보다는 과격하고 격렬한 H신이 추가 되는 에로게를 통칭한다. 원화도 대체로 고풍하며, H신의 양 또한 엄청나다.

EX) 그녀x그녀x그녀, 보잉 시리즈

인체개조/축수물/수간물/ TRANS-SEXUAL 등등...

단어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가. 여기까지 설명하게 되면 더 이상 인간과의 SEX에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흔히 말하는 변태의 영역을 넘어서는 주제가 경악스럽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자.

가슴큰 환절 미소녀가 이상형이라면

미야우치 레미(Lemmy Christopher Helen Miyauchi)

TO HEART / 제작사: LEAF

92/59/86의 압도적인 양키 간지

역시 양키 버프는 쪽바리들도 무시 못한다. 일본 교복을 입고 일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일본어 잘 못해"라며 브로닌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다. 금발이라 머리에 든 게 없어 보이는 서브캐 같지만, 알고 보면 어린 시절 주인공의 첫사랑이라는 되도 않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아련한 회상, 연이은 파워 사시! 그리고 깔끔한 귀국까지, YEAH~! 이제 다음 타깃으로 가볼까.



역시 양키 환절의 비올이란!

주인공의 매너손 직렬

이 쪽 취향이 아니야?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EXTRA SPECIAL
정상적인 여자가 성에 안 차는
당신은 이 곳에서!



타이틀 화면인데 밥을 먹고 있어!?



【涼々花】
「や、やっぱり、恥ずかしい……!」



【優希】
「り、涼々花ッ!」

화면에 빈 공간이 없어...

**밥 잘 먹는 귀여운
여자가 이상형인 당신**

코미네사키 나나카(凛々花)
デアプラス(테부플러스) / 제작사: VALKYRIA

육덕의 한계를 넘어서

“소수 취향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미연시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제작사가 내놓은 최대의 과작. 떡(진짜 떡 같다)을 치다가 압사당하는 후덜덜한 배드 엔딩도 있다.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설(인지 저주인지 모름)의 나무 아래서 고백을 받은 주인공은 단번에 승낙을 해버리고... 보다 보니 귀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주인공과 나뿐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의 취향이 전염되고 말았다.



알려진단심 청순가련녀가 추함인 당신

카츠라 코토노하(桂 言葉)
SCHOOL DAYS / 제작사: OVERFLOW

멘탈 붕괴의 끝을 보여주다

고기 방망이 함부로 놀린 주인공과 미소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결말로 유명한 <스쿨데이즈>. 그녀는 자기 남자친구의 배패기를 난도질해 죽인 생년을 쫓아가 목을 그어버리고, 죽은 남자친구의 시체에서 목을 잘라내 스포츠 백에 넣어 소중히 간직한다. 살인+사체 훼손 및 불법 유기죄가 성립되겠지. 근데 이렇게 찌는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목 말고 다른 걸 잘랐어야지.



가슴이, 가슴이 머리만 해.



이년이 죽인 건 아니지만...



딸년이 엄마를 딸이 참 곱게 피었네요.



**꽃보다 아름다운 생기발랄한 여자가
이상형인 당신**

아우라우네(アルラウネ) 魔物娘との性活アルラウネの場合
(마물소녀와의 성생활: 아우라우네 편)
제작사: Vanadis

마스터 오브 식물인간

제작사가 약을 제대로 빨고 만든 <마물소녀> 시리즈 중 한 편. 죽은 여자친구의 무덤가에 피어난 식물년이 언제 봤다고 갑자기 주인공더러 ‘아빠’란다. 그리고 보니 죽은 여친을 닮았네. 정상적인 족보가 없는 이 바닥에서 진정한 식물 ‘딸’로 거듭나기 위한 아우라우네와 아버지인 주인공의 아름다운 ‘식물딸’ 이야기. 내 꽃가루를 받아라! 꽃받침으로 가버렸!





그런 옷 입고 부끄러운 듯 핑크빛 라이트를 켜 봤자...



밀치자 마 지엔아. 아래에 이상한 거 나오잖아.

냉정하고 기계적인 하녀 타입에 끌리는 당신

《42》

PRINCESS X / 제작사: Poison@Barry

분명 기계 속에는 미소녀가 있을 거 라고?

역대 최강의 이종(異種) 여주인공을 배출해 낸 포이즌베리社의 《프린세스 X》. 그중에서도 가히 경악할 만한 히로인이 탄생했으니, '42'라는 이름의 거대 오나홀(남성 자위 기구)이다. 하명만 받잡는 메이드 로봇이라는 설정 때문에 대사는 "아블! 미스텔!"이라는 정체불명의 외침뿐이지만 베드신도 있다. 기계를 들어올리며 주인공이라는 새끼가 하는 말이 가관이다. "여기... 만져도 돼?"



《42》(CV.草野花恋)
わりと感情豊かで、人の言葉も理解しているが、機械語しか話すことが出来ない。今作一番の良購入で、心安らく空間を提供している。ちなみにカメラアイの表情色は

通信	喜び	怒り	悲しみ	楽しい

공략하려면 감정상태에 따른 램프의 컬러 변화 정도는 외워 두자.



이쪽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숙맥이라 여자 앞에만 서면 얼굴 붉히는 당신

히에다 후미오(日枝田 史緒)

女装山脈!(여장산맥) / 제작사: 脳内彼女(뇌내그녀)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집에 못 가

오래전, 그녀의 마을에는 역병이 돌아 수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역병마를 피하기 위해 남자들은 강제로 여장을 하며 살았고, 무녀 역할 역시 남자가 맡게 되었다. 그녀는 조난을 당해 우연히 이 마을에 온 주인공에게 반해 "나랑 애 셋 낳으면 집에 돌아가게 해줄게"라며 고백 아닌 협박을 한다. 뭘 소린가 싶겠지만, 실은 토착신이 이 마을 남자에게 임신 능력을 주었다고, 아아, 그는 좋은 이성애자였습니다.



뭐가 보이는 건 착시일꺼.



내 눈에만 이쁘면 괜찮은 로리 취향의 당신

샤야(沙耶)

沙耶の唄(샤야의 노래) / 제작사: 니트로 플러스

콩깍지 쓰인 정신병자의 괴물 여친

사고로 뇌가 맛이 가서 온 세상이 괴물로 보이는 주인공에게 유일하게 사람으로 보이는 소녀. 하지만 실체는 고깃덩어리 같은 외계 괴물이다.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장애인을 꼬드겨 살인과 식인을 일삼는 요망한 괴물녀이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 분명 외계 생명체라 3,000년을 살았다는(외계 나이로 20세 정도라 하겠지) 억지 설정이 어디엔가 숨어 있을 거다. 아첨법은 피해 가야지.



엄마 재 똥머경.



원래 모습. 이런 괴물과 퐁가퐁가를 한다고?

STUFF

GEAR
OF THE
MONTH

AUDIOQUEST DRAGONFLY USB DAC



당신의 PC를 고급 오디오 부럽지 않게 만들어줄 잡자리 매직, 연말연시를 좋은 음악과 함께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달의 기어로 선정했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사운드만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사운드카드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싸구려 온보드(메인보드 내장) 사운드카드가 대체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음원 시장이 전체 음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PC의 목젓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 카드가 거세 된 셈이다.

디지털 음원을 듣기 좋게 재생하기 위한 첫 번째는 디지털 신호를 얼마나 원음에 가깝게 아날로그로 재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기능을 하는 것을 'DAC'이라고 한다. 온보드 사운드 카드의 DAC 성능? 왜 공짜로 달려있는지 보면 모르나?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간단히 말하면 매우 작은 크기의 외장형 DAC이라고 할 수 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최고의 사운드 엔지니어 고든 랜킨이 디자인한 드래곤플라이는 섬세한 사운드 해상력, 억제된 외부 노이즈, 150mW의 강력한 헤드폰 출력 등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덩치 큰 DAC들을 머쓱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잡자리)라는 이름처럼 이 컴퓨터, 저 노트북, 저~기 태블릿 PC 등을 가뿐히 옮겨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신뢰성 높은 사운드를 들려준다. 그냥 USB에 연결하고 음악을 재생하면 명료한 해상도의 보컬과 풍부해진 저음의 양감으로 음악에 촉촉한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이제 좋은 사운드는 사운드 덕후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가격 299,000원

문의 로이코 (02-335-0006, www.royco.co.kr)

내가 이런 소리를 내다니!

JUST PLUG IN!

Streamlength™ 프로토콜을 사용한 비동기식 class1 USB 방식을 채용. 복잡한 설치 없이 USB 단자에 꽂고 3.5파이 단자에 스피커나 헤드폰을 꽂기만 하면 된다! 윈도우 95 시절 캐치 플래그였던 '그냥 꽂기만 해!'가 부활하는 순간!

화룡점정은 좋은 스피커

우리 사무실처럼 모니터 뒷면 내장 스피커(이건 폭스바겐 골프가 시속 200km/h로 달리다가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내는 소리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소리를 낸다)를 쓴다면 아무리 좋은 DAC도 소용없다. 쓰는 김에 스피커에도 돈 좀 더 써.

음질에 따라 변신하는 잡자리!

24bit ESS Sabre 컨버전 칩을 내장하여 96kHz의 고품질 음원은 더욱 듣기 좋게 재생할 수 있다. 24bit/96kHz 음원은 스튜디오에서 막 녹음과 마스터링을 끝마친 바로 그 상태, CD나 MP3로 압축하기 전의 원본 그 자체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음원 구매 사이트에서 이런 고품질 파일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 드래곤플라이는 현재 재생중인 파일의 음질을 온몸으로 보여주는데 녹색잡자리는 44.1kHz, 청색은 48kHz, 황색은 88.2kHz, 진홍색은 96kHz를 의미한다.

그거 왜 샀어? #3

지름 품목: WACOM BAMBOO STYLUS POCKET

이달에 MAXIM 에디터가 지른 물건이 물건(!)이더라.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요 정도는 있어야
에디터지!



도대체 이 펜은 왜 산 건가?

갤럭시 노트에는 S 펜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화보 시안이나 전체 레이아웃 같은 걸 짜곤 했다. 얼마 전 LG 옵티머스 LTE 2로 휴대폰을 바꿨는데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답답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복장이 터져 내 몸에 못 살 것 같아 질렸다.

왜 하필 뱀부 스타일러스 포켓을 고른 건가?

필기감 때문이다. 와콤의 뱀부 브랜드가 터치감이 좋은 태블릿으로 유명하지 않나. 그 기술력을 터치 펜에도 적용했다면 다른 제품에 비해 필기감이 훨씬 뛰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와콤에서 모바일 기기 전용 제품인 스타일러스 포켓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방님 기다리는 새색시처럼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제품이 나오자마자 득템했다.

어디서 얼마 주고 구입했나?

와콤 터치 펜 공식 판매처인 엔픽스몰(www.npix.co.kr)에서 43,900원 주고 샀다. 터치 펜치고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매일 손에 쥐고 쓰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낫지 않나.

필기감은 기대만큼 훌륭하던가?

지금까지 몇 가지 터치 펜을 써봤는데 단연 이 제품이 최고였다. 펜 끝에 달려 있는 팁은 지름 6mm 정도인데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한 탄성이라 필기할 때 걸들지 않는다. 다른 터치 펜은 누르는 압력이 달라지면 선이 똑똑 끊어지는데, 이 펜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덕분에 나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다.

당신, 도대체 뭘 그리길래 유난인가?

잘 알지 않나. 에디터가 글만 쓰나? 기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주얼이 에디터의 책임이다. 밥 아저씨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고적일 때가 많다. 특히 화보 촬영을 위해 시안을 구상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을 그때그때 남겨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많다. 디자인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여기는 사이 간격 1.5cm~2cm 정도로 사진 4장을 병렬 배치하고 그 밑에는 가로로 긴 박스를 넣을게요"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하나? 쓱쓱 그려서 보여주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쉽다.

세상 참 좋아졌다. 신문에 먹으로 시안 그리던 시절도 있었다. 업무 말고는 터치 펜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 지난번 나에게 소셜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에서 5만 점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 있지 않나. 이제 그 답을 알려주겠다. 게임도 스타일러스 포켓을 이용하면 된다. 아무래도 사람 손가락보다는 펜이 훨씬 정교하다. 하늘에서 불구덩이랑 용들이 마구 떨어져도 요리조리 피하기가 더 쉽다는 말씀!

도구를 쓰다니... 등수가 꽤 높는데 다 뺏기었으면? 디자인도 맘에 드나?

알루미늄 소재로 은은한 광택이 도는 보디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사실은 못 마신다) 이 펜을 들고 있으면 어쩐지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펜의 고무 손잡이 위아래에 달린 링도 취향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갈아 끼울 수 있다. 실버, 블루, 레드 세 가지 컬러의 링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요즘은 레드 링을 사용하고 있다.

해바라기 모양의 오돌토돌한 링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응? 그건 왜?

아무것도 아니다. 그나저나 이 펜은 좀 짜리몽땅해 보이는데?

이게 평소엔 이렇지만 쓸 때는 여의뽕처럼 길어진다. 사중에 나와있는 다른 모바일용 터치 펜은 길이가 너무 극단적이다. 휴대하기 편하게 짧거나 일반 펜처럼 길거나. 하지만 이 제품은 검지 손가락 사이즈에서, 잡아당기면 약 3cm 정도 길이가 늘어난다. 휴대폰에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다가 사용할 때만 잡아당겨서 쓰면 일반 펜을 쥔 것처럼 편하다. 하나 더 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잘 흘리고 다니는 편인데, 이 제품은 펜을 헤드폰 잭에 꽂아둘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미 잃어버렸을 게 틀림없다.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충분히 5점 줄 만 하다. 만점!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휴대폰 터치 펜이 필요한데 아무거나 쓰고 싶지 않은 사람, 모바일 기기로 그림을 그릴 일이 많거나 그걸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

구매자카드

구매자: 에디터 손안나
구매 가격: 43,900원
구매 동기: 휴대폰으로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터치 펜이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
부러움 지수: 🍌🍌🍌🍌🍌

Bamboo Paper

뱀부 스타일러스 포켓 전용 APP

스타일러스 포켓을 득템하고 신이 나서 바로 다운로드했다. 와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야말로 스타일러스 포켓에 최적화됐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하리만치 직관적이라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하기 좋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연동돼 결과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것도 장점. 하지만 감성 터지는 새벽에는 주의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뉴욕 헤럴드 트리본!' 따위의 낙서를 네 멋대로 SNS에 올렸다가 그 다음날 폭풍처럼 물려오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iOS, 안드로이드 버전 두가지로 제공되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Bamboo Paper 앱 페이지(bamboopaper.wacom.com/download)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Spogliami?

PLUS
Tend

MAXIM KOR

왜자녀 수안나

MAXIM

BAMBOO

under wear

Grey

에디터가
그린
가린 그림





지금 '핏빛수건' 들어간다.
버디버디가 피로 물드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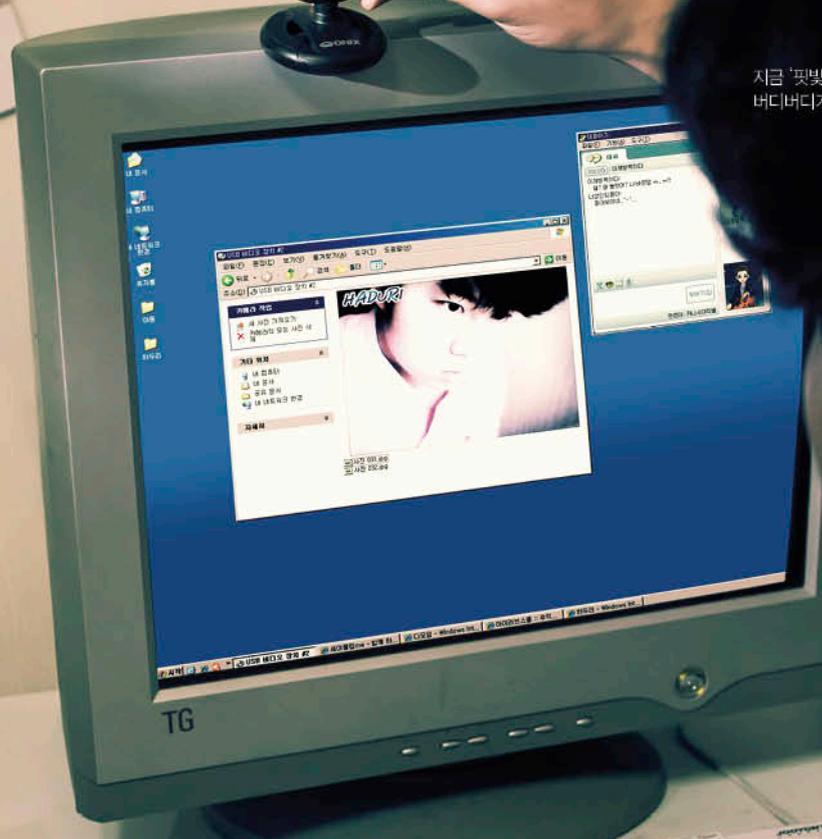
렌즈 안의 또 다른 나: 화상캠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어도
윗도리는 빼입고 찍어야 간지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속희

핫한 BJ의
후끈한 방송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

현실을 가상과 구분하지 못하는 가상 채팅 중독자들이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목사 아버지를 둔 한 여자 대학생은 이 사이트에서 컨설턴트 회사 직원과 만나 '화상 섹스'를 나누며 정이 들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평소 성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사이트에서 생긴 처음 오르가슴을 느꼈다는 30대 주부도 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다가 화상 채팅을 통해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 속에서 음란한 행위를 나누는 10대들의 사례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화상 채팅을 통한 음란 행위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2000년 <경향신문> 기사 중 발췌

MAXIM SAYS: 아프리카 TV를 예언했다. 기자가 노스트라다무스네.

**오늘 밤 TV 뭘 보지?
일주일 내내 볼거리가 풍성!**



MBC 월화 드라마 <왕초>, 밤 10시 방영
차인표, 송윤아, 김남주, 윤태영 출연
헌병 장교를 폭행한 사건으로 춘삼(차인표)은 징역에 강제로 끌려가 연지(송윤아)와 이별하게 되는데...



SBS 수목 드라마 <청춘의 빛>, 밤 10시 방영
심은하, 이종원, 유호정, 전광렬 출연
딸 헤림의 죽음이 동우(이종원) 때문이라고 생각한 윤희(심은하)는 복수할 것을 통보하는데...



KBS2TV 주말 드라마 <종이학>, 밤 8시 방영
류시원, 명세빈, 박용우, 이상인 출연
세탁소 일을 하는 필승(박용우)은 카바레 댄서 연희(송윤아)의 포임에 넘어가 거액을 바치고 춤을 배우는데...

얼짱,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화상 캠이 등장했다. 남자의 전유물이던 PC방에 여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30만 화소부터 200만 화소까지, PC방마다 캠의 종류도 다양했지만 사실 화소보다는 PC방 조명이 좋아야 사진이 잘 나왔다. '뽕샷'이라는 말이 채 등장하기 전, '하두리'라는 화상

캠 프로그램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했다. 그렇게 하두리가 다모임, 버디버디, 세이클럽을 통해 수많은 커플을 이어주었다. 그때 에디터도 세이클럽에서 얼짱 캠퍼를 만나 3일 사귀고선 얼굴도 못 보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존나 병신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萬物商會

만물상회

이번주 투멤너



박애쁜
(여, 1989년생, 서울)

커뷰이 되고 싶어요

MAXIM이 알려주는 캠 얼짱 포즈 6종 세트 당신도 투멤남·녀가 될 수 있다!



경례형
눈썹 쪽에 손을 일자로 붙이고 입술을 내민다. 경례는 반드시 왼쪽 손으로 할 것.



눈물형
흐르는 눈물을 닦듯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자, 고독하고 슬픈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일진형
담배를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찍은 뒤, 프로필에 "담배는 눈에 보이는 한숨이다"라는 문구를 적어두자.



씻형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고 입술을 내밀자. 훗날, 박지성이 곧 세레모니로 이 포즈를 따라한다.



청순형
청순하게 옆머리를 내려 양쪽 볼을 가리자, 얼굴도 작아 보이고 청순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키스형
연인과 과감하게 키스하는 모습을 캠으로 담아 세이클럽에 자신의 견해를 알리자.



agen.

MOTOR

OF THE MONTH

홍대 앞 THE BEETLE FUN STATION 현장.
60년 넘게 사랑받아온 디자인에
세대 차이가 있을 리 없잖아?



2012 THE BEETLE

딱정벌레가 돌아왔다. MINI 천하를 끝내려.

지난 10월 19일, 홍대 앞 MAXIM KOREA 빌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열렸다. 홍대 최고의 핫 플레이스인 삼거리 포차(YG 양현석이 운영하던 술집) 거리에 수백 평 규모의 특별 스테이지가 등장했다. 그 위엔 밴드 공연을 위한 무대와 함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폭스바겐 신형 비틀 3대가 서 있었다. 많은 신형차 출시 이벤

트를 봐왔지만 이건 말그대로 대박이었다. 22일까지 4일간 열린 오픈 파티 THE BEETLE FUN STATION에선 지난달 MAXIM 사무실을 습격한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유명 밴드들의 공연까지 열리면서 홍대 피플의 뇌리에 신형 비틀을 깊숙히 꽂아 넣었다. 이전 모델인 NEW 비틀이 여성 취향의 귀여운 장난감 같았다면, 신형 THE 비틀은 더 단

단해보이고 고성능 포스마져 풍긴다. 비틀은 '폭스바겐의 상징'을 넘어 세계 자동차 발전사에 빠질 수 없는 레전드다. 3세대 신형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가장 긴장타는 건 역시 MINI다. 첫 번째 저격 대상은 동급 모델 미니 쿠퍼 SD. 거의 비슷한 스펙이지만 비틀은 미니 쿠퍼 SD보다 470만 원이나 싸다. 끝장을 볼 셈이다. 

이날 홍대에는...





SD:
4,280만원

MAXIM
시승기
#21

BACK TO OLD SCHOOL! 2012 MINI COUPE S & SD



MINI 국민학교에서 만난 쿠페S와 국내 1빠로 시승한 쿠페SD. 이 두 녀석을 각각 2명의 여자 후배 에디터와 함께 시승했다. 그녀들의 감상평을 그대로 들려주마. 거저먹는 기사란 바로 이런 거다.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김희성, WellCom
MODEL 손안나 DESIGN 서윤정



안나: 나 요렇게 생긴 미니는 이번에 처음 타봐. 이게 미니 쿠퍼 쿠페라고?



희성: 응 안나 씨가 타본게 쿠페SD 디젤 모델이고, 내가 탄 건 쿠페S 휘발유 모델이야.



그런데 미니 쿠퍼? 쿠페? 뭐가 맞는 거야? 헷갈려. 누군 쿠퍼라 하고 누군 쿠페라 하고..



훗, 내가 요번 미니 가을 운동회에 가서 제대로 배워왔지. 미니의 모델명에 붙는 '쿠퍼'랑 '쿠페'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래? 쿠퍼랑 쿠페랑 다른 거라고? 같은 걸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는 거 아니었어?



쿠페(Cooper)는 사람 이름이야. 존 쿠퍼(John Cooper)라고 자동차 설계자이자 랠리 선수였던 사람인데, MINI 고성능 버전을 탄생시킨 사람이고, 그렇게 탄생한 '미니 쿠퍼'로 1961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승민: 아야, 우리 희성 씨는 클럽 죽순이인 줄로만 알았더니, 섹드립 말고도 대가리에 든 게 꽤 많네?



헐, 저 지적인 여자예요. 대가리라뇨...



그랬구나. 난 쿠페를 왜 미니에션 쿠퍼라고 부르나 하고 이상하다 생각했지.



그러면 안나 씨 쿠페는 뭔지 알아?



그럼요. 쿠페는 'Coupe', 주로 2인승으로 만들어진 싹뻥하고 납작한 스포츠카나 스포츠 세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샌 4인승도 쿠페랍시고 나오는 통에 쿠페라는 분류 자체가 아주 모호해져서 그냥

잘빠지고 멋 부린 차에는 쿠페라는 이름 붙이더라. 뻥 하면 다 쿠페야.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럼 미니 쿠퍼 쿠페는 미니 중에 멋쟁이 날라리를 담당하고 있군요.



안 그래도 이번에 내가 갔던 '미니 가을 운동회' 콘셉트가 온통 올드 스쿨 버전이었는데, 차종별로 역할 분류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그냥 미니 쿠퍼는 범생이, JCW는 반에서 제일 날렵하고 싸움 잘하는 짱, 클럽맨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세련되고 매너 좋은 훈남 반장, 컨트리맨은 우직한 운동부 덩치...



오, 그럴 듯한데? 그럼 쿠페랑, 로드스터, 컨버터블은?



개네 셋은 일진이야. 잘 놀고 색기 좀 흘리는 F4 같은 존재들이지.



음, 이번 달 주인공인 쿠페는 일진회 소속이시군?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미니학교 일진 삼인방 중에 쿠페는 인기 순위 몇 위야?



1진 형의 날라차기와 그의 뺑서들



미니와 인간의 줄다리기 헌편



MINI 매장. 그리고 보니 떡볶이를 안 먹었네



전 솔직히 쿠페가 그중 꼴찌라고 생각해요. 아예 놀기로 걱정하고 일진에 들어왔으면 두경 정도는 시원하게 열리면서 놀아줘야 하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로드스터나 컨버터블만큼 놀아주질 못하죠.



그런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몸매가 제일 잘 빠진 건 쿠페인데... 셋 중에 몸을 담당하고 있어. 역시 남자는 몸!



안나 씨도 참 남자 몸 징하게 좋아한다. 하지만 난 결정적으로 맘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뭔데?



2인승 쿠페니까 뒷좌석이 없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등 뒤에 실내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혀서 누울 수가 없더라고!



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당연하죠. 노는 남자 차에 탔는데 제대로 누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예요.

S:
4,180만원



MAXIM 에디터가 타는 바람에 꼴찌로 들어온 쿠페S



일정 속도(80km/h)를 넘어서면 등 뒤에서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오는 것도 맘에 들어. 웬지 더 땅에 착 달라붙는 것 같아서 가속페달을 더 밟고 싶어지지.



와일드한 여자들이구먼. 난 쿠페 모델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미니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을 때, 동급의 다른 소형 스포츠카에 비해 차가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 같던데.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딱 1초쯤 시차를 두고 차가 튀어나가는 것 같아.



저번에 저한테 보여주신 그거 말이죠? 나는 그 1초의 시차가 진짜 짜릿하던데!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이 떨어지기 전에 잠깐 멈추는 심장 떨리는 찰나의 폭풍전야! 그나저나 안나 씨가 탔던 SD(디젤엔진)는 어땠어? 내가 갔던 미니 가을 운동회에는 가솔린 모델밖에 없었는데.



흐흐, 내가 탄 쿠페SD는 전날 막 영국에서 들어온 완전 새 차였어. 아직 '네이버 자동차'에도 미니 쿠페 SD는 안 나와 있어. 네이버 자동차에 MINI KOREA의 시판 차량으로 등재되기도 전에 이 몸이 시승한 거지.



수업이 끝나자 시험을 봤다는 게 확정



문제아 스티커는 허벅지가 제자리



선도부 형들의 소지품 검사(맥심 숨겨!)



그러고 보니 그렇네. 역시 선배는 선배구나. 난 아직 희성 선배 따라가려면 멀었다.



헐, 난 그날 하루 시승하면서 그것부터 체크했구나. 굳이 그 좁은 데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로맨틱한 드라이브는 안 될까?



안 돼요. 로맨틱한 드라이브는 '미니 쿠페를 타는 남자'의 이미지랑 안 맞아요.



대체 '미니 쿠페를 타는 남자'는 어떤 이미지인 거지?



지드래곤!



오 딱이다. GD랑 놀면서 로맨틱하게만 놀면 정말 억울하지.



하지만 GD는 벤틀리를 탄다던데?



벤틀리가 좋긴 한데 GD랑은 안 어울려요. 꼬맹이가 탱크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야.



야, 안나 너 지금 키 작은 남자 디스하나? GD는 우리 호빗들의 영웅이야. 쿠페가 좀 작다고 우리 GD님을 갖다 붙이지 마.



쿠페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쿠페'답게 납작해서 그렇기 재원표를 보면 차 전체 길이는 오히려 그냥 미니 쿠퍼보다 1~2센티쯤 길어요.



정말? 그런데 실내는 왜 이렇게 좁은 것 같지? 뒷좌석을 없애서 그런가?



대신 트렁크를 열어 보면 미니 쿠페가 뭘 버리고 뭘 얻었는지 알 수 있죠. 전에 탔던 미니 쿠퍼SD와 비교하면 놀랄 만큼 적재 공간이 넓거든요. 트렁크 안 열어 보셨어요?



깜빡하고 안 열어봤네. 하긴 미니 쿠퍼 기본형의 트렁크는 거의 품으로 달려 있는 큰 주머니에 가까우니까. 그보단 많이 크겠네.



아까 희성 선배는 쿠페가 차 뚜껑이 안 열려서 아쉽다고 했지만, 만약 이게 뚜껑이 열리는 차였다면 이런 넓은 트렁크는 없었겠죠. 차 자봉을 수납할 공간으로 거의 다 차 버렸을 테니까.



그건 그래. 소프트웨어를 수납하는 데에도 공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데, 쿠페의 하드톱을 컨버터블로 만들려면 차체 모양도 되게 이상해졌겠다. 어쨌거나 미니 가을 운동회에 가서 몰아본 쿠페의 주행 성능은 나쁘지 않았어. 특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날렵하게 돌 때 운문에 가해지는 압력은 정말 짜릿하던데?



맞아. 미니가 원래 '생긴 건 이래도 스포츠카'라는 느낌이었는데, 쿠페 이 녀석은 '생긴 것부터 스포츠카'지.



진짜네? 인터넷에 뒤져봐도 미니 쿠퍼 '쿠페'의 SD를 타봤다는 시승기는 어디에도 없어. 정말 만나 씨가 1빠네?



이거 영광인데? 다른 매체 시승기 올라오기 전에 빨리 우리 홈페이지에 쿠페SD 시승기 올려야겠다. 맨 앞 페이지에 만나가 교복 입고 서서 찍은 저 파랑이 미니가 바로 나에게 처녀 시승을 제공한 쿠페SD야.



그런데 저 SD 파랑 색깔 완전 예쁘다. 내가 탔던 쿠페S는 빨강이었는데, 쿠페가 유독 빨강, 파랑 같은 원색이랑 잘 어울리네. 기본형 미니 쿠퍼나 컨트리맨, 클럽맨 등등 다른 미니들은 솔직히 말해서 원색이랑은 잘 안 어울리거든.



오, 희성 씨 예리한 지적이야. 실제로 지금껏 미니는 크림색이나 다크 그린 색상이 인기였고, 팔리기도 많이 팔렸지. 상대적으로 원색의 미니는 좀 촌스러워 보이거든.



정말 그래. 빨강이나 파랑이 이렇게 잘 받는 미니는 쿠페밖에 없는 듯. 오히려 쿠페에는 크림색이나 그린 색상이 안 어울려. '빨간 스포츠카의 로망을 미니로 실현하려면 쿠페를 사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SD는 어땠어? 143마력이나 쿠페S의 184마력에 비해 출력은 낮고, 제로백도 7.2초인 쿠페S보다 1초 느리네?



최고 속도도 206km/h니까 가솔린 모델의 224km/h보다 좀 느려. 솔직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소음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야. 시동 걸었을 때 감ભ했음. 방음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았어.



그렇지만 역시 요즘 제일 중요한 건 연비 아니겠어요? SD가 S보다 괜히 더 비싼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까 저거 만나 씨가 입은 교복, 진짜 고딩 때 입던 거야? 교복 치마 길이 보니 좀 놀랐구나? 나도 저 정도로 짧게 줄이진 않았는데 대박...



놀다니요, 저 착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교복만 좀 줄인 거임. 그리고 저때 조금 올려 입은 거니 오해 마세요.



아, 진짜 억울하다. 나 맨 여자 교복을 월남 치마처럼 치렁치렁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 다시 태어나고 싶다. 제기랄!



어딜 가나 시선 집중



양철 도시락 한 번 흔들고



바람 빠진 공을 주면 어뜨케!



이날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미니 레이스에서 MAXIM이 필한 쿠페S. 여기에 있던 쿠페는 휘발유 모델이었다. 트윈 쿠페 발전 원리!

MAXIM
시승기
#22

2013 TOYOTA VENZA

 프리우스랑 캠리가 워낙 나대니까 몰랐나본데, 토요타 사무라이 군단의 두목은?
다들 그렇듯 점잖아 보이는 대형 세단이 대장 노릇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표 세단 캠리와 대표 SUV 시에나 사이에 숨어있는 변종 크로스오버 벤자가 진짜 두목이거든.
벤자의 파워엔 스포츠카 86도 바로 꼬랑지 내린다던데...저 인상 좀 봐, 잘못 걸리면 답 없다.

BY 유승민 DESIGN 원우경



벤자
처음 타 본
에디터



훌륭한 짬뽕

크로스오버라는 고상한 표현도 있지만 그 뜻은 결국 짬뽕이란 얘기다. 벤자는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짬뽕이다. SUV와 세단을 잘 섞어 보겠다고 내놓은 크로스오버는 많다. 하지만 정말 잘 나온 짬뽕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한 쪽의 특성에 치우치기가 일쑤고, 자칫하면 SUV와 세단의 단점만 합쳐진 최악의 크로스오버도 종종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크로스오버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건 그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섞어야 짬뽕이다. 우리는 한 쪽이 한 쪽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을 보고 '섞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흡모하는 옆집 영희를 침대로 끌어다 살을 섞는 것과, 당신이 옆집 영희 코스프레를 하는 게 같을 리가 없잖아? 크로스오버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세단이 SUV의 해치백만 흉내낸다면, SUV가 세단의 크기만 흉내낸다면 해서 망하는 크로스오버가 종종 나온다. 두 가지의 원재료가 각자의 본 모습을 완전히 해체한 상태에서 서로의 장점만 모아 전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냈을 때 최고의 짬뽕, 최고의 크로스오버가 탄생한다.

세단 부럽지 않은 날렵한 걸모양을 하고도 SUV가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온전히 살아있는 차. 보기 드물게 장점만 골라 아주 '잘' 섞인 짬뽕. 바로 토요타의 벤자다.

키 꽃기 전

차 문을 열고 타는데 SUV에 탈 때처럼 높은 차에 '올라' 탄다는 느낌이 없다. 차에 매달려 오를다는 느낌 없이 몸을 옆으로만 살짝 움직여서 차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세단을 탈 때처럼 키보다 낮은 아래로 기어들어간다는 느낌도 없다. 정확히 내 몸의 무게중심을 옆으로 기대듯 차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마치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수평 이동이다. 그리고 마치 평지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편안하게 운전석에 앉으면 된다. 겨우 차에 탈 때의 느낌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종이남비를 하나요? 정말 이런 탑승감은 처음이라 그렇다.

당신이 수트를 입고 있거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친이 탈 때에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다. 만약 '가장 우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자동차' 어워드 가 있다면 단연 벤자가 1위를 먹을 거다.

에디터의 키가 마침 벤자랑 딱 맞을 뿐인 거 아니냐고? 아니다. 차체의 높이 설정도 좋았지만 비밀은 도어의 형태에도 숨어있다. 보통 차의 문짝이라는 게 가로로 긴 모양새를 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아래 사진에 벤자 운전석 도어를 잘 살펴보면 세로로 긴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타고 내릴 때의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우리 인체의 형태에 가깝게 세로형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직립 보행을 하는 당신같은 호모 에렉투스를 위한 세심한 배려다.

패밀리 스티어링?

후달달한 연비는 훌륭한 주행성능을 뜯어먹으며 잊기로 했다. 에디터가 시승했던 배기량 3,500cc 4륜 구동 모델의 엔진은 아주 훌륭했다. 주행 성능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외로 운전석 시트에 있었다. 저 폭발적인 성능을 마음 놓고 만끽하려면 시트가 몸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감싸줘야 할 것 같은데 벤자의 시트는 너무도 밋밋해서 약간의 코너에서도 몸이 심하게 쏠렸다.

이에 대한 에디터의 질문에 벤자를 디자인한 이정우 선임 디자이너는 "패밀리 카에 버킷 시트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풀 버킷 시트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할 듯 하다. 이대로는 안정 없이 맹수의 등짝에 타고 달리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 스티어링은 있겠네. 자세한 얘기는 영상에서 하자고. 📺

SPEC

	2.7 XLE 모델	3.5 Limited 모델
가격	4,700만 원	5,200만 원
배기량	2,672cc	3,456cc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DOHC	v형 6기통 DOHC
최대 출력	184마력(5,800rpm)	272마력(6,200rpm)
최대 토크	25.2kg.m(4,200rpm)	35.1kg.m(4,700rpm)
구동 방식	앞바퀴 굴림	가변식 4륜 구동
변속기	자동 6단	자동 6단
차체 길이	4,800mm	4,800mm
차체 중량	2,105kg	2,245kg
공인 연비	9.9km/L (4등급)	8.5km/L (5등급)
연료 탱크	67L	67L



MOTOR NEWS

쌍용자동차, HARMAN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장착한 체어맨H와 렉스턴W 출시

쌍용자동차가 HARMAN 그룹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체어맨H에는 프리미엄 5.1채널 12스피커 시스템을, 렉스턴W에는 프리미엄 10스피커 시스템을 적용한다. HARMAN은 세계 명차들이 선택한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으로 작은 속삭임부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울림까지 섬세한 사운드로 귀를 호강시켜준다. 두 모델 모두 7인치 3D 내비게이션을 탑재해 편의성 또한 제공한다. 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체어맨H 뉴 클래식 500S 최고급형 이상에 기본 적용하며, 렉스턴W는 RX7 브라운 스페셜부터 기본 적용된다.
문의 쌍용자동차(080-500-5582)



ALL NEW 인피니티 JX, 미 컨슈머 리포트 추천 차량 선정

ALL NEW 인피니티 JX가 넓고, 잘 마무리된 실내 공간과 탑승자 친화적인 인테리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컨슈머 리포트의 추천 차량으로 선정되었다. 또 외부 소음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매우 조용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3.5L VQ35DE 엔진을 탑재하고, 무단변속기를 조합해 연료 개선 효과와 7인승 럭셔리 크로스 오버에 적합한 변속 충격 없는 매끄러운 승차감까지 선사한다.
가격 6,670만 원(2WD), 6,990만 원(AWD)
문의 인피니티(080-010-0123)



스바루 2013년형 레거시 출시!

스바루코리아가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 2013년형 레거시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 레거시 2.5는 신형 2.5L 박서 엔진으로 교체하고 차세대 무단 변속기를 탑재했다. 이외에도 서스펜션을 가다듬어 민첩성과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엔진 성능과 안전 사양을 대폭 개선 했음에도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에 강한 사륜구동의 절대 강자 스바루는 2013년형 레거시를 앞세워 겨울철 안전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공략한다. 국내 유일 3천만 원대 사륜 구동 세단은? 스바라사~스바라사~스바루
가격 3,650만 원(2.5 AWD), 4,140만 원(3.6 AWD)
문의 스바루 코리아(02-560-8800)



닛산 NEW 알티마 국내 출시

닛산에서 내외관 모든 부분에 변화를 준 중형 패밀리 세단 뉴 알티마를 출시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더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저중력 시트를 장착해 혼잡한 통근 시간이나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최소화한다. 2.5SL 모델은 최대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4.5kg·m의 힘을 보여주며, 3.5SL 모델은 273마력, 최대토크 34.6kg·m의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또 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해 귀를 즐겁게 하고, 액티브 언더 스티어 컨트롤을 탑재해 안정적인 코너링을 선사한다. 바뀐 디자인과 성능의 알티마! 기대해 볼만하겠다.
가격 3,350만 원(2.5SL), 3,750만 원(3.5SL) 문의 한국 닛산(080-010-2323)



시트로엥 고성능 스포츠 해치백 DS3 레이싱 출시

한불모터스에서 시트로엥의 고성능 스포츠 해치백 DS3 레이싱을 국내에 출시한다. DS3 레이싱은 전 세계적으로 딱 1,000대만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나라에만 출시하며 단 5대만 한정 판매한다. 갖고 싶지? 시트로엥의 드라이빙 노하우를 집결시켜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DS3 레이싱은 1.6L 터보 직분사 엔진을 탑재하고, 최대 200마력 28kg·m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이전 차체보다 낮게 설계해 레이싱에 탁월한 밸런스를 보이고 세계 최고의 브레이크인 보렘보사의 브레이크를 결합해 강력한 제동 성능까지 탑재했다. 1km를 27초 만에 도달하니! 밟아보고 싶다! 하지만 자동 변속기는 없으니 오토 면허는 침 닦아!
가격 4,950만 원 문의 한불모터스(02-545-5665)



BMW NEW 3시리즈 투어링 출시

BMW 코리아가 프리미엄 스포츠 왜건 NEW 3시리즈 투어링을 국내에 출시했다. 출시한 모델은 NEW 320d 투어링과 NEW 320d M 스포츠 패키지 총 2종이다. NEW 3시리즈 투어링의 트렁크는 동급 최고인 495L에 달하며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최대 1,500L까지 확장할 수 있고, 뒷좌석 스루 로딩 기능을 이용하면 성인 4명이 탑승해도 몇 쌍의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실을 수 있다. 직렬 4기통 1,955cc 디젤엔진을 장착, 최고 출력 184마력과 38.8kg·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한다. 또 NEW 3시리즈는 복합 연비 17.5km/L로 정부 공인 표준 1등급 연비를 실현했다.

가격 5,070만 원(투어링), 5,850만 원(M 스포츠)

문의 BMW 코리아(080-269-2200)



포드 코리아 2013 ALL NEW 이스케이프 출시

포드 코리아가 2013년형 ALL NEW 이스케이프를 출시했다. ALL NEW 이스케이프는 포드의 다운사이징 엔진의 대명사이자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는 2.0L 및 1.6L 에코 부스터 엔진을 탑재했다. 2.0L의 엔진은 최대 243마력, 37.3kg·m의 최대토크를, 1.6L 엔진은 최대 180마력, 25.4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동급 엔진 장착 차량과 견줘봐도 뒤지지 않는 파워와 연비를 제공한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때 자동으로 속도를 낮추는 커브 컨트롤, 회전 시 가속을 조절해주는 토크 벡터링 컨트롤 등 스마트한 성능까지 겸비했다.

가격 3,230만 원(1.6L) 문의 포드 코리아(www.ford-korea.com)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솔라การ์ด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130년 전통의 명품, 솔라카드 열 차단 필름이다.

▶ **응모 기간:** 2012. 11. 22 ~ 2012. 12. 18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측·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븐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걸들면 더 좋겠다.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 (편지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제20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안녕하시오. 아프리카 정글에서 군 생활 2년을 포함해 총 5년 동안 감금(?)생활을 했던 MAXIM 애독자요. 5년 동안 내 삶의 유일한 낙은 휴가자들이 사다 주는 한국판 MAXIM을 읽는 일뿐이었다오. 혼자 보기 아까워 같이 근무했던 흑형들에게 MAXIM을 보여줬더니 아리따운 한국 처자들의 모습에 반해 에티오피아에도 때 아닌, MAXIM 열풍이 일어났지 뭐요. 어쨌든 귀국 후에 차를 한대 구매했는데 아프리카의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은 탓에 눈이 시려 운전할 수가 없소. 또 실눈 뜨고 운전하다 보니 험악한 얼굴에 주름이 생겨서 있던 여친도 도망갈 판국이오. 눈의 건강과 여친의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나의 애마에 틴팅을 부탁하는 바요!



▶ 솔라카드 이벤트 당첨자 틴팅 후기 보기



아프리카 오지까지 대한민국 MAXIM의 위상을 떨쳤더니 당첨 소식 전달에 앞서 공로상이라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소. 이토록 건전하고 훌륭한 상품의 사내가 MAXIM 애독자라니 당첨 소식을 전달하는 담당자 역시 기분이 좋구려. 어쨌든 틴팅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친 도망가지 않았다는 인증샷 한 장 찍어 보내보시오. 끝으로 추운 겨울, 귀하의 안구와 옆구리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요.

007 SPECIAL

50



BY SIMON CLAY PHOTOGRAPHS Beaulieu National Motor Museum EDW Productions

BOND CARS & GADGETS

HOTTEST BOND RIDES

본드가 탄
여자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007 시리즈. 이를 기념하여 본드와 악당들의 가량이
를 받쳐준 달 것과 특수 무기 50가지를 한자리에 모았다. 50년 동안이나 악
당 패고, 술 퍼마시고, 끝내주는 슈퍼카 페차시키고, 여자 따먹느라 욕봤!

웨트바이크(Wetbike)

출연작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7 로저 무어

→ 발명가 닐슨 타이일러가 만든 세계 최초의 웨트바이크 (제트스키). 이 영화의 마지막 쫓음에 본드가 미녀 바바라 바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웨트바이크가 본드를 싣고 달리는 동안 그는 여자를 구하고 악당을 처치한 뒤, 악의 소굴 기지를 파괴한다. 동시에 핵 미사일 2개가 날아오는 비행경로를 재설정하여 서로 부딪쳐 터뜨린 뒤에 삼페인을 타고 여배우와 떡을 친다. 이 모든 일을 만나질 만에 해낸 것이다. 시간을 쪼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본반도록.



유니언잭 낙하산(Union Jack Parachute)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악당 거스타브가 영국 여왕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버킹엄 궁에 내려온다. 왕실 보안을 생각하면 궁 안에서 촬영 허가를 내준 것만으로 놀랍다. 실제 촬영 때는 3명의 낙하산 요원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서 이 장면을 한방에 찍었다고 한다.

톡톡(Tuk-Tuk) 택시

출연작 옥토퍼시 007 로저 무어

→ 본드 시리즈 제작자인 커비 브로콜리는 못말리는 테니스 광이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 '비자이 암리트라즈'에게 본드를 돕는 요원 역할을 맡기고, 이 영화의 명장면인 톡톡 택시 추격전에서 본드를 태우고 택시를 몰게 한다. 제작자가 얼마나 테니스를 사랑했는지,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비자이는 미소를 띠고 톡톡을 물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악당을 팬다. 인도 우다이푸르 거리에서 벌어진 톡톡 택시 추격전의 클라이막스는 톡톡이가 점프해서 낙타를 뛰어 넘는 장면이다.



언더워터 토 슬레드(Underwater Tow Sled)

출연작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

007 손 코너리

→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은 007 정식 판권이 없이 나온 007 영화로, <샌더볼>의 리메이크작이다. 1983년 오리지널 정식 007인 <옥토퍼시>와 같은 해에 개봉하면서 정면도전을 선포한다. 영화 내내 수중 액션신이 벌어지면서 수중 추진 장치, 작살총이 끊임없이 나온다. 수영복 입은 미녀도 물론! 참고로 실제 작살총을 촬영에 쓰기 위해 진짜 작살총의 창 끝에 고무 덮개를 씌웠다고 한다. 암, 술 땀 쓰더라도 피임은 확실히 해야제.



스피어건 슬레드(Spear Gun Sled)

출연작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7 로저 무어

→ 스포츠카 로터스 에프프리에 미녀를 태우고 달리며 차, 바이크, 헬기까지 따돌린 본드는 차를 몰고 바다에 뛰어든다. 차는 잠수함으로 변신! 수중 추진 장치인 스피어건 슬레드를 몰고 나타나 작살을 쓰는 적들도 여유있게 상대한 본드는 호텔로 차를 몰고 돌아와 고급 삼페인 볼랭저를 마신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치.



바바라 바흐
《나를 사랑한 스파이》

+ 비틀즈 멤버 링고 스타의 부인이다.



애스턴 마틴 DBS

출연작 카지노 로얄 007 대니얼 크레이크

→ 《여왕폐하 대작전》 이후 37년 만에 본드와 재회한 DBS를, 제작진은 자동차 추격신에서 굴리려 했지만 차가 너무 안정적이라 뒤집어지지 않았다. 결국 조수석 시트 밑에 특수장치를 설치, 도로를 박차오르게 했고, DBS는 7회전에 성공해 기네스북에 올랐다.



애스턴 마틴 DBS

출연작 퀸텀 오브 솔러스 007 다니엘 크레이그

→ 서스펜션과 타이어 개조 빼고는 기본에 충실한 이 애스턴 마틴은 영화 속 거친 본드와 잘 어울린다. 채석장에서의 추격신에서 애스턴 마틴 DBS 7대, 알파 로메오 9대, 랜드로버 2대가 수명을 다했다. 사진 속 애스턴은 그 난리통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다.



애스턴 마틴 V8 볼란테

출연작 리빙 데이라이트 007 티모시 달튼

→ 각종 부스터와 미사일, 특수 무기를 장착한 본드카. 얼음이 얇게 언 호수 위에서의 촬영 중, 애스턴 마틴이 물에 빠질 뻔했지만 제작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애스턴 마틴 공장의 부품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범퍼, 윈드스크린 등의 부속품을 너무 많이 교체해 봐서.



애스턴 마틴 V12 밴퀴시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위장 기능과 열추적미사일, 열화상장치, 방판용 타이어 등이 달렸다. 방판 추격신은 아이슬란드의, 차량 진입이 단 한 번도 없던 늪지대에서 촬영했다. 격렬한 액션 신을 위해 촬영 중 결국 두 대의 애스턴 마틴이 장렬히 폐차했다. 명복을...

애스턴 마틴 DB5

출연작 골드핑거 007 손 코너리

→ 7.6mm 머신건, 추적 장치, 방탄 기능, 유막 분사기와 비상탈출 기능, 자동으로 번호를 바꾸는 번호판 등 이 차엔 본드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있다. 본드는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악당을 비상탈출 좌석에 앉혀 쓰레기 버리듯 공중으로 날린다. 나머지 즐거움은 자동차에 있는 브라우닝 머신건으로 제압한다. 청소 끝!





토우 슬레드(Tow Sled)

출연작 **썬더볼 007** 손 코너리

→ 평범해 보이는 제트스키지만 위에 달린 쌍 작살을 쏘아대면 그렇게 무시무시할 수 없다. 이 영화에는 수중 액션이 많았기 때문에 총 14대가 촬영에 동원됐다. 악당 라르고의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핵 무기를 수송하는 중 본드가 이걸 폼나게 타고 나타나 작살을 퍼붓는 장면이 아주 스틸 넘친다. 이봐! 그, 그러다 핵이 터지겠어!



스위치블레이드 글라이더(Switchblade Glider)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1인용 글라이더. 본드와 본드걸 짐스가 헬기 밖으로 뛰어내릴 때 썼다. 영화에선 시험용 기체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군에서 쓰이는 1인용 기체다.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320km/h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다가 안전한 높이에 왔을 때 파일럿은 글라이더를 버리고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한다. 이런 미친..



서핑보드(Surfboard)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제임스 본드가 하다가 아젠 서핑보드를 타고 북한에 잠입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미 제국주의의 서핑 촬영 따윈 허가할 리 없으니 실제 촬영은 상어가 출몰하고 살벌한 파도로 악명 높은 하와이 해변에서 진행됐다. 정작 당사자인 피어스 브로스넌은 영국의 스튜디오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안하게 촬영했다고.



패러호크(Parahawk)

출연작 **언리미티드**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사진만 봐서는 대체 뭐하는 물건인지 짐작이 안 가겠지? 하늘을 나는 하이브리드 스노모빌이다. 007이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도망가고, 그 뒤에 저절로 탄 악당들이 패러슈트를 펼치고 날면서 그를 쫓는다. 지상에서는 스노모빌이 되어 달린다. 그러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 괜찮아. 어차피 본드가 죽었을 거야.



아크로스타(Acrostar)

BD-5J 제트

출연작 **옥토퍼시 007** 로저 무어

→ 당시엔 최경량이던 초소형 제트기. 원래 11번째 007 <문레이커>를 위해 3대를 제작했지만 영화엔 쓰이지 않았다. 이를 고스란히 <옥토퍼시>에서 득템한다. 본드는 이걸 타고 미사일을 피하고 적기를 격납고로 유인해 폭파한다. 실제 촬영에선 120km/h로 달리는 재규어에 제트기를 묶어 격납고 사이를 달리게 했다.



AMC 호넷(Hornet)

출연작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007** 로저 무어

→ 태국에서 촬영된 호넷의 스텐트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다. 썬나게 달리다 강물을 만난 본드는 무모하게도 강을 차로 뛰어넘기로 한다. 마침 중간이 끊긴 나무다리가 보인다. 호넷은 나무다리를 질주해 날아올라 공중에서 270도 회전하며 강을 건넌다. 실제 스텐트 드라이버는 촬영 후 무어에게 삼페인을 선물 받았다고.



봄바르디어(Bombardier)

MX Z-Rev SKI-D00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설원을 달리는 스노모빌. 촬영 중 무려 14대가 박살났다.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액션 신이 워낙 많았던 시리즈였으니 봄바르디어를 선택한 건 탁월했다. 하지만 이 위에 올라탄 제임스 본드가 어린이 장난감에 올라탄 철없는 삼촌 같아 보인다는 게 흠이다. 어쨌거나 무척 신나 보이니 냅두자.



카지바(Cagiva)

600 W16

출연작 **골든아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7년 동안 스파이질을 쉬던 본드가 <골든아이>(1995년)에서 피어스 브로스넌의 육신으로 돌아왔다. 카지바는 오프닝에 등장한다. 이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고 절벽 끝까지 질주하던 본드는 바이크를 놓고 점프한다. 지유낙하하야!!! 이 장면을 위해 같은 촬영을 7번이나 반복하고, 그 와중에 5대의 카지바가 박살났다.



올가 쿠릴렌코
<007 퀴텀 오브 슬러스>의 '카림'

우슬라 안드레스
007 1탄과 87년도
<카지노 로얄>



오스프레이 하버크래프트(Osprey Hovercraft)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명칭한 두꺼비 같다고 놀렸다간 미사일과 머신 건을 세례를 받을 거대 본드가 북한군 악당을 쫓아 DMZ를 넘어 북한에 가던 중에 지뢰 밟을 지날 때, 차체를 공중부양시키는 마법 같은 지뢰 회피 기술까지 선보인다. 동은 안 밟겠네.



큐(Q) 보트

출연작 언리미티드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영국 템즈강에서 6주간이나 걸려 완성한 큐 보트의 액션 장면은 본드 영화 사상 최악의 고난도 스텐트로 꼽힌다. 예를 들어 큐 보트를 타고 27.5m 높이의 공중을 130km/h의 고속으로 날아가는 식이다. 이봐, 보트 라며...?



골드핑거 낙하산

출연작 골드핑거 007 손 코너리

→ 악당 골드핑거의 비행기에서 본드와 본드걸 퍼시 갤로아 양이 탈출할 때 쓰였다. 이 낙하 이후, 냉정하던 그녀는 갑자기 본드 앞에서 몸을 배배 꼬는 색녀가 된다. 하도 짜서 파배기가 된 줄 알았다. 여자는 자유낙하를 시켜주면 기분이 좋아지나 보다.



로터스 에스프리트(Esprit) S1

출연작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7 로저 무어

→ 미사일 발사, 시멘트 분무, 수중전에서 유용한 잉크 분사, 지뢰 투척기, 방탄잠망경, 잠수함 모드... 싸움도 섹스도 만능인 본드와 찰떡궁합인 본드 캐! 하지만 이 녀석이 쏜 미사일에 거유를 출렁이던 악녀 캐롤라인 먼로가 당하는 장면은 너무 슬펐어.



머큐리 쿠퍼(Cougar) XR7

출연작 여왕폐하 대작전
007 조지 라젠비

→ 조수석에 본드를 태우고 이 멋진 차를 자유자재로 몰던 금발 미녀. 악당에게 쫓기다가 아이스링크장에 뛰어드는데 하필! 우연히! 스톱캐(경주용 개조 승용차) 레이싱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 레이서들도 그녀의 상태는 되지 못했다. 와우!



PIG

출연작 리빙 데이라이트 007 티모시 달튼

→ PIG는 파이프라인을 검사 청소하는 로봇. 파이프 검사라니, 왠지 엄청 야한 작업일 것 같다. 이 영화에서 러시아 장군 코스코프가 비밀 명령을 할 때 이걸 타고 온다. PIG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와 <언리미티드>에도 등장한다.



재규어 XKR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영화상장치, 박격포, 개틀링건에 18개의 열추적 미사일... 아마 본드 시리즈에 나온 차들 가운데 가장 무장이 잘린 차일 것이다. 게다가 탱크만큼 단단하다. 하지만 본드는 이 재규어를 차가운 얼음 호수에 던져버린다. 형 진짜 짱.



아이스 드래к스터(Ice Dragster)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521km/h로 달리는 설상(雪上) 로켓파워 드래к스터. 돈 많이 벌면 이걸 사겠다는 소년 같은 꿈은 버려라. 영화 속 악당이 소유한 가상의 물건이다. 영화 마지막엔 악당이 쓴 이카루스의 광선에 녹아 무너지는 얼음 위를 탈출할 때, 본드는 이걸 타고 빠져나온다. 뽀렘네?



페어리 헌트리스 (Fairey Huntress)

출연작 위기일발
007 손 코너리

→ 이 보트가 미친 속도로 달릴 땐 티렉스가 물속에서 으르렁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영화 피날레인 수상 보트 추격 신에 등장. 악당들을 선상 바비큐로 만드는 데 흔히 팔린 본드를 싣고 달린다. 촬영 도중, 헌트리스호가 너무 빨라서 카메라를 싣은 보트가 따라가질 못해 몇 번이고 보트를 멈추고 촬영진을 기다려줬다고.



터키 경찰 바이크

출연작 스카이폴
007 다니엘 크레이그

→ 녀석의 정체는 혼다 CRF250R 스탠다드. <스카이폴>에서는 터키 이스탄불 거리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륜바이크로 등장한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 때부터 007의 세트와 장치, 자동차 등을 담당해온 베테랑 특수효과 담당자 크리스 코볼드는 새 007에서 총 20대의 혼다 바이크를 날려먹었다.



혼다 ATC

출연작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007 손 코너리

→ 35도 경사를 건디는 세계 최초의 산악 바이크. 가파른 곳에서 먹여주는 혼다 '삼발이'는 나사의 월면(月面)차를 달았다. 영화를 위해 이 바이크 3대가 동원되어 달리고, 돌고, 점프하는 등 멋진 스텐트를 성공시켰다. 본드가 와장창 부수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카이플리트 (Skyfleet) S570

출연작 카지노 로얄
007 다니엘 크레이그

→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 제트기. 원래 에어버스 A380의 프레임에 쓰려고 했는데 촬영에 쓸 수가 없어서 중고 보잉 747을 개조했다. 나머지 작업은 컴퓨터스님과 19피트짜리 모형 비행기(사진 속)가 해주셨다. 속았지?



BMW R1200C

출연작 네버다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성난 짐승처럼 돌진하는 1,200cc 투어링 바이크. 본드가 오토바이로 창문을 통과해, 회전하는 헬리콥터의 날개를 넘어 다른 건물 지붕으로 건너가는 장면에 쓰인다. 보통 이런 스텐트 액션은 안전을 위해 와이어와 케이블을 쓰지만, 정신 나간 프랑스 출신 오토바이 전문 스텐트맨 장-피에르 고이는 보호장구 없이 21m의 고공 점프를 해냈다. 단 한 번에. 물론 멸절할 바이크 4대가 폐차장 행 운명을 맞이했지만.



BMW 750iL

출연작 네버다이

007 피어스 브로스넌

→ 방탄, 방화 능력과 선루프의 스틱어 미사일, 자가 팽창 타이어, 금속절단기, 최루가스과 연막탄 발사 장치, 전후방 카메라.. 차에 장착차 뺨치는 방어구를 두르고 살다니 본드, 핑스에 좀 착하게 살이라. 본드가 이 차를 타고 런던 시내를 폭주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3주간 150명이 동원됐으며, 소방서에서 불타는 BMW 3대를 진화하는 동안 그 구역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본드 이놈, 민폐 대마왕이 따로 없다.



BMW Z8

출연작 언리미티드

007 피어스 브로스넌

→ 5L V8 엔진, 티타늄 갑옷,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격 운전 장치와 측면 로켓을 갖춘 잘 빠진 Z8. 너만은 본드의 손아귀에서 무사하길 바랐건만... 소용 없었다. 커다란 전통 톱날이 맹렬하게 회전하면서 차 궁둥이에서부터 보닛까지 징징왕왕~ 아예 차를 반으로 갈라 버린다. 본드는 반으로 찢어진 차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런, Q가 싫어하겠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역시 쿨가이.

할리 베리

<어나더 데이>

정스역

+ 그녀는 1966년생, 올해 46세?





롤스 로이스 팬텀 III

출연작 골드핑거 007 손 코너리

● V12 엔진을 단 클래식한 투톤의 롤스 로이스라니 보기만 해도 침이 흐른다. 영화 속에서 롤스 로이스 팬텀의 주인공인 악당인 영국인 보석상 '골드핑거'. 그는 순금으로 만든 바디를 롤스 로이스 팬텀에 사용하고, 차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몰래 금을 밀수한다.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거시기에 금테 두른 놈이구만.



포드 썬더버드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난

할리 베리가 <어나더 데이>에서 산호색 썬더버드를 몰고 얼음성에 도착하던 장면은 꽤 근사했다. 007과 포드의 인연은

1964년 <골드핑거>에서 흰색 썬더버드를 등장시키면서부터다. 참고로 애스턴 마틴,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도 포드사 브랜드이니, 007은 재물 전용 주차장인 셈이다.



롤스 로이스 실버 클라우드 II

출연작 뷰 투 어 킬 007 로저 무어

● 제임스 본드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로저 무어의 마지막 본드 영화에 함께한 이 명차는 프로듀서 커비 브로콜리의 것이다. 배우 패트릭 맥니는 "이 2톤짜리 괴물을 타고 프랑스 성문을 지날 때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들 마찬가지였다. 브로콜리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 모든 이가 그 귀한 자동차를 애 다루듯 애지중지했다.



포드 머스탱 마하 1

출연작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007 손 코너리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달리던 본드의 머스탱을 경찰들이 드리프트하면서 추격한다. 그를 쫓는 십여 대의 경찰차들은 심

형래 슬랩스틱 코미디 뺨치게 엉망진창으로 엮히고 자빠진다. 마지막엔 사람이 겨우 지나갈 골목에서 본드가 차를 기울여 오른쪽 두 바퀴로만 달리는 묘기를 선보이며 유유히 추격을 따돌린다. 원래 촬영본에는 없는 장면이었다. 멍청한 제작자들이 다 찍고 나서야 더 화려한 스텐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촬영한 것이다. 골백번 시도한 끝에 두 바퀴로 선 자동차 스텐트 성공! 그런데 나중에 보니 골목 들어갈 땐 왼쪽, 나올 땐 오른쪽 바퀴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작진은 나중에 007이 차를 반대로 휩 기울이는 장면을 그 사이에 넣어 대충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상해! 이상하다고!



롤스 로이스 실버 섀도 II

출연작 언리미티드 007 피어스 브로스난

● 실버 섀도는 총 3편의 007 영화에 등장한다. 이 영화에선 로비 콜트레이니 연기한 발레린 주코브스키의 소유물로 등장한다. 튼질을 당해 반으로 쪼개진 BMW Z8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게 유일한 자랑. 그 외에 딱히 기억나는 장면이 없다. BMW가 몸을 던져 절단 연기를 하는 동안 롤스 로이스님은 영화를 날로 드셨네.

미니 악어 잠수정

출연작 옥토파시 007 로저 무어

● 지동으로 턱이 열리는 악어 모양 잠수정. 이걸 타고 여자만 사는 수중 궁전에 잠입한 본드는 늘 하던 대로 폭력, 술, 섹스 수순을 밟고 잠수정을 이용해 그곳을 탈출한다. 놀랍게도 촬영 땐 동면 중인 진짜 악어가 쓰였다. 처음엔 온순했는데 초대형 핸드백이 되는 악몽이라도 낚 건지 갑자기 악어가 난폭하게 변해 촬영장 안으로 숨어버렸다. 2주 동안 스태프와 배우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턱 빠지겠네. 빨리 찍어.



배쓰-오-잠수정 (Bath-O-Sub)

출연작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007 손 코너리

● 상상용 작살총이 달린 잠수정 폴세트다. 모든 어린이들이 시계에 대고 "가자, 키트!"를 외치게 만든 인기 시리즈 <전격 Z작전>에서 주인공 데이비드 하셀호프의 원격조종 자동차 키트와, 오리지널 배트모빌을 만든 커스텀 자동차 디자이너 조지 배리스가 디자인했다.



리틀 넬리(Little Nellie)

출연작 두 번 산다

007 손 코너리

● 앞엔 기관총, 뒤엔 화염방사기, 그리고 공중투하 기뢰와 지나게 많은 로켓이 달린 기체. 본드는 Q에게 받은 리틀 넬리를 타고 악당 블로펠트의 비밀 로켓기지를 찾아간다. 그 와중에 헬기 4대의 공격을 받는데, 본드는 능숙한 공중 액션 스킬과 넬리의 무지막지한 화력으로 헬기 4마리를 불살라 버린다. 저 앙상한 기체로! 대단해!



벨-텍스트론(Bell-Textron) 제트팩

출연작 어나더 데이 007 피어스 브로스넬

▶ 벨 제트팩은 손 코너리의 <샌더블>에서 과산화수소(머리 염색할 때 쓰는 거 아닌가?) 연료로 움직이는 로켓으로 등장하며 본드와 첫 인연을 맺는다. 사실 로켓을 매고 공중을 나는 1인용 기계 '제트팩'은 1959년 미군이 먼저 고안했지만 현실성이 조도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007 제작자들은 그런 거 주워다 영화에 쓰는 재미가 쏠쏠하겠지.



글라스트론(Glastron) GT-150

출연작 죽느냐 사느냐

007 로저 무어

▶ 120km/h로 질주하는 초강력 보트 글라스트론을 타고 본드가 물 위를 달리다가 점프하여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면이 나온다. 보트를 타고 무려 25m 너비를 점프해야 하는데, 스텐트맨 제리 코요는 120km/h의 속도로 무려 34m를 날아 기네스 신기록을 수립한다. 정말 미친 사람이다. 촬영에 쓰인 26대의 보트 중 몸 성하게 집으로 돌아간 녀석은 단 9대뿐이었다. 본드에게 이 정도 파괴는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글라스트론 CV-23HT

출연작 문레이커

007 로저 무어

▶ 방탄 실드와 두 종류의 어뢰 투척 장치, 그리고 탈출용 행글라이더 등 공격과 방어를 위한 장치가 고루 갖춰진 고속 보트. 보트의 성능보다 놀라운 건 뒤에서 적들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면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데도 끝까지 여유있게 이를 피하는 본드의 무멘탈이다. 추격전은 이과수 폭포 앞까지 이어진다. 본드는 폭포 바로 앞에서 보트를 버리고 행글라이더를 펼쳐 한 마리 새처럼 유유히 날아간다.



수장용 관

출연작 두 번 산다 007 손 코너리

▶ 007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쓴 로알드 달이다. 그는 본드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농담이 아니다. 영화 첫 장면은 군인들이 배에서 본드의 시체가 든 관을 바다에 던지는 수중 장례식이다. 하지만 본드의 특징이 뭔가, '부활'이 아닌가? 관 안에는 잠수용 산소 탱크와 호흡기가 달려있다. 관을 열자 멋진 해군 제복을 입은 본드가 태연하게 눈을 뜬다. 자,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은 소감 한 마디?



첼로 가방 썰매

출연작 리빙 데이라이트 007 티모시 달튼

▶ 눈 덮인 산에서 적에게 쫓기는 본드와 미녀 첼리스트가 표면이 마끈한 첼로 가방을 썰매처럼 타고 신나게 산을 미끄러져 내려간다. 고속 하강하는 가방을 타고 바리케이드 밑을 통과할 때, 손에 든 7만 달러짜리 첼로를 바리케이드 앞에서 던졌다가 통과한 뒤 반대편에서 잡는 액션(?) 신이 있다. 스텐트팀이 번번이 실패한 이 장면을 주연 배우 달튼이 직접 나서서 단 한 번에 성공시킨다. 역시 이래야 본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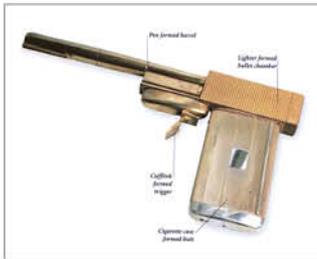


시트로엥 2CV

출연작 유어 아이스 온리

007 로저 무어

온갖 신무기와 새끈한 탈 것(본드걸도 포함)이 등장하는 007에 레모나 첼통 같이 생긴 이 차가 등장한 것은 의외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2CV의 오리지널 디자인 기술서를 보면 "돼지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분명 카캐스를 하기 위함이다. 고로, 이 녀석은 본드카로 전혀 손색이 없다.



콜리브리(Colibri) 골드 피스톨

출연작 황금 총을 가진 사나이

007 로저 무어

▶ 순금으로 된 암살용 권총이다. 라이터, 담배 케이스, 펜, 커프스링크를 이케아 가구처럼 조립하면 이런 모양의 총이 된다. 총알 역시 금이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총알의 금값을 먼저 생각해보라는 휴머니즘이 담겨있는 건가? 007이 그럴 리 없잖아.



르노 11 TXE

출연작 뷰 투 어 킬 007 로저 무어

▶ 별 볼 일 없는 프랑스 차. 5일 동안 파리에서 자동차 추격전을 찍으면서 최소 2대의 르노 차를 망가뜨렸는데... 뭐 별로 아쉽지도 않다. 본드가 차를 몰다가 차 두껍이 통째로 은박지처럼 찢기는 장면이 그나마 인상적이다. 저렴한 가격에 컨버터블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07이 후원합니다.



베레니스 말로히
<스카이폴>
+ 1979년생
프랑스 출신

STYLE

ON-ROAD VS OFF-ROAD

모터 스포츠에도 TPO가 있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ASSISTANT 이영환
COOPERATION 피렐리(02-713-7723)



태그호이어 까레라 모나코 그랑프리 리미티드 에디션 x 피렐리 슈퍼 코르사

태그호이어를 대표하는 까레라와 최고의 F1 레이싱 코스로 유명한 모나코 그랑프리가 만났다. 2012년 모나코 그랑프리를 기념해 3,000피스 한정으로 발매된 까레라 모나코 그랑프리 리미티드 에디션은 초고속 레이싱 머신의 빨갈게 달아오른 디스크 브레이크를 재각 떠오르게 하는 붉은색 핸즈와 푸셔로 무장했다. 이 핸즈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 당신의 트랙 레코드 타임을 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당신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아무리 괴롭혀도 타이어 트레드 모양을 본 뜬 독특한 러버 스트랩은 피렐리 슈퍼 코르사 레이싱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꼭 움켜쥔 것처럼 당신의 손목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레이서들이 가장 탐내는 시계라는 수식어가 이해되는 순간! 가격 6백만 원대

**태그호이어 랠리 마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x 피렐리 스포르피온 랠리**

1958년 최초의 몬테-카를로 랠리를 치르던 랠리 머신에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크로노그래프 호이어 랠리 마스터가 실려 있었다. 보조 드라이버가 극한 상황 속에서 쉽고 정확하게 스테이지 기록을 재기 위한 용도였다. 비록 현대에는 첨단 전자 장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역사와 전통에 대한 경외심은 5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리에디션 제품을 탄생시켰다. 마치 랠리 경주의 드라이버와 보조 드라이버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는 듯한 랠리 마스터의 호이어 오토 랠리(왼쪽)와 호이어 마스터 타임(오른쪽)은 환상의 복시조, 화끈한 다이내믹 듀오라 부를 만하다. 호이어 마스터 타임은 실제 시간이나 총 경기 진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경기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8일이라는 긴 파워 리저브를 지녔다. 호이어 오토 랠리는 클릭 라켓 기능을 지닌 스톱워치로 초와 분은 물론, 점핑 아워 디스크를 사용해 12시간까지 하단 창에 표시할 수 있다. 랠리 마스터는 태그호이어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전 세계 800피스 한정 생산한다.

가격 미정 문의 태그호이어 (02-548-6020~1)



노예 계약서에
싸인하는
에디터



키크조자섬이 이렇게
생겼다고?

1 M'c 프라이드 케어 & 워시
100mL 가격 16,000원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손에 양보하세요

한번 써보면 멈출 수 없는 것이 '프링글스'뿐만은 아니더라.



BY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FILM 조용재 DESIGN 전은경
COOPERATIONS 벨도씨(080-334-3780) 소류스킨(1899-4877)



1. M'c 프라이드 케어&워시

100mL 가격 16,000원

디자인: 세련된 폰트로 'PRIDE&WASH'라고 적혀 있어서 외국인 세안제 쓰는 걸나가는 오빠로 비춰질 확률이 높다. 한손에 쥐고 사용하기 적합한 사이즈 또한 강점.

상쾌도: 캐머마일과 멘톨이 들어 있지만 청량감은 평이한 편이다. 단 무스타임이라 사용감이 부드러운 샤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응?

냄새: 향 지속력과 강도가 세진 않지만, 은은하게 잔향이 남는다.

제 점수는요... ★★★ 가격대성능비가 뛰어나다.

2. M'c 프라이드 케어&미스트

80mL 가격 16,000원

들어는 보셨나, '육봉 미스트' 샤워 후 존슨 주변에 도포하면 그 주변에 쉴드가 생겨 주변 자극과 불쾌한 냄새를 억제한다. 하지만 도포 후, 팬티에 한약 옆지른 듯한 냄새가 나니 참고하시길.

3. 코코하이 맨즈플라워

120mL 가격 30,000원

디자인: '男'자가 제품에 크게 각인되어 있어 책상 한쪽에 뒀다간 뭔가 '섹'스러운 제품을 몸에 처바르는 발기스러운 남자로 오인 받기 십상이다.

상쾌도: 거품량과 청량감이 적어 "시발, 닦이고는 있는 거야?"하는 의구심이 든다.

냄새: 맨즈플라워라길래 뭔가 묘한 향기가 날 줄 알았다만 그저 무취.

제 점수는요... ★★ 이토록 무성의한 '남자의 꽃'은 누굴 위한 꽃인가요.

4. 메디케어 인티메이트 워치 포 맨

250mL 가격 35,000원

디자인: '의약품'스러운 디자인과 문구 덕분에 사타구니가 껌질째 소독될 것 같다.

상쾌도: 천연 성분만을 사용해서 그런지 청량감이 떨어지고 세정 후, 존슨이 끈적거려 영 꺼림칙하다.

냄새: 정제 모를 과일향이 약하게 난다. 다행히 향의 지속력은 짧은 편이다.

제 점수는요... ★ 세정 후 잔여감과 끈적임이 불쾌하다. 우린 청량 공휴를 원했다고!

5. 소우스킨 쏘 클린 클렌저

120mL 가격 33,000원

디자인: 심플한 레트로 디자인과 '스킨'이라는 브랜드명 덕분에 남성 청결제임을 숨기기에 안성맞춤. 무광 처리해 샤워 중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는다.

상쾌도: 육봉이 대폭발할 것 같은 상쾌함은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효과 덕분이다. 육봉에 입이 달렸다면 이 청량한 청결제를 병째 들고 들어마셨을지도...

냄새: 마치 존슨이 포카리스웨트 촬영지인 그리스 산토리니를 거니는 느낌이랄까. 처음엔 에탄올 향이 강하게 풍기지만 이내 사라지고 시원한 향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제 점수는요... ★★★★★ 당장이라도 육봉이 사자로 빙의해 포효할 것 같은 거친 쿨링감이 특징이다. 호랑이 연고에 버금 갈 최대의 SO COOL ITEM.

김조자섬
MAKING
FILM



빠진 놈들의 위장크림

물론 제품이 좋다고
재입대할 건 아니지?

BY 조용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MODEL 엄상미
HAIR&MAKEUP 이현정
COOPERATIONS 보닌(02-563-5143),
더페이스샵(02-541-0023),
스킨푸드(080-012-7878),
토니모리(080-356-2222),
조군샵(1599-3120),
게스 언더웨어(02-514-9006)

보면 쓰고
싶어질걸?



더페이스샵 네오 클래식 올드 그루밍 카모크림

용량 18g 8,000원

발림 ★★★ 제거 ★★★

올리브 · 포도씨 · 코코넛 오일로 3색을 만들었다. 일반 군용 위장크림보다 발색은 좋되, 피부에 착색되지 않아 물티슈로도 쉽게 지워진다. 다만 엄마 화장품 냄새가 역할 수도 있다. 투명한 케이스 내의 속지 교체 가능한 점은 군 장병을 위한 진정한 신의 한수. 누나 사진이랍시고 인터넷 얼짱 사진 아무거나 받아서 넣어두면 된다. 군 생활이 피었네~ 피었네~



보닌 스타일 피니셔 위장크림

용량 13.5g

폼 클렌저, 시트스킨 포함 세트 20,000원

발림 ★★★★★ 제거 ★★

블랙, 브라운, 그린의 3색이 각각 블랙베리, 오트밀, 알로에베라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오랜 시간 위장크림을 바르고 있어도 피부에 부담이 없다. 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사용감이 부드러워 토스트 같은 얼굴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바르는 것 같다. 사용감이 촉촉해서 피부에 손쉽게 발리고 색도 선명하다. 위장크림 하나만 살 수 없어서 가격이 비싼 게 아쉽다.



토니모리 덴다가이 퍼펙트 위장크림

용량 18g 8,000원

발림 ★★★ 제거 ★★

위장크림 주제에 3H이라는 획기적인 보너스를 제공한다. 흰색 크림이 추가되어 흑시 있을지 모르는 설상 훈련에서도 쓸 수 있다(눈 안 치우고 훈련이러니? 애 신난다). 알로에, 쌀겨, 숲, 홍삼 추출물이라는 다양한 성분이 담긴 이 위장크림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발색도 그럭저럭 괜찮다. 하지만 정말 딱칠 정도로 케이스가 안 열린다. 열다가 손톱이 빠진다면 피를 철철 흘리며 군의관을 찾아가 훈련 열의를 받을 수 있다. 애 신난다!



조군샵 카모플라주 크림

용량 13g 8,000원

발림 ★★★★★ 제거 ★★★★★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편백나무 잎, 녹차, 알로에베라 추출물과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 이게 위장크림인지 보습 크림인지 헷갈릴 정도다. 밀크 초콜릿처럼 손 위에서 사르르 녹는 크림이 어찌나 아릇해 위장하다가 눈을 감고 손가락을 빨 것만 같다. 향이 없어 타 제품에서 나는 역한 엄마 화장품 냄새나 시큼한 과일 향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많이 쓰는 색 위주로 비율을 다르게 구성한 세심한 배려까지 너 맘에 든다!



스킨푸드 수박 줄무늬 위장크림

용량 15g 8,000원

발림 ★★ 제거 ★★★★★

최근 훈남 일반인 2명을 CF에 노출시켜, 사병에 대한 여성들의 외모 기대치를 높여놓은 역적 스킨푸드의 문제작. 수분 공급과 피부 진정에 좋은 수박 추출물을 함유했다. 수박 향까지 담았으면 좋으려만 아쉽게도 달달한 크레파스 향이 난다. 그래서인지 발림도 일관성 있게 크레파스를 바르는 것처럼 뽀뽀하다. 하지만 다른 제품보다 갈끔하게 지워진다.



WATCH NEWS

올 블랙으로 올길! 헬다이버 SB2C-3001BK

멋을 내기 힘든 혹한의 겨울, 동풍한 파카 밖으로 살짝 나온 강렬한 시계 아이템 하나로 패션 리더가 되어보자. 헬다이버에서 올 블랙과 블루의 대비 효과를 이용한 SB2C-3001BK 모델을 선보인다. 베젤과 스트랩은 강렬한 검은색으로, 글라스는 헬다이버의 고유 색상인 청량한 파란색으로 꾸며 남성다움을 극대화했다. 또 개방형의 독특한 옹두와 로고 각인, 장식을 부착해 멋을 더했다. 올겨울 가격 대비 최고의 패션 아이템인 헬다이버를 만나보자.

가격 289,000원

문의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이탈리아 명품 워치, 모스키노 한국 론칭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모스키노의 워치 라인이 한국에 상륙한다. 모스키노 워치는 모스키노 특유의 러블리함과 큐티함, 모던한 디자인 밸런스가 매력적이다. 모스키노는 한국 론칭을 기념해 여성용 모스키노 스카프 라인을 출시한다. 스카프 밴드를 가죽 밴드와 교체할 수 있어 실용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니 여자친구 선물로 나쁘지 않다.

가격 20만 원~30만 원대

문의 성원(02-3445-4603)



여친의 손목에 사랑의 족쇄를 채우자!

밀튼 스텔리 MS-081G

이탈리아 워치 브랜드 밀튼 스텔리(Milton Stelle)가 여친을 위한 앙증맞은 시계 MS-081G를 선보인다. 자개 소재의 문자판과 소가죽 재질의 스트랩을 사용해 클래식하게 디자인하고 글라스 커팅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멋까지 잡았다. 보이지 않는 밴드 뒷부분까지도 앞부분과 다른 색으로 제작하는 세심함이 엿보인다. 요조조모 완벽한 이 모델의 가격이 고작 10만 원대 초반. 주머니는 가벼운데 여친에게 선물은 하고 싶다면 밀튼 스텔리에 주목하라.

가격 124,000원

문의 GLOBAL TIME(02-778-1590, www.miltonstelle.com)



와이어드(WIRED) 워치, 세이코의 아성을 잇다.

세이코 시계의 공식 수입원 삼정시계에서 패션 워치 브랜드 와이어드를 국내에 론칭한다. 와이어드는 일본의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과 문화를 녹인 스타일 워치 브랜드. 하늘과 바다를 콘셉트로 한 '더 블루' 라인을 비롯해, '뉴 스탠다드', '투 페이스' 등의 패션 워치 라인과, 귀엽고 아기자기 여성 라인 '스위트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스타일과 기능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차세대 패션 워치로 아웃도어, 캠퍼스 룩 등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가격 36만 원(더 블루 AV6005 모델)

문의 삼정시계(02-511-3182)



찬란한 은빛, 브라운 실버 메쉬 밴드 커플시계

첫눈이 기다려지는 연인들을 위해 독일 워치 명가 브라운에서 커플 시계를 제안한다. 화이트 문자판의 원형 프레임에 1분 단위로 촘촘히 표시된 인덱스를 넣어 클래식한 멋을 더했다. 일반 메탈 시계보다 가벼운 밴드 인 실버 메쉬 밴드를 채택해, 찬란한 은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백지영의 연인으로 유명한 정석원이 같은 모델의 블랙 색상을 착용해 화제가 됐으니 페르몬보다 강렬한 유혹의 아이템으로 입증.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필수 워치로 추천한다.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

(02-3397-7100, www.eurotime.kr)



커플 시계도 완벽하게!

자스페로 PERFETTO 커플 워치

총 48피스 슈퍼 루미노스 코팅 도트를 장인이 하나하나 세팅한, 그야말로 명품 PERFETTO 라인에서 커플 워치 MG201-03.LC, MG201-73.LC를 출시한다. 로즈 골드 베젤을 사용해 귀족적인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윗 초콜릿' 색상의 가죽 스트랩은 로즈 골드와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룬다. 가죽 스트랩은 메탈 밴드로 교체가 가능하니, 겨울이 끝나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다. 올겨울, 그녀를 확실히 잡아줄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

가격 67만 원(남성용), 38만 원(여성용)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STYLE NEWS



닥스(DAKS), 앵커(ANCHOR) 백으로 품격을 높여라.

영국 감성의 아이콘 닥스 액세서리에서 정장뿐 아니라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앵커 백 라인을 선보인다. 닥스의 고유 컬러를 삼선 스트라이프로 넣어 브랜드 특유의 개성을 살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했다. 부드러운 소가죽의 바탕 소재와 자카드 소재를 매칭해 캐주얼함도 더했다. 앵커 백 라인은 토트백뿐 아니라 백팩과 크로스백으로도 출시되니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 좀 끌겠다.

문의 LG패션샵(www.lgfashionshop.com)



샤빌(Chaville)의 커플 속옷으로 크리스마스를 로맨틱하게~!

샤빌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아찔한 컬러의 커플 속옷을 선보인다.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레드, 매혹적인 블랙, 독특한 올리브 컬러로 때로는 섹시하게 또는 요염하게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신이 뜨뜻미지근한 연애 중이라면 샤빌 라제리를 입는 것만으로 눈에서 하트가 뿜뿜 튀어나올지도. 이번 크리스마스엔 여친에게 강렬한 레드 컬러의 라제리를 입혀 섹시한 산타로 변신시키자. 제품은 전국 트리아웃 오렌지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쌍방울(02-3485-6130~1, www.sbw.co.kr)



데님 트렌드를 이끌 트루릴리전의 배드랜즈(Badlands)컬렉션

섹시한 핏감으로 유명한 트루릴리전을 사랑하는 남성들이, 올겨울 트루릴리전에서 배드랜즈(Badlands)컬렉션을 선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컬렉션은 데님 위에 가죽 코팅을 더해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문지르듯 툰 다운 된 채도의 재킷이 세련된 멋을 연출한다. 블랙과 브라운 컬러로 선보이니 감각적인 코디를 원한다면 트루릴리전 배드랜즈 컬렉션을 선택하자. 세련된 데님 재킷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문의 트루릴리전(02-3446-5510)



시스템 옴므, 투톤 가죽 백팩 출시!

시스템 옴므에서 2012년 겨울철을 맞아 투톤 가죽 백팩을 출시했다. 소가죽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멋을 더했다. 특히 포켓 부분의 가죽 소재와 보디 컬러로 포인트를 준 나일론 소재가 멋진 조화를 이룬다. 넉넉한 포켓 사이즈로 수납이 용이한 것도 특징. 네이비와 오렌지 중 선택 가능하며 시스템 옴므 매장과 멀티숍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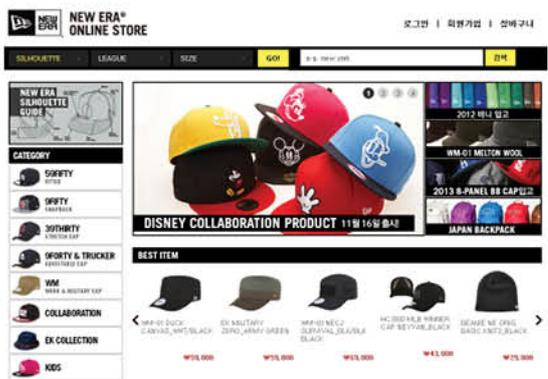
문의 ㈜한섬 온라인쇼핑몰
(www.bestbrandbag.com)

에비수(EVISU) 덕다운 점퍼로 겨울철 커플 룩 완성

에비수에서 오리 가슴 털과 깃털을 8:2 비율로 넣어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슬림한 덕다운 점퍼를 출시한다. 고급스러운 색상 배합과 와펜 라벨링으로 캐주얼한 스타일을 살렸다. 또 시간당 무려 10,000mm의 비가 쏟아져도 끄떡 없는 방수력을 갖춰,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하다. 와인과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출시해 커플룩으로도 제격이다. 겨울에 연인과 함께하는 스키장 여행이나 산행을 꿈꾼다면 구매를 서두르자.

가격 298,000원

문의 ㈜월비통상(www.evisujeans.co.kr)



뉴에라 코리아, 온라인 스토어로 한발 더 가까워진다.

뉴에라 코리아(NEW ERA KOREA)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했다. 2012년 F/W 신제품과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뉴에라의 다양한 실루엣을 만날 수 있어 고객의 반응이 뜨겁다. 또 홈페이지에 실루엣 가이드와 뉴에라 모자 사이즈 측정법을 자세히 소개해 뉴에라 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뉴에라의 정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구매하자.

문의 뉴에라 코리아(02-547-5950, www.neweracapkorea.com)



MAXIM
과월호
충알 배송!
(충알을 드리진 않아요)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 레피렐리 / 강용석 11월 2012. 11

이약스 케이프 타운 FC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카가와 신지가 공을 차고 있다.



맨유에선 아무나 뛰나?

박지성을 대체하던 카가와, 맨유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BY 김덕중 기자(엑스포츠뉴스) IMAGES 엑스포츠뉴스, Getty Images
DESIGN 신숙희



버퍼링 중인 일본 축구의 자존심

일본 축구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선수가 있으니, 이제 겨우 20대 초반인 카가와 신지다. 그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며 소속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게다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마치 젊은 날의 박지성을 보는 듯하다. 때마침 맨유에서 뛰던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기에 국내 팬들은 아쉬움에 목이 맨다. 어디서 굴러먹던 방사능 원숭이가 지성의 자리를 넘겼는지 참으로 괴상하다. 반면 일본의 반응은 가관이였다. 박지성이 떠나고 카가와가 맨유에 입성하자, 많은 일본 팬이 '아시아 최고' 타이틀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어쩌랴. 카가와와 호환성이 영 시원치 않다. 카가와가 맨유에서 현재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퍼거슨의 두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잘나갔는데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가가와의 활약은 대단했다. 리그 29경기에 출전해 13골 8도움을 올렸다. 리그뿐 아니라 최고급 플레이어들이 넘쳐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할 정도로 팀의 중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분데스리가 측은 전반기

MVP로 카가와를 꼽았고,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화려한 성적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 카가와가 도르트문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선수와 구단의 찰떡궁합이었다. 도르트문트 4-2-3-1 전형의 2선 공격수로 뛰었던 카가와와 팀 전술의 핵심을 맡았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방향 자체가 측면보다는 가운데로 집중되는 편이었고, 카가와를 정점으로 해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짧은 원터치 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또 카가와와 루카스 바리오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 도르트문트의 다른 공격수들과 치고 빠지는 식의 직선적 움직임을 선보이며 쇼핑 나온 여친처럼 신나서 득점을 건져 올렸다. 사실 분데스리가 클럽의 수비 압박이 험악했기에 가가와의 '피지컬' 열세보다는, '스피드' 강세가 더욱 돋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가가와의 지난 시즌 무려 아홉 차례나 독일 분데스리가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독일 축구와 죽이 잘 맞았다. 독일에 진출한 여러 일본 선수 중 가장 끝내주는 아이콘이었고, 심지어 일부 현지 매체에서는 카가와를 시즌 MVP로 예측했다.

카가와, 맨유로 이적하다

지난 시즌 카가와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일본 팬들을 지리게 만들었다. 일본 언론은 카가와를 헤드라인으로 뽑으며 그가 아시아 최초로 빅 리그 MVP 선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남발했다. 게다가



축구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맨유 선수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박지성과는 달리, 카가와 신지는 동료 선수들과 좀처럼 융화되지 못한다고 한다.



가 빅 클럽에서 박지성을 대체할 유일한 동양 선수라는 설레발 자위질에 신문지가 축축할 지경이었다. 실제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카가와와의 영입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맨유 입성은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유럽 축구의 여름 이적 시장은 희귀 아동을 내려받은 고딩처럼 흥분으로 가득 찼다. 카가와와 맨유 입성이 확정된 직후 박지성이 맨유를 떠난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박지성의 새 클럽은 리그 중하위권 팀이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였다. 맨유에 비하면 아래저레 아쉬운 클럽이다. 웃기는 사실은 이 시기 카가와와 박지성 사이에 놓고, 두 나라 사람들이 전혀 판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카가와가 시즌 내내 맨유 벤치에서 멍때리고 있을 거라는 여론이 대세였다. 카가와와 맨유 입성 자체가 '뽀록'이라는 여론도 많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차분히 사실 관계만 전한 일본 매체가 있는 반면, 카가와와 X구멍을 빼느라 정신없는 매체도 많았다. 이들의 보도는 한결같이 박지성은 '지는 해', 카가와와 '뜨는 해'라는 식이었다. 나아가 박지성과 카가와와의 현 상황을 대입하며 한국에 비해 일본 축구가 우월하다고 떠벌리기도 했다. "카가와가 맨유에서 박지성을 대체한다"라는 문구는 빠지지 않고 보도됐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포털 사이트에도 전해졌다.

아이튠즈 카가와와 윈도에서 돌리다

기록상으로는 아직 봐줄 만하다. 11월 8일을 기준으로, 카가와와 맨유에서 리그 6경기에 출장해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도 2경기에 출장해 2도움을 올렸다. 여전히 쓸 만한 선수다. 그런데 카가와를 향한 평가가 아박하다. 이제 시즌 초반이지만 현지에서는 '질못 뽑았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먼저 카가와 본인이 문제다. 맨유는 도르트문트와 달리 측면 성향이 강하며 좌우 폭을 넓게 활용하는 팀이다. 카가와가 포진하는 4-2-3-1 전형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정교한 패스 능력이 없다면 그가 활약 기회 줄어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보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짙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스피드' 강세만 극대화하면 됐으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와 함께 '피지컬' 열세도

보완해야 한다. 거친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에서 버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카가와와 맨유 이적 후 유난히 백패스가 늘었다. 몸싸움이 약하고 중장거리 패싱력이 떨어지다 보니 창의적 플레이가 사라졌다. 게다가 두 가지 걸림돌까지 생겼다. 카가와가 맨유에 이적했을 때만 해도 공격진 경쟁은 해볼 만했다. 그러나 맨유는 이후 로빈 판 페르시를 영입했다. 카가와와 '짹'이 안 되는 상대다. 두 번째는 퍼거슨 감독이 웨인 루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했다는 점이다. 카가와를 못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도 공격수로 뛰었던 루니가 새 포지션에 적응하지 못하면 카가와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어찌랴. 루니 같은 사기 캐릭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이미 완벽하다.

변하지 못하면 나가자

카가와와 주목하고 있는 일본 매체는 최근 상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 아직 부정적인 전망은 드물다. 다만 등 부상에 이어 무릎 부상까지 겹치며 그가 맨유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감출 수 없나 보다. 어쩌면 이는 당연하다. 박지성도 마찬가지였다. 맨유는 원래 그런 팀이니까. 다만 카가와와 약점을 고치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발전 모델이다. 아직 그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도르트문트처럼 자신의 스타일과 팀 성향이 맞으면 관찰겠지만, 안 그러면 적응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카가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전력 외 선수로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맨유 같은 빅 클럽은 새로 온 선수가 제 실력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만큼 너그럽지 않다.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열쇠는 카가와가 쥐고 있다. 



카가와 신지가 루니 대신에 들어 가는 힘들지 않을까?

맨유의 애인들 TOP3 축구선수 여친이 갑일세!

1위 톱 클레버리의 전 여친

에밀리 오하라

에밀리 오하라는 올해 24세의 웨딩플래너 출신 영국 모델로 2011년 <The SUN>이 선정한 10대 섹시 축구선수 여친에 선정됐다. 이런 여친을 버리고 올해 3월에 부동산 개발업자 겸 리얼리티 쇼 출연자인 조지나 도르셋으로 갈아탄 클레버리. 몸매보다는 집이라는 건가?



2위 웨인 루니의 마늘

콜린 맥러플린

루니의 소꿉친구 맥러플린. 어렸을 적에는 똥동했지만 천 자기백할 다이어트를 통해 패션 아이콘으로 변신했다. 의류디자이너로 초특급 명성을 쌓았으며, 자서전과 다이어트 비디오파 팔아 모은 돈 또한 엄청 나다. 아무거나 걸쳐도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뽐내서 '신데렐라 콜린'으로 불리는 루니의 마누라. 역시 동등한 여자는 글자없는 복권이라더니...



3위 루이스 나니의 약혼녀

다니엘라 마르티스

나니와 그의 29세 포르투갈인 여자친구 마르티스가 지난 4년간의 열애 끝에 올해 4월 약혼을 발표했다. 2008년 파티에서 처음 만난 이 커플은 작년 맨유 우승 축하 파티에 나란히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얼마 전에는 나니가 여친에게 자신의 2억 7천만 원짜리 람보르기니 가야도르를 빌려주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아, 나니랑 사귀고 싶다.



카가와 신지의 여자친구(?)

이치노세 아메리

나이 26,

키 167, E컵,

최근 카가와 신지의 여자친구로 기사에서 떠올려진 일본 유명 AV 배우 이치노세 아메리. 이 소문은 헛소문으로 밝혀졌다. 후지타비의 유명 리포터 겸 모델인 매가와 카가와 신지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이, 동양인의 얼굴을 구별 못해 이치노세 아메리로 착각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보르도 메독 와인 일주일 벼락치기

오늘의 목표: 와인 개뿔도 모르지만 그럴듯하게 말하기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COOPERATIONS 메독와인협회, 소픽사

샤토
라스공브의
유령



“와! 견고하다.

카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이 높은 와인인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왔을 때 주변 친구들의 입에서 야유 섞인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막걸리의 제조법이나 맥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단지 오지랖이 넓은 농일 뿐이지만 유독 와인만은 샤토 이름 하나만 알고 있어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지난달 프랑스 보르도 메독 와인 협회의 초대를 받고 일주일간 와인 투어를 다녀온 후 나에 대한 친구들의 대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디서 술 처먹고 순댓국 먹고 싶을 때만 연락하던 지주배들이 고급 와인 바에 불러 와인 리스트를 읽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나도 개뿔 모른다. 와인 일주일 공부하고 와인 몇 잔 마셔봤다고 뭘 알겠는가? 하지만 알은 지식과 단어 몇 개를 합치는 것만으로 당신도 소주 땡기는 동네 오빠가 아니라 의지하고 싶은 멋진 오빠가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와인은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맛좋은 음료일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부와 교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로 와인도 아니고 세계 최고급 와인으로 이름 높은 보르도 메독 지방의 와인을 능숙하게 주문하고 사용하는 당신의 모습에 여자들이 훌쩍 넘어올 것은 뭐 볼 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

메독 와인의 등급제도

황제의 등급 그랑, 크뤼 클라세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된 역사 깊은 메독 지방의 포도밭 등급 기준. 각 샤토의 토질, 지명도를 감안해 500여 샤토 중에서 우수한 58샤토(현재는 61샤토)를 뽑아 5등급으로 나눴다. 이 등급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와 품격을 갖는다. 즉 믿고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만.



이렇게 말해 봅시다 1

웃긴 건 등급 샤토에서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와인을 생산해도 등급은 그대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샤토 마고 말고 딴 거 마시자.

이렇게 말해 봅시다 2

그 유명한 샤토 마고도 경영이 일신되기 전인 1960~70년대 와인엔 퀄리티가 형편없었다고 해. 1977년산부터 예전 명성을 되찾았지. 그러니까 샤토 마고 말고 딴 거 시켜줄게.

메독 와인의 특정한 허리, 크뤼 부르주아

1855년 박람회 이후에 새로 생긴 와인이거나, 박람회 개최 당시 등급 부여에 참여하지 않은 샤토들에게 부여된 등급 제도. 샤토의 명성과 품질이 그랑 크뤼 와인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라 인기가 많다. 2010년부터는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등급 갱신을 하고 있어 더욱 객관적인 등급이 되었다. 여기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아보는 것이 메독 와인을 즐기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일 것이다.

장인의 와인, 크뤼 아티장

3~5헥타르의 작은 포도원을 소유한 샤토들로 '장인의 와인'이라고 불린다. 오너가 직접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만들며, 판매까지 다하는 게 이 카테고리의 특징. 대부분 프랑스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 44개의 샤토가 가입되어 있다.



• 와인 라벨 읽는 법 •

샤토 마고 - 와이너리 이름

샤토란? 프랑스어로 성(城). 와인에서는 양조장을 뜻한다. 실제 성 같은 건축물도 있지만 마구간인가 싶을 정도로 허름한 규모의 샤토도 많다. 부르고뉴 지방에선 '도멘'이라는 단어를 쓴다.

밀레짐, 빈티지 - 생산 연도

1996년에 생산된 와인을 1996년 밀레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내 아들이 태어난 바로 그 해의 밀레짐을 구입해서 그가 성년이 되는 날 함께 마시는 게 꿈이야.



그랑 크뤼 클라세

- 와인의 등급

그랑 크뤼는 특급 포도밭이란 뜻

마고 - 생산 지역

메독의 남쪽, 오 메독이라 불리는 지구에는 뛰어난 등급의 샤토가 집중되어 있다. 국가가 지정한 6개의 샤토 마을은 마을 별로 토양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매력의 와인이 탄생한다는 점이 재미 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생산 지역 표기는 오로지 적포도주에만 해당돼. 백포도주는 무조건 그냥 '보르도 산'이라고만 표기되지.

와인 맛을 간지나게 표현해보자

향기는 와인의 특권

틀립 모양의 글라스에 적당량을 따르고 코를 갖다 대고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다. 와인이 공기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게 글라스를 돌려서 흔든 다음 향을 맡는다. 처음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돌리지만 익숙해지면 공중에서 돌려도 된다. 와인이 열린 정도(산소와 접촉한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 봅시다

처음 향을 맡았을 때 인상을 팍 쓰거나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뒤, 글라스를 흔든 다음에는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다.

향의 종류와 표현

와인의 향은 크게 아로마와 부케로 나뉜다. 아로마란 포도 자체가 가진 향과 발효 단계에서 생기는 향이며, 부케는 오크통과 병 속에서 숙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숙성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는 '보졸레누보' 같은 와인에는 아로마는 있지만 부케는 없다.

와인을 마실 때 좋은 표정과 감탄사



간지나는 와인 시음 표현

STEP 1 와인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인 맛들을 알아 봅시다.

신맛: 신맛이 강할수록 탄탄하고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표현

과실맛: 포도가 가진 맛

떫은맛: 적포도주 특유의 맛. 발효 중에 포도껍질과 씨에서 나온 타닌이 떫은맛을 낸다. 숙성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진다.

단맛: 웬만해서는 레드 와인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맛

STEP 2 와인 전문가들이 즐겨쓰는 고급스런 표현을 해봅시다.

단단하다(Tight): 단단한 와인이란 일반적으로 어려서(숙성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시기 어려운 경우를 표현한다. 즉 타닌이나 산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과일 맛을 덮어버리는 경우다. 단단한 와인이 열리고(시간이 지나거나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와인이 '풀린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아직 단단한 느낌이면. 디켄팅을 하거나 병을 한 시간 정도 더 열어 뉘아겠어. 막차가 끊기길 바래서가 아냐.

견고하다(Firm):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시라처럼 풍부한 구조감과 타닌을 지닌 와인을 표현할 때 종종 '견고하다'라고 묘사한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렇게 와인을 마구 다루면 아무리 견고한 보르도 와인이라도 무너져 버린다고, 내 마음처럼.

정교함(Finesse): 밸런스가 좋다. 기품이 있다. 세련됐다 등의 뉘앙스

집중도(Concentration), 밀도, 농도(Density):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 로버트 파커 주니어가 쓰기 시작한 단어. 둘 다 와인이 가진 맛의 강함, 진함을 지칭한다.

질감(Texture): 프랑스의 저명한 양조 컨설턴트 미셸 롤랑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로 입 안에서 느낌의 느낌을 말한다. '매끄럽다', '크림 같다', '얇다', '거칠다' 등이 있다.

STEP 3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골라봅시다.

(1) 클래스 와인이지만 2010년 (2)라 그런지 아직 너무 어린데? 이 떫은맛은 숙성되지 않은 (3) 때문이야. 하지만 (4)의 견고한 스트러처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군. 10년 정도 (5) 시킨다면 훨씬 훌륭한 와인 이 될 것 같아.

각각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 (1) 1. 그랑프리 2. 그랑 크뤼 3. 그랜라간 4. 그라비아
- (2) 1. 미성년자 2. 밀레니엄 3. 밀레짐 4. 밀리터리
- (3) 1. 영계 2. 알코올 3. 노무현 4. 타닌
- (4) 1. 카베르네 소비뇽 2. 카페베네 소콜라 3. 카드캡터 체리 4. 카레이도 스타
- (5) 1. 감금 2. 몰딩 3. 울딩 4. 몰빵

8 (9) 1 (7) 4 (8) 3 (2) 7 (1) 159

메도크 지방
유명 샤토 마을 탐방



>> 오 메도크 AOC

샤토 씨삭(Chateau Cissac) (크뤼 부르주아)
남성적인 건장함, 구조감이 있는 한편 타닌의 섬세함 또한 갖추고 있다.

샤토 씨삭 2008 시음평

물처럼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블루베리 과일향이 허를 조여준다. 타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어린 와인이란 뜻이다. 4~5년 정도 지나면 더 좋은 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샤토 씨삭 홍보 담당자가 추천하는 데이트 메뉴!
오리고기류의 붉은 살 고기와 와인의 궁합은 환상적! 소스 요리나 매운 요리랑은 잘 안 맞는다. 디저트는 무조건 초콜렛! 부드러운 치즈도 좋다.



샤토 라스퐁브 (그랑 크뤼 2등급)

>> 마고 AOC

대표 샤토: 샤토 마고

메도크 와인 마을 중 최대의 재배 면적을 자랑한다. 1급 샤토 마고를 필두로 2급에서 5급까지 총 21개나 되는 등급 샤토가 가득하다. 마고 와인의 특징은 우아한 향, 섬세함, 부드러움.



클릭, 안 샤펀어 마셔와

샤토 오브리퐁 라리고디에르 (크뤼 부르주아)

2008년 시음평

바릭(오크통)에서 영향을 받은 토스트 향과 그릴 향이 풍부하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이 높음에도 아주 부드러워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 마고 마을의 토양덕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해도 너무 터프하지 않은 것.



이 지역에 대해 아는 척 하기

이 지역이 유명해 진 것은 일본에서 (실락원)이 개봉한 이후야. 불륜에 빠진 두 남녀가 엔딩에서 와인에 약을 타마시고 자살하는데 그 때 마신 와인이 바로 '샤토 마고'지. 이후 샤토 마고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



가랄 마지막인데 비싼걸로...

메도크 8개의 아베빌과 와인



>> 포아악(Pauillac) AOC

대표 샤토: 샤토 라펠트 로실드, 샤토 무통 로실드, 샤토 라투르

메도크 5대 샤토 중 무려 3개가 포진되어 있는 최고의 와인 마을. 까베르네 소비뇽의 블렌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샤토 무통 로실드의 경우 80% 이상. 덕분에 농밀한 풀 보디, 기품 있는 카시스 향, 매혹적인 서양 삼나무의 아로마, 장기간 숙성할 수 있는 골격을 갖춘, 실로 보르도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와인을 만든다.



샤토 린치 바주 (그랑 크뤼 5등급)

5등급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에 상회하는 평가와 대우를 받는다. 가난한 자의 샤토 무통 로실드라고 불린다. 결국에 진실된 등급을 주는 사람은 소비자란 뜻!

>> 생테스테프(Saint-Estephe) AOC

샤토 라 페르 (크뤼 아르티장)

등급 샤토가 5개 밖에 없어서 가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오 메도크 중 가장 북쪽이며 토양은 모래가 적고, 점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신맛과 타닌이 강하고 풀 보디(감칠맛이 있다)에 장기 숙성형으로 강건한 느낌의 와인이 된다.



저한텐 조금 시던데요



>> 생줄리앙(Sain-Julien) AOC

1급 샤토가 없어 화려하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등급 샤토의 비율이 45%(포도밭 비율로 따지면 80%) 정도로 무척 높다. 주목도가 낮고 실력이 과소 평가되어 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격 이상으로 품질이 좋다는 뜻.

샤토 레오빌 푸아페레 (그랑 크뤼 2등급)

레오빌 가문의 막내에 해당하지만 최근 형제들을 능가하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명성을 올려가고 있다. 생줄리앙에서 가장 유명한 레오빌 라스-카즈와 비교한다면 라스 카즈가 구조감이 강하고 스트레이트한 와인이라고 한다면 푸아페레는 좀 더 둥글고 편안하다. 메를로를 적어도 30%는 넣기 때문이다.

물랭 리슈 2006년 세컨드, 6만 5천 원 정도

가장 성공한 세컨드 와인 중 하나.

샤토 레오빌 푸아페레 2003년, 28만 원 선

2003년은 폭염이 심하고 가물었다고 한다. 포도 농사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좀 딱 두 차례 비가 내렸는데 덕분에 전 화위복이 됐다.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야 잎을 피우기 보다는 번식을 위해 포도송이로 최대한 영양분을 실어 보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첫맛은 부드럽고 갈수록 맛이 강해지지만 고급스러운 피니시가 돋보였다. 자꾸만 다시 마시고 싶어지는 와인.



샤토의 오너 디디에씨가 말하는 유혹하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 따야 하는 와인!

1982년과 1990년 밀레짐.



우리 집에서 젤 비싼거지롱~



샤토 레오빌 푸아페레 (그랑 크뤼 2등급)

>> 메독(Medoc) AOC

메독 지구 가장 북쪽에 위치한 메독 마을은 등급 샤토가 없고 경작 규모도 거의 영세 농가에 가까운 소규모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작은 샤토들도 기술을 향상 시켜 크뤼 부르주아급으로 인정받는 샤토들이 증가해 싸고 맛있는 와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샤토 두르 까스티옹

크뤼 부르주아 2008년 시음

우리가 방문한 두르 까스티옹은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다. '와인 인(in) 투 어'는 포도밭 체험과 전통적인 숙소를 제공해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처음에는 그동안 방문했던 화려한 샤토들에 비해 무척 초라한 이 시골 농장에서 만드는 와인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르 까스티옹은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다! 농사꾼 할아버지가 나오는 향토적인 음식이 정겹기도 했거니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주인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으로 전해져왔다. 와인도 결국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천, 지, 인'이라는 와인의 3요소 중 '인'의 역할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11유로도 안 하는 와인이 결국 이번 와인 투어에서 가장 맛있었던 와인이 될 줄이야!

이 지역에 대해 아는 척 하기

이곳은 한 때 바 메독(하류 메독)이라 불렀지만 '질이 낮은'이라는 뜻으로 비취질 수 있어 지금은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해.



내 주먹 보고도 그런 말 나오나 보자

포도의 품종



보르도에 사용되는 포도는 주로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3종류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대표적인 보르도 와인의 원료로 힘이 세고 짙은맛이 있으며 장기숙성형, 메를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고 향이 좋다. 카베르네 프랑은 조숙하고 부드러운 맛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포도를 샤토만의 고유한 비율로 블렌딩하면 와인이 된다.

>> 리스트라크(Listrac)과 몰리스(Moulis)

이 두 마을은 그랑 크뤼 클라시가 하나도 없지만 최근 눈에 띄게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둘 다 힘차고 과실 맛이 풍부한데 몰리스쪽이 보다 장기 숙성형이고 리스트라크는 빨리 마시는 게 좋다.



메독의 여인들

샤토 라 가르, 샤토 뒤벨레시스의 두 여성 오너



샤토 브라나스 그랑무조

멋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설비들을 도입한 모던한 양조장. 언젠가 어머니를 이어 받아 와인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 딸과 함께 우리를 맞이했다.



샤토 폰레오

12세기 영국의 왕이 이곳에서 시원한 샘물로 목을 축였다는 뜻으로 폰레오(왕의 샘물)라고 불린다.



샤토 레스파즈

1870년 나폴레옹 3세 시대의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

Be A Beer Specialist with **COEDO BENIAKA**

오늘밤 그녀를 당신의 먹잇감으로 만들고 싶다면 약간의 알코올은 필수 요소다. 그녀가 관심을 보일 법한 고급 술로 당신의 교양 수준을 어필하라. 하지만 위스키나 보드카는 너무 비싸고 독해서 자칫 당신의 푹푹이마저 잠재할 수 있다. 역시 최고의 선택은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수입 맥주다.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언더웨어 협찬 사발(02-3485-6000)

편집부의
코에도
시음평



맥주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 힘들어도 '그런 척' 이빨을 까기는 쉽다. 이번 달, 당신의 거사를 도와줄 무기는 바로 프리미엄 맥주 '코에도(COEDO)'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외워, 얼른). 크래프트, 가와고에, 베니아카. 크래프트, 가와고에, 베니아카.

크래프트 맥주

상황 1

男: 식사도 했고... 맥주나 한잔 할래?

女: 생맥주?

男: 아니, 오늘은 특별한 거 마시자. 이 근처에 괜찮은 크래프트 맥주를 파는 카페가 있는데 가볼래?
女: 크래프트 맥주가 뭔데?

男: 대형 맥주 공장이 아니라 소규모 맥주 양조장에서 한 해 일정량만 생산하는 맥주를 크래프트 맥주라고 해. 오빠 크래프트만 마시는 편이라 하이트 같은 건 솔직히 못 먹겠더라고.

女: 좋아. 근데 오빠는 참 아는 것도 많다.

가와고에 지방

상황 2

女: 그런데 이 맥주는 어디서 일게 된 거야? 난 오늘 처음 봤어.

男: 지난번 일본 출장 갔을 때미안, 내가 아는 출장은 출장 인마가 전부야.

女: 어디로 갔었어?

男: 가와고에라는 마을인데 도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고, 코에도 양조장이 그 마을에 있어. 가와고에의 옛 지명이 코에도였거든. 거기 바이어가 추천 해주길래 한 번 마셔봤지.

女: 아, 들어본 것 같아.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 2에서 서현이랑 정용화가 갔던 마을 같은데?

男: 그래? 난 TV는 잘 안 봐서... 예도 시대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 실제로 '코에도'가 '작은 예도'라는 뜻이기도 해.

女: 나도 가보고 싶다. 마을이 정말 예뻐던데!

男: 다음에 같이 가보자(그리고 같이 자보자).

코에도 베니아카

상황 3

女: 종류가 너무 많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男: 달콤한 거 좋아하지? 이걸 베니아카라는 맥주인데, 맛이 달달해서 너한테도 관심을 가져볼까(코에도수도 맥주치고 높은 7도라서 빨리 취할 수 있을 거야. 미리 고마워).

女: 베니아카? 무슨 뜻인데?

男: 적홍색이란 뜻이야. 고구마로 만들었거든. 봐봐, 그래서 네 입술처럼 빨갛잖아.

女: 어머, 왜 이래! 느끼하게♡ 고구마로 만든 맥주도 있다니 신기하다.

男: 세계에서 유일한 고구마 맥주야. 고구마도 가와고에 지방의 킨토키 고구마를 사용했고,

女: 그걸로 마셔볼게. 나 고구마 좋아하거든.

男: 응(고구마는 이따가도 마음껏 먹게 해줄게). 

코에도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

홍대 Area

카페 The 끌리는

카페 물의 정원

펍 소소한 술집

일본식 선술집 요리미치

일식집 Chef's Story

카페 아메리

경복궁역 Area

펍 Public

가로수길 Area

이자카야 고노노



HOT STUFF IN DA CLUB

운우지락이 도타운 계절에 암컷을 찾아 클럽을 운운하며 함께하면 참 좋은 물건들.
BY 조종재 DESIGN 전은경

뜨거운 연말은 이곳에서!



1 기선 제압

선배상은 언제나 강력할하게



포르쉐 디자인 선글라스

싸움과 헌팅은 기선 제압이 생명이다. 언밸런스한 형태의 렌즈와 늘씬한 프레임이 어우러진 포르쉐 디자인 선글라스를 착용해보자. 당신의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그녀들의 눈에 강렬하게 박힐 테니까. 무아지경의 사람들과 부딪쳐 떨어져도 프레임이 멀쩡할 정도로 내구성도 뛰어나다. 어둡다고 벗어서는 안 된다. 원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새끼가 용감한 법이고, 용감한 자만이 미녀를 얻는다고 하지 않던가.



에르메스 페르 데르메스 맨

고도의 스니핑으로 그녀를 발견했지만 구릿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면 그녀는 사자를 만난 시슴처럼 당신을 회피하게 될 터. 숨털 보송보송한 당신의 얼굴을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마법의 향수가 필요하다. 에르메스의 우디하고 고급스러운 파우더 향은 당신을 센스 있는 쿨가이로 만들어준다. 당신의 향기에 사로잡힌 그녀가 은은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면 천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2 작업 개시

그녀의 전의를 불태워라

보드카 앵슬루트

한때 스웨덴의 메탈 밴드 코피클라니가 '진짜 남자(the real man!)'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외쳤던 그 술, 보드카다. 물론 마시는 순간 식도가 윙황불에 비명을 지르는 다른 보드카들과 달리 앵슬루트는 도수를 마시기 좋게 낮춰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든 대중적인 보드카다. 맛있고 취하기 좋은 작업용 술을 원한다면 대화수 말고 앵슬루트 보드카를 추천한다. 여긴 포차가 아니잖아?



버니니 스파클링

록 페스티벌 등에서 항상 인기 품목인 캐주얼한 스파클링 '버니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스카토 포도로 가공해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이다. 무드 좀 잡고 아련한 분위기를 한껏 풍기고 싶다면 함께하도록. 단, 남자들끼리 한잔한답시고 남초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다른 방향으로 아련한 분위기가 연출되니 웬만한 작업용 술로만 사용하라.



3 본 게임 돌입

이제 '하면 된다'



후지 리텍스 야광콘돔

한껏 취한 남녀가 서로의 눈빛에 이끌려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왔다. 어두운 곳에서 더듬거리며 어설픈 분위기를 연출하기보다는, 서로의 뜨거운 몸을 비춰줄 후지 리텍스의 야광 콘돔을 뒷주머니에서 꺼내며 외쳐라. "빛이 있으라!"

4 마무리

연기 속에 녹아드는 달콤한 여운

토니노 람보르기니 아이스볼트

한 건 치른 당신은 성취감을 만끽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지만, 평소에 습관처럼 피우던 담배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목 넘김의 토니노 람보르기니의 신상 '토니노 람보르기니 아이스볼트'를 피워보자. 한 모금 들이켜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에 없던 짜릿한 멘솔 향이 당신의 대뇌전두엽을 자극한다. 동시에 샴페인 같은 은은한



향이 온 몸을 휘감는다. 실버 라인을 가미해 세련된 상쾌한 푸른빛의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카페이스)의 알파치노처럼 한 대 물고 있노라면, 주변의 여성들이 당신의 쿨한 모습에 또다시 유혹의 시선을 던질 것이다.

MAXIM 독자들에게 물었다!

멘솔 담배를 고르는 당신의 기준은?



- 1위 목 넘김(48%)
- 2위 멘솔 향(34.8%)
- 3위 패키지 디자인(9.9%)
- 4위 신상 브랜드(7.3%)

→ 역시 술과 담배는 목 넘김이 중요하대 신상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반대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가. 그러니 신상보다는 시리즈로 나오는 편이 어떨까. 예를 들어 'MILDEIGHT'라던가 '디스 플러스 외전 더 어너더 스토리'라던가...



❄❄❄

CHRISTMAS
GIFT FROM
JIMIN

니트 티셔츠 블루페페
검정색 톱 스케처스
구두 알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올해도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전혀 메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솔로들을 위해 배우 곽지민이
산타클로스로 변장해 MAXIM을 찾아왔다.
이거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걸?

BY 김희성 WORDS 조용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HAIR 박민규
MAKEUP 이정연(D&U 02-564-1568)
FILM 최성준
ASSISTANTS 최동희, 박종원
COOPERATIONS 슈즈원(02-3443-1703),
블루페페(080-022-1500),
스케처스(080-023-1020),
룩시(070-4369-5300), 알도(02-551-7003),
샤트렌(02-579-4242), 금상첨화(1544-3896),
프롤가브리엘라(02-462-7775),
제시뉴욕(02-3406-2300),
뽕뽕(031-237-5757),
컨버스(080-854-1004)



곽지민

생년월일: 1985년 2월 13일

이상형: 얼굴은 청순하고

몸은 섹시한 베이글남

주량: 맥주 500cc 두 잔 정도

활동 지역: 집

취미: 동화, 시나리오 등

생각나는 대로 글쓰기



운동화 샤프렌

당신이 온다고 해서 밤새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다. 마음에 드나?

덕분에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촬영했다. 평소에 잘 꾸미지도 않고 사진도 잘 안 찍는데, 내가 언제 또 산타 옷을 입어보겠나?

그나저나 한동안 긴 머리를 고수하다가 숏컷으로 바꿨다. 작품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 의지인가?

그냥 귀찮아서 자른 거다. 마침 어릴 때 찍은 작품을 보다가 숏컷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바로 나가서 잘랐다(웃음).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웨딩스캔들>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다. '호감형 캐릭터의 등장'이라는 호평이 많았다.

그런 반응은 정말 감사하다. 이전에 맡은 배역에 비해 평범하고 공감 가는 캐릭터를 연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솔직히 당신의 포지션과 가장 겹치는 여자 배우는 누구인 것 같나?

어릴 때는 임수정 선배와 배역 경쟁이 많았는데, 좀 지나니 구혜선 언니와 배역이 겹치더라. 나중에는 서우 씨와 부딪히게 되고, 신기한 건 그 세 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다. 그렇지 않아?

현재까지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필모그래피 중 하나를 꼽자면?

모든 작품이 다 중요하다. 사실 아직까지는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할 만한 영화를 꼽기 어렵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을 찍고 싶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화는 무엇일 것 같나?

<사마리아>.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퉁퉁 부은 눈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느낌이 좋더라 포스터가 됐다. 옷 다 입고 찍었는데 안 입은 것처럼 만들어주더라(웃음).

여태까지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다세포스녀> 시리즈를 촬영할 때 여자가 나밖에 없어서 스태프들이 나를 엄청 예뻐했다. 어떤 현장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반대로 <링크>라는 작품은 대본 자체가 난해했다. '말똥가리가 열심히 모래 위에서 일정한 걸음으로 발자국을 내는 것 같은 베드신'이라니(웃음).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모자라나 싶기도 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꼭 찾아 보겠다! 이제까지 맡은 배역을 보면 상당히 쾌활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

워낙 내성적이고 평범한 성격이라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 잘 놀게 생겼지?(웃음) 그냥 주부 같은 생활을 한다. 고등학생인 남동생 깨워서 아침 먹고 학교 보내고...

갑자기 당신이 더 좋아졌다. 남자 연예인에게 대시를 받은 적도 많지?

몇 번 있긴 하다. 남자 배우와 함께 작업할 기회가 딱

히 없어서 자주는 아니다. 민준 오빠처럼 열 살 차이 나는 사람과 작품을 하다 보니 딱히 스캔들이 날 만한 경우는 없었다. 이제는 동년배와 작업 좀 하고 싶다. 어디 그런 배역 안 들어오나?

당신의 화보가 공개될 때마다 '베이글녀'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떤가? 여자들은 말랐다는 말을 더 좋아하지 않나?

살면서 단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다. 젓가락처럼 마른 몸매가 되고 싶다. 여자라면 다들 그럴걸? <웨딩스캔들>을 찍고 나서 스크린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6kg을 감량했다.

영상과 사진 중 본인이 더 예쁘게 나오는 건 어느 쪽인 것 같나?

영상이지. 어쨌든 내가 연기하는 모습이니깐. 사진은 어렵더라. 정지된 화면 안에서 뭔가 보여주려니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긴다. 점점 더 잘 찍고 싶다.

수중촬영한 사진도 봤다.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 폐이는 좀 행겠나?

한 푼도 안 받았다! 그 사진을 찍어준 작가분이 대학 시절에 포스터를 찍어주신 적이 있는데, "너 나한테 빛 졌다"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나를 대형 수족관 앞으로 부르셨다. "너 물에서 잘 놀지?" 하면서, 수심 6m에서 촬영을 하는데, 워낙 물속에서 노는 걸 좋아해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니 저체온증이 와서 죽을 뻔했다.



티셔츠 제시뉴욕
팬츠 록시
구두 슈즈원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서초 뱅뱅
운동화 컨버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그 사진이 공개됐을 당시 반응은 어땠나?

'하의실종'이 유행해 기사의 반절 이상이 하의 실종 이야기만 나오던 때였다. '곽지민! 상하의 실종! 얼마를 받았길래?'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무척 황당했다(웃음). 얼마는 무슨, 찔끔 굶으면서 찍은 거다!

여태까지 가장 뻥센 촬영은 무엇인가?

〈사마리아〉의 엔딩 장면. 한겨울에 강가 근처에 땅을 파더니 나를 묻었다. 내 귀에 헤드폰을 씌워주고, 얼굴에 티슈만 올린 채로 다시 흙을 덮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장면이었다. 영화 속에서는 CD플레이어만 나오더라(웃음). 진짜 시체가 된 느낌이었다. 그 뒤로는 무슨 촬영을 해도 만만하더라고.

크리스마스엔 뭘 할 건가?

기독교라서 보통 교회를 간다. 이브가 되면 아버지가 매년 우리 3남매를 데리고 저녁쯤 명동에 가서 갖고 싶은 걸 한 가지씩 사 주신다. 하지만 가끔은 나도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혹시 동갑내기 남친을 선물로 받는 건 어떤가? 나는 통갑이다.
나이 그런 거 상관없다. 나이 보고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

승낙의 뜻으로 알겠다.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나?

목소리. 남자들이 눈이 예쁜 여자가 좋니 어쩌니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목소리 좋은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 괜히 한 번 더 보고 듣게 되고, 편안하고 자상한 그런 목소리가 좋다.

딱 나네. 에디터는 어떤가?

하하..

남친이 있다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뭐가?

요리? 요리를 잘하는 편이지만 파스타 같은 걸 해서 포장해서 줄 순 없고, 선물을 주려면 우리 집으로 불러야 하는데 부모님이 "넌 누구냐?" 하실 것 같고(웃음).





니트 룬 금상첨화
팬츠 룬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몇 살까지 산타를 믿었나?

다섯 살. 그해 크리스마스엔 진짜 큰 양말을 걸어 두고 미미의 집을 달려며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다음 날 양말에 담겨 있던 건 엄마가 늘 내게 읽으라고 하셨던 책이었다. 그 뒤로 유치원에 오는 산타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산타가 원장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긴 거였다. 수염도 막 뽀뽀더라고(웃음).

올해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만 말해봐라. 다 사줄 수 있다!

차...? 마시는 차 말이다. 영국 왕실에서 마시는 차(웃음). 타는 차가 아니래도!

으흠, 아, 이런, 집에 가서 다도를 즐길 시간이 됐군.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꼭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솔로일 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법이죠. 모두와 함께할 수 있잖아요. 편견을 버립시다! 



물건은 확실한 거지?

청춘 배우 오광록



촬영 내내 그가 내뱉은 말을 모으면 시집 한 권은 될 거다.
반세기를 살아온 중년 배우 오광록은 아직도 사춘기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박종원, 박수현 FILM 최성준 HAIR&MAKEUP 신지훈 DESIGN 서윤정

슈트 차이크
셔츠, 스카프 에디터 소장품
선글라스 폴리스

“
느린 말투 때문에
통화비가 많이 나온다
”



COOPERATIONS s+by 트루젠(02-3456-8392) 지미트(02-3274-5314) 에르메네집도 제나 by사원ITC(02-3218-8310) 폴리스 by사원ITC(02-3218-8310) 게스 워치(02-551-7045) 루이비통세(02-2190-5530)

슈트 s+by 트루젠
셔츠 타이 에디터 소장플
시계 게스 워치
선글라스 에르메네집도 제나

텃밭 가꾸기가 취미라고 들었다. 올해 수확은 어떤가?
 텃밭을 가꾼 지 12년쯤 됐다. 올해 모종을 좀 늦게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배추가 꼭 차 있지 않더라. 대체 가을은 어디 간 거지?

열여섯 살부터 시를 썼다는데, 여전히 시를 쓰고 있나?
 그냥 끼적이는 정도다. '영혼의 스케치'라고나 할까.

비가 오면 결석하고 기차 여행을 떠나던 감성과 불량 고3이었다는데 사실인가?

불량은 빠자. 고3 때 아침에 비가 오면 좋아하는 시집 한 권과 습작 노트를 가지고 경춘선을 탔다. 그날 꽃히는 기차역에 가서 장대비를 맞았다. 나중에 생활지표를 받으니까 34일을 결석했더라.

혹시 지금 짧은 시를 지어 줄 수 있나? '맥심짱'으로 삼행시는 어떤가?

맥: 맥 빠지고

삼: 심심하고

짱: 짱날 때 봐. MAXIM.

인터뷰 도중 소름이 돋은 건 처음이다. 특유의 느린 말투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말투 때문에 살면서 손해 본 적 있나?

주변 사람들이 통화하면서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근데 난 그것보다는 영화에서 하도 말을 느리게 하니까 빠르게 대사할 줄 모르는 배우라는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아 별로다.

20여 년의 연극배우 생활 끝에 영화에 진출했다. 원래 영화배우가 꿈이었다?

어렸을 때는 시인이 되거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 시를 전공하고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무대를 향한 동경이 생기더라. 우연하게 배우를 시작했는데, 그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 영화에서 뮤지션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실제 악기를 다루는 재능은 어떤가?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는 영화를 위해 두 달 정도 기타를 배웠다. 연극을 할 때는 하모니카를 하기도 했고, 아, 팽과리는 오랫동안 배웠다. 굳이 잘하는 한 가지를 꼽자면 캐스터네츠 정도?(웃음)

혹시 친한 베드신에는 관심이 없나? 특별히 원하는 상대 배우가 있나?

1996년에 첫 영화를 찍을 때 베드신이 있었다. 상대가 심지연이라는 배우였는데, 그 뒤로 배우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베드신은 정말 너무 낮간

지러운 일이라 함부로 말하기가 뻘하다. 굳이 베드신을 하고 싶은 배우를 꼽자면 아네트 베닝 정도가 되겠다.(웃음)

류승범 씨와 절친이라고 들었다. <풍행제로>에 나온 류승범 특유의 절렁한 양아치 배역을 맡는다면 소화할 수 있겠나?

당연하다. <태왕사신기>나 단편영화 <요구르트 아줌마>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를 맡기도 했는데 양아치 연기도 재밌을 것 같다. <잠복근무> 보스 역할처럼 그동안 강렬한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무거운 이미지의 배우가 된 것 같아서 고정관념을 한번 깨고 싶다.

'이건 정말 랜탕은 배역이다.' 싶은 작품이 있나?

<복수는 나의 것>에서 짧지만 강렬했던 무정부주의자 역할의 사내2.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기차길 옆 벤치에 누워 있는 노숙자. 노숙자 역할은 바람이 머리에 묻어 있는 듯 자유로워서 좋았다.

아들이 배우를 한다고 하면 반대할 건가?

당연히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겠지. 내 아들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라서 열심히 작사 작곡하고 좋은 뮤지션이 되기 위해 갈고 닦는 중이다. 아마 배우 할 생각이 없을걸?

<태왕사신기>에서 '보자기 현고'로 당시 네티즌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자신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그때 표정 아주 귀엽지 않던가? 캐릭터가 천진무구하니까, 내 마음도 디즈니랜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캐릭터가 귀여우면 나도 귀여워질 수 있다.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 목소리라고 생각할 거다. 특히 여성들은 목소리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난 좋은 눈빛을 꼽고 싶다. 남편도 친구도 눈빛이 잘 맞아야 통하니까.

유해진, 오달수 씨와 같이 CF를 찍었다. 세 사람 중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리 뭉텅도 3위 안에는 들겠지? 그때 내가 슈트를 입었는데, 감독님이 슈트가 참 잘 어울린다고 했다. 아니 뭐,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감독님이 말한 거다.

세 사람 다 공항 검색대나 불심검문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력을 지녔다.

20대 때는 돌아다니기도 어려웠다. 당시 삼청동에 살았는데, 1980년에는 검문이 한창 심했고, 삼청동에 청와대가 있으니까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했다.

그래서 한 번 보면 당신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다.

작년에 베를린 영화제 때문에 독일 베희시장을 갔는데, 그때 알아보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 <올드 보이>가 유럽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긴 했나 보다.

촬영할 때, 에디터와 함께 스타일링을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

물론이다. 쇼핑을 즐겨 하는 건 아니지만 패션 관련 채널을 즐겨 본다. 패션에는 무의식이 묻어 있어서 그게 참 좋다.

본인의 패션 감각에 점수를 매긴다면?

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옷은 많지 않지만 아무거나 입지는 않으니까.

명품남이라는 얘기인가?

전혀. 누가 명품을 선물하더라도 상표를 다 지우고 입는다. 브랜드가 새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상표를 봐서 싫다.

스마트폰 영화 <파란만장>으로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았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는 좀 찍는 편인가?

셀프 카메라는 캐릭터 콘셉트 때문에 가끔 찍기는 하지만, 셀카보다는 여행 가서 순간순간 카메라에 풍경을 담는 것을 좋아한다. 디카보다 편하니까.

오늘 촬영 콘셉트처럼, 평소에 누아르 영화를 즐겨 보나?

물론이다. 누아르 영화, 느낌 있으니까. 하지만 마구잡이로 사람 죽이는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딱뚱이, 오뎅 해치우듯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마치 영화의 유행처럼 빈번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당신에게 MAXIM이란 어떤 존재로 남았나?

우리 매니저가 강력 추천하는 필독서? 파격이 있는 자유, 파격을 존중하는 자유, 평화가 있는 자유. 그게 MAXIM이다. 

자유 좋아해?

오광록

생년월일 1962년 8월 28일
신체 171cm / 60kg

대표작

〈간첩〉, 〈나는 공무원이다〉,
〈잠복근무〉, 〈태왕사신기〉,
E채널 〈단단한 가족〉 출연 중

슈트 s+by트루젠
셔츠 타이 에디터 소장품
시계 게스 워치
선글라스 예르메네질도 제나

영웅본색이
따로 없네



OFFICE ASSISTANT

2012
MISS MAXIM
TOP 2

MISS MAXIM 결승 진출자 대닝 푸와 엄상미가 섹시한 어시스턴트로 변신했다. 부러우면 2013년 공채에 지원해!

BY 김희성 WORDS 조종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FILM 송종민

ASSISTANTS 최동희, 박종원, 김화현, 이현구 DESIGN 전은경

COOPERATIONS 플레이백스(02-6907-8888), 슈즈원(02-3443-1703),

키오야마토 바이 디케이(02-6911-0771), 게스 언더웨어(02-3447-0555)



너네 사무실에
이런 여직원
있어?



MAXIM KOREA

GO TO
MAXIM
iPAD
마공개컷



브리 플레이텍스
팬티 게스 언더웨어

AM 10:00

음탕한 산타를 속옷 차림으로 혼내줬다. 속옷을 입고 싸우면 불편하지 않나?
 싸워 본 적은 없고 춤을 춘 적은 있다. 여자들끼리 있는데 불편할 게 뭐 있나!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옛그제 화보를 촬영했는데, 목 상태가 엄청 안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엠 촬영이랍시고 내 목소리를 녹음하러 하더라. 게다가 콘셉트가 결박 플레이 같은 거였다. 거의 웃만 입은 아동 수준이었다니까?

MAXIM에선 업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고 춤을 춰도 된다. 어떤 술을 좋아하나?
 딱히 가리진 않지만 소주를 더 즐겨 마신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좀 업되는 편이다.

남자가 어떤 술을 주문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나?
 그런 거 없다. 하지만 맨날 같은 술 시키는 남자는 별로다.

택배 상자를 뜯었는데...
 웬 변태 산타 한 마리가 똥!!!
 상미 씨를 보려고 버려진 상자 속에
 들어갔더니 뭐라나.



MAXIM KOREA



AM 10:50

상미 씨 일 못하게 괴롭히더니
결국 끌려가네요. 역시 당신을
어시스턴트로 뽑길 잘했어요!

안경 키오야마토 바이 디케이

PM 2:00

'이달의 용모 단정 직원'으로
대닝 푸 사원을 추천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훌륭한
영등... 아니 복장입니다.





오늘 MAXIM 일일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어땠나? 마음에 들었나?

굉장히 열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았다. 서로 존중해줄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빠른 업무 속도에 놀랐다.

지금까지 해본 일 중 가장 최악의 일은?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미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업무를 했다. 통역을 하거나 협상을 돕는 일을 했는데, 나를 지도해줄 사수가 없어서 초반에 엄청 고생했다.

귀엽고 섹시한 데다 지적이기까지 하다니... 당신을 귀찮게 하는 남자들을 거절할 때 뭐라고 말하나?

아무 대답 없이 웃으면서 그냥 지나간다.

남자를 굴복시키는 당신만의 비법이 있나?

남자에 따라 다르다. 귀여운 남자에겐 취향을 파악해서 애교로 공략하는 스타일이고, 마초한테는 눈치를 보가면서 역시 애교로 녹이는 스타일?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선물은?

마음이 담긴 선물이 바보 같을리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PM 4:40

역시 술은 낮술이 갑이죠.
대닝 푸는 뭘 좋아해요? 칭다오? 보드카?
설마 이걸 혼자 다 마신 거예요?



The History of the

마야인의 달력은 2012년 12월 21일 세상이 끝난다고 기세 좋게 예언했다. 그동안 숨겨온 옆집 남자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수줍게 고백하고 함께 정렬히 종말을 맞이하겠다는 미련한 다짐을 하기 전, 이거부터 읽어봐라.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은 그동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BY DAN BOVA, MAXIM KOREA ILLUSTRATION MDI/DIGITAL



1806

알 까고 있네!

영국의 어느 임탤이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쓰인 일을 날았다. 사람들은 이를 종말의 징조로 여겼다. 조사 결과, 어떤 이가 달걀에 펜으로 낙서를 한 사기극이었다. 항문으로 서예하는 닭이 실존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데스노트에 혜성 이름 쓰는 중?

1965. 8.15

세기의 살인 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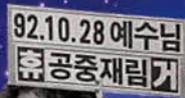
코후테크 혜성이 지구에 바짝 갈질하며 지나갈 거란 천문학자들의 예측에, 세계 언론은 '세기의 혜성'이 온다며 흥분했다. 이런 편에 꼭 미친놈이 끼지? 데이비드 버그는 "신이 미국을 파괴하려고 혜성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혜성은 미국 가까이 오기는 커녕 잘 보이지도 않았다. 휴일에 피신한 버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외쳤겠지. "우리 기도가 혜성의 궤도를 돌렸어!"



1919. 12. 17

불가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상학자 알버트 푸르타는 행성들이 나란히 서는 이날 "태양 가스가 대폭발해 그 불길에 지구를 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자살하는 심약자도 있었다. 하버드 기상예보는 맞은 역사가 없어.



1992. 10. 28

휴거는 휴지통에

666 바코드 기억나니? 초등학교도 다 '휴거'를 알 정도로, 다미선교회는 열심히 외쳤다.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온다!" 장작 당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자 신도 8천 명은 충격에 빠졌다. 직장을 관두거나 가출하고, 자살하는 이도 생겼다.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많았다. 아직도 그들 일부는 휴거를 기억한다고. 매년 날짜 바꾸느라 글치 아프겠소.



1993. 4. 19

혼자 가는 저승길은 외로워

전직 기타리스트이자 자칭 '신의 아들' 데이비드 크레시는 자신을 따르던 타워 분파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며 합숙을 시작. 강간과 마약을 신나게 해냈다. 경찰이 클리닉처자 그들은 불을 질렀고 82명이 통구이가 됐다.

뭔 개소리들이야?



지구 종말이 진짜 온다면 어쩔



End of the World



1814. 10. 19

이 늙은 보슬아치가!

영국의 조인나 사우스코트는 스스로를 예언가라고 주장한 신비주의자였다. 그녀 자신이 64세 되는 1814년 10월 19일, 자신이 새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예언했다. 물론 그녀의 자궁은 예언을 따르지 않았다(당연하지, 이 할망구야). 하지만 사우스코트의 추종자들은 그 이후에도 믿음을 차버리지 않았다. 머리 돌집어 금반지라도 사됐나.



1844. 10. 22

잇츠 밀러 타임!

윌리엄 밀러는 기독교 성서 다니엘서 8장 14절을 근거로 1844년 10월 22일 신이 재림하고 세계가 종말한다고 예언했다. 신도 10만 명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심판의 날을 기다렸지만 다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이날은 재림의 날이 아니라 '대실망의 날'이라 불렸다. 그래도 밀러는 1849년 죽기 직전까지도 "재림이 코앞이다"고 외쳤다고.



1910. 5. 19

프렌치파이나 까먹으렴

프랑스 천문학자 니콜라 카미유 플라마리옹은(뉴욕 타임스)에 "헬리헤상 꼬리가 뾰는" 가스가 대기에 퍼져서 지상 모든 생명체가 몰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계란 한 판을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 가스를 분사하는 생화학 테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다.



1891

아내를 제발 데려가주요!

1835년 돌문교 지도자 조세프 스미스는 자신의 추종자 무리에게 "여수가 찾아와 56년 안에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 지금 당신 마누라가 34세라면, 앞으로 56년 뒤쯤엔 매일매일이 세상 끝날 날처럼 느껴지지 않겠어?



1997. 3. 24-26

밥밥디라라, 헤일밥디라라!

마셜 애플화이트와 보니 넬슨은 '천국의 문'이란 그룹을 결성했다. 그들은 영혼을 해방시켜줄 외계 우주선이 헤일-밥 혜성을 따라 지구에 올 거라 믿었다. 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독을 탄 보드카를 마시고 자살하는 것이었다. 마시고 죽자, 아하~!



2000. 1. 1

Y2K! 유이차, 코지, 잘 있네?

종말론에 미친 사람만 '특정 숫자-에브리바디 게임 오버'라고 믿는 줄 있었는데, 1999년엔 과학자마저 종말론에 합류했다. 그들은 2000년의 00을 컴퓨터가 1900으로 오인해 세상인사 X될 거라며 후들감을 떨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은행, 전산 시스템과 인터넷 포르노는 무사했다.



1994. 9. 6-2011. 10. 21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해럴드 캠핑은 숫자점과 성경을 분석해 1994년 9월 6일을 지구 멸망일로 예언했다. 이후 날짜는 23일, 10월 2일, 이어 2011년 5월 21로 바뀌었다. 최종 예언 종말일은 2011년 10월 21일. 종말 예측에 엄청난 공력과 시간을 낭비한 그의 탁월한 결론: "종말일 예측은 불가능하다."



2000. 5. 5

촉촉한 마지막이 될 거야

1977년 리처드 눈의 <5/5/2000 아이스: 최종 재앙(The Ultimate Disaster)>이 발간됐다. 남극의 얼음이 2000년 5월 5일 갑자기 녹아내려 지표면이 전부 물에 잠기고 전 인류는 익사할 거라는 용공스런 종말론이다. 이봐, 튜브 물라? 대천해수욕장에서 빌려주던데?

MAXIM VS A.V.A



피 튀기는
대결
보러 가기



에디터 앞으로 네오위즈 게임즈의 A.V.A 운영자에게서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총싸움을 한판 했으면 좋겠다고. 풀았으면 메일을 씹어도 된다는 자신감 넘치는 내용이었다. 하... 내 그 도전 쿨하게 받아주지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COOPERATION 네오위즈 게임즈 A.V.A온라인(www.newwizgames.com)

승부욕

날씨가 추워졌다. 발목 양말을 신으면 발목이 질려 나가는 킬바람이 불었다. 그깟 총싸움이 뭘지, 한판 붙어보자는 도발에 승부욕이 불타오른 MAXIM이 단숨에 경기도 이천의 서바이벌 교장으로 날아갔다. 회사 책상에서 마우스로 총을 휘갈기던 사람들이 노리쇠 2,3회 후퇴전진의 맛을 알아?

인사를 나누고 뿔뿔하게 약속을 하는 두 팀의 어색함에 산천초목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잠시 후, 전원이 각자 준비한 전투복으로 갈이 입고 나왔다. 두 팀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했다. A.V.A 운영자 중에도 정상인은 없어 보였다. A.V.A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로 분장한 그들을 보니 G-STAR가 떠올랐다. 특히 A.V.A의 여성 캐릭터 예바 중위로 분장한 심영재(수컷)는 위액 역류를 초래해 MAXIM 직원들의 오버이트를 자극했다.



김영제

A.V.A 은아근

김아벤

우인턴

실한실에서 누수된 생화학 물질에 감염된 탈주병. 폭동만 일으키고 있음.

1 ROUND 총싸움



A.V.A 은아근

해병대의 패기를 보여주지

서바이벌 사장의 안내 지시에 따라 각자의 고지로 이동했다. MAXIM 팀은 '이 쪽에서 매복해서 확익진을 펼치자'는 등의 여러 작전을 짜지만 총 잡은 고락서니를 보아하니 작전 따윈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다. 전투 개시 호루라기 소리에 양 팀 모두 나무와 장애물 뒤에 몸을 숨겼다. 장난감 총 따위가 왜 이렇게 힘이 센 건지 수십 미터에서 날아오는 페인트탄이 나무에 부딪혀 터지며 굉음을 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총알 소리는 마치 관우가 청룡언월도 휘두르는 것처럼 들렸다. A.V.A 팀의 총알이 하늘을 뒤덮자 MAXIM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애물 뒤에서 발발 떨었다. 겉으로는 태연과 척했지만, 누군가는 오줌을 지렸을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나가자!" 하는 고함과 함께 MAXIM 팀 모두가 진격했다.



퐁, 퐁 나오겠네..

A.V.A 서상조

“퍽퍽퍽” 적군의 시야에 들지마자 총알이 온몸을 강타했다. 장난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정색을 부르는 아픔이 느껴졌다. 에디터가 다친 부위를 어루만지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MAXIM 직원들 역시 총에 맞아 발발대고 있었다. 몇몇은 어디서 이마로 페인트칠을 하다 왔는지 헬멧이 페인트투성이였다. 쉽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진지하다. 총알을 채우고 반대쪽 진영으로 위치를 옮겼다. 이번엔 MAXIM 모두가 멀리 흩어져 숨어서 공격하기로 했다. 무슨 변장술을 썼는지 같은 편인 에디터 눈에도 다들 어디 숨었는지 찾기가 어려웠다. 너무 뒤에 숨어서 소리가 나는 곳에 총을 휘갈겼다. 팀킬 적멸.



나보다 예쁜 것들은 다 죽어!



내래 맞았시와요.

MAXIM 공식 꽃제비 에디터 이영환



A.V.A 심영지

똑같대!

마인크

프라하 출신, 5개 국어 구사, 친화력 높은 캐릭터

예배나 근무

A.V.A의 최초 여성 캐릭터



MAXIM 예로 에디터 조중재



상대편 많이 맞으면 집에 전화 시켜주나요?

A.V.A 우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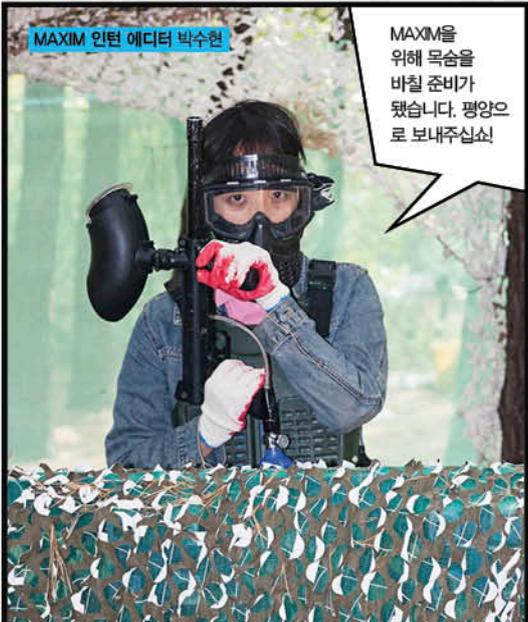
절세미녀에게 이런 대접이라니!



내래 근성이 뭔지 보여주개!

신승민

여기저기서 비명이 사자후처럼 울러 퍼졌다. 갑자기 MAXIM의 손안나 에디터가 귀곡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가더니 총을 갈겨댔다. 마치 동생을 잃어버린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동건처럼 총소리에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사격 실력도 남달라 무려 네오위즈 팀 두 명의 헬멧에 페인트탄을 내리꽂고 다른 한 명의 팔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MAXIM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XIM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습니다. 평양으로 보내주십시요!



그냥 영등포에서 노숙이나 할걸..

MAXIM 노숙자 에디터 박한빛누리



휴.. 예쁘게 총 쏘기 힘들대!

MAXIM 미녀 에디터 손안나

AMAZING BATTLE #4



스타킹 나갈까 봐
안지도 못 하겠네.
아오!!!!!!

MAXIM 조용재



부장님이 꼭
이기고 오랬단
말이다!

A.V.A 심영자

총에 영혼을 빼앗긴
A.V.A팀 勝!

1:1 상황, 양팀 모두 비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진영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드럼통이 조금씩 굴러 내려오고 있었다. 장애물이 넘어졌나 싶었는데, 네오위즈 팀원이 드럼통을 굴리며 그 뒤에 숨어서 총을 쏘고 있었다. 완전 성룡이었다. 그의 전략에 감탄하는 사이, 어느새 A.V.A팀은 MAXIM을 둘러싸고 집중 포격을 준비했다. 헬멧만 맞히면 이기는 건데 맞혔음에도 계속 총을 쏘았다. 그들의 눈을 보니 흰자위 밖에 보이지 않았다. 총싸움에서는 절대 저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의 이성을 장악해버린 듯했다.

2 ROUND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렸을 적 '수유리 칼날 치기로 전봇대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활동했던 에디터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올림픽에서 태권도만큼이나 주력 종목이었다. 술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간 이동으로 먼저바람을 일으키며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에디터도 나이를 먹었는지 곧 새끼손가락을 술래에게 맡긴 꼴이 되었다. 뽕게그를 구사하려던 MAXIM 직원들의 언어는 탈락에 새끼줄이 길어졌다. 해성처럼 등장한 해병대원 원정은 의 바람을 가르는 당수가 A.V.A 술래와의 고리를 절단시켰다. 비명을 지르며 출발선까지 달렸다. 아무도 잡지 못한 A.V.A팀 술래의 환술 소리가 나리 잃은 김구처럼 처량했다.



양쪽에서 손 좀 잡아달라
고 난리네. 이놈의 인기...

MAXIM 박수현

A.V.A 은아근

MAXIM 박한빛누리

MAXIM 손안나



해병대 출신
MAXIM 마케터
원정운



A.V.A 심영자

헛, 예쁘게
뛰자!

배가 고파서 뱌 수가
없단 말이다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이렇게 목숨걸고 하더니...

비켜봐,
손톱으로 확
뚫어벌랑게!

A.V.A 우인턴

앗아 썩!



빨리 끝내고 밥먹자!



MAXIM 원정운

A.V.A 심영자

A.V.A 서창조

생화차에 계란
올리시는 분 계세요?



A.V.A팀은 애초부터 이 게임은 버리는 게임이라 생각했는지 콘셉트 사진을 찍는 데 몰두했다. 각자 집에서 새벽까지 연습했을 포즈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궁화 꽃이 필 때마다 군무처럼 딱딱 맞는 그들의 동작을 보니 계획성 간접광고를 노린 듯했다. 준비한 퍼포먼스가 끝나자 예바 중위 심영자가 MAXIM 솔래의 손을 내리쳤고, 준비한 포즈로 간접광고 임무를 완수한 A.V.A팀은 미련 없이 MAXIM 솔래에게 등을 내쳤다.

왕년에 골목에서 꽃 좀 피워왔던
MAXIM팀 勝!

3 ROUND 신발 멀리 던지기



BEST
기록 20.5m !!!

신발 멀리 던지기는 이런 넓은 평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광활한 스케일의 게임이다. 양 팀 모두가 "나는 워낙 다리 힘이 좋아서 신발을 던지면 목성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는 허풍을 마구 잡이로 내뱉었다. 출발 신호에 다들 금방이라도 성층권을 뚫고 나갈 듯한 과장한 포즈로 신발을 날렸지만 신발이 죄다 몇 미터를 가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마렉 분장을 한 A.V.A팀의 서창조가 이를 한심하게 지켜보더니 말없이 군화 끈을 풀었다. 도움닫기도 없이 흰 발을 내뻗었는데 이치로의 레이저 송구처럼 하염없이 뿔어나갔다. 이내 우리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논두렁 어딘가로 떨어지면서 양 팀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가 보여준 허벅지 힘은 가히 손리를 능가할 듯했다.

사이보그 허벅지를 가진
A.V.A팀 勝!



최종 결과는
2:1
A.V.A
勝!



첫 패배로...



MAXIM과 겨루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 nu@maximkorea.net

네오위즈에서 A.V.A의 볼륨 터지는 여자 캐릭터를 쓴다!

총싸움에 미친 A.V.A 마니아라면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라. 네오위즈 게임즈에서 MAXIM 독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초절정 섹시 클래식 여성 캐릭터 지니 사용권을 제공한다. 친구에게도 주고 싶다면 모바일 페이지에서 버튼을 눌러 URL을 복사해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다. 전장,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는 거야?



A.V.A
여캐릭
받으러
가기



THE MOST DANGEROUS ONES

역대 최강의 파이터 계보

맨손 격투의 최강자를 한자리에 모셨다. 1993년 UFC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MMA의 20년, 시대를 주름 잡았던 세계에서 가장 씩 잡히는 인간의 계보를 파헤쳐보자.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IMAGE EA SPORTS DESIGN 사운정

1993년 11월~1995년 4월

1대 최강자 호이스 그레이시(1966년생), 릭슨 그레이시(1958년생)

초창기 UFC는 복장도, 글러브 착용도 본인 자유이며, 라운드제도, 시간 제한도 없었다. '결판날 때까지였다. 물어뜯기, 핏기, 금소 가격하기, 눈 찌르기 같은 반칙에는 경고와 벌금이 주어지지만 감점, 몰수패는 선언하지 않았다. 남심을 차고 물어뜯더라도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 사커 킥을 안면엔 정통으로 맞은 선수의 차이가 공중으로 튀는 장면이 TV에서 생생하게 중계되기도 했다. 싸움인지 경기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의 자유도와 그로 인한 과도한 폭력은 많은 우려를 샀다. 그러나 진정한 실전 무술을 추구하던 격투기 선수들과 누가 최강자인지 궁금해하는 대중에게 UFC는 '악속의 땅'이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UFC 1회 대회 우승자이며 UFC 4회까지 3번의 우승을 거두었다. 유일하게 우승을 못한 UFC 3에서는 8강전에서 체력을 심하게 소진한 나머지 준결승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이시는 이 기간 중 11전 전승 11서브미션승을 기록했다. 키 185cm에 체중은 80kg이 채 안 되는 평범한 체격의 그가 전 미국에서 모인 거구들을 그라운드 주짓수 기술로 항복시키는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시엔 주짓수와 그라운드 기술의 위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아무리 힘세고 체격이 큰 상대라도 그레이시와의 기술 차이는 너무나 현격했다. 대부분의 경기가 2, 3분 만에 결판났고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그레이시가 달려들어 상대를 넘기거나, 아래 깔리면 잠시 후 상대의 팔을 꺾던지, 목을 조르든지, 아니면 팔을 꺾으면서 목도 같이 졸라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이는 격렬하고 박력 있는 난투를 기대하던 팬들에게 썩 불만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의 격투계는 주짓수의 치명적인 유용함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의 최강자는 호이스 그레이시인가?

호이스 그레이시는 그레이시 가문을 대표해 UFC에 출전했다. 그레이시 주짓수의 원류이자 최고의 격투 명문 그레이시 가문은 MMA 탄생에 중대한 공헌자다. UFC 공동 창립자 중 1명은 2대 장남 호리온 그레이시다. 가문의 수장인 1대 엘리오 그레이시는 4명의 아내에게 수많은 자식을 보았다. 대부분 자식이 가업인 주짓수를 물려받았다. 그중 가장 강한 인물은 호이스가 아닌 릭슨 그레이시였다. 호리온 그레이시는 UFC에 호이스를 출전시킨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주짓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사실 충분히 강한 호이스를 발탁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챔피언이 된 후 여러 인터뷰에서 "형 릭슨은 나보다 10배는 강하다"고 말했다. 릭슨은 브라질에서 암암리 벌어진 발리투도(무규칙 격투) 경기에서 10년 이상 무적으로 군림했다고 한다. 당시 전적이 350전 무패라는 설이 있을 정도(이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친 엘리오 그레이시도 과장된 수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릭슨 역시 주짓수를 기반으로 싸우지만 호이스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피니시가 뛰어났다. 그의 공식 MMA 전적은 11전 전승 11서브미션승이다.



그레이시는 예쁘다?

그레이시 가문에는 '귀염둥이' 여성 파이터 키라 그레이시가 있다. 1985년생인 그녀는 호이스의 조카로 주짓수, 유도, 레슬링을 수련했다. 삼촌과 오빠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공포스러운데

1995년 4월~1996년 5월

2대 최강자 켄 삼락(1964년생)

초창기 UFC에서 그레이시의 기교에 대응할 만한 준비를 가장 먼저 갖춘 선수는 켄 삼락이었다. 삼락은 180cm의 키에 굉장한 근육질이었다. 학창 시절 레슬링을 했고 일본에선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며 그라운드와 서브미션 기술을 습득했다. 1993년 11월 UFC 1 준결승에서 호이스 그레이시를 만나 리어네 이키드 초크를 내주며 서브미션패한 삼락은 주짓수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곧바로 라이언스 덴이라는 팀을 결성해 주짓수와 킥복싱 경합자를 모았다. 삼락은 UFC 2의 출전을 포기하면서 주짓수 수련에 매달렸다. UFC 10이 있는 지 10개월 후 열린 UFC 3. 삼락은 8강과 준결승을 모두 5분 이내에 압승하며 결승에서 그레이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레이시는 중도 기권해버렸고 삼락 역시 부상을 이유로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다. UFC 4에 그레이시는 출전했지만 삼락은 일본 판크라스에서 벌어진 '킹 오브 판크라스트' 토너먼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레이시와 삼락은 각각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95년 4월 7일, UFC 5에서 두 선수가 재회했다. UFC 사상 최초로, 토너먼트가 아닌 싱글 매치였고, 슈퍼파이트 타이틀 벨트가 걸렸다.(UFC 헤비급 타이틀의 전신).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UFC가 PPV(Pay Per View)로 중계됐는데, 방송국에선 무제한 경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UFC는 최초로 경기 시간을 제한했고, 그레이시 대 삼락의 슈퍼파이트는 30분 라운드라는 시간 제한이 걸렸다. 삼락은 그레이시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그레이시의 기술이 삼락의 방어에 자주 걸리면서 삼락의 파워풀한 반격이 빛을 발했다. 30분이 지나고 그레이시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삼락의 승리는 당연해 보였다. 연장 라운드 6분이 더 주어졌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결과는 무승부. 삼락이 그레

이시의 연승을 멈춰 세웠다. 물론 사실상 승자는 삼락이었다. 만약 판정 시스템이 있었다면 삼락의 판정승이었겠지만 당시 UFC에는 부심이나 판정단이 없었다. 이것은 UFC 사상 가장 긴 경기였다. 이 직후 그레이시는 활동을 중단했다. 호이스 그레이시의 시대는 저물었고 바통은 삼락에게 넘어갔다. 그레이시-삼락전이 무승부로 결정나면서 승자를 가리지 못했던 슈퍼파이트 타이틀을 놓고 1995년 7월 14일 캔 삼락과 댄 세번이 격돌했다. 경기 시작 2분 14초 만에 세번은 삼락의 길로틴 초크에 항복했다. 이듬해 5월까지 삼락은 이 타이틀을 두 차례 방어했다.

1996년 5월~2001년 11월

1차 혼란기 댄 세번, 마크 콜먼, 모리스 스미스, 랜디 커투어, 케빈 랜들맨, 바스 루튼

대부분의 레슬러는 실전 싸움에서 레슬링이 강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UFC의 등장은 그 신념을 증명할 기회였다. 올림픽 출전 기회는 잡지 못했지만 미국 내에서 상당히 알려진 수준급 레슬러 댄 세번이 스타트를 끊었다. 세번은 레슬링이 강하고 실전 격투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상대를 붙잡아 지면 서플렉스로 메다꽃은 장면은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섬세한 그라운드 기술과 서브미션기에는 약했다. 세번은 삼락의 슈퍼파이트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경기 초반에 길로틴 초크를 내주고 서브미션패했다.

1996년 5월 세번은 삼락의 4차 방어전에서 복수의 기회를 잡았다. 이 대회도 PPV로 중계되었는데, 방송사 측에서 현지 사정을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기'를 원했다. 안면을 가격할 때는 주먹을 펴서 손바닥으로 치라는 의미였다. 삼락은 경기에서 실제로 주먹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세번은 주먹뿐 아니라 박치기도 사용했다. 경기는 극도로 지루했다. UFC 사상 가장 지루한 경기로 꼽힐 정도

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드디어 UFC가 판정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 30분이 지나고 판정이 떨어졌다. 세번의 판정승이었다. 삼락은 주먹을 쓰지 않기로 한 규칙을 들어 강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 경기 이후 삼락은 한 경기를 더 뛰고 UFC를 떠나 프로레슬링 무대에 진출한다.

댄 세번이 삼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맞지만, 찝찝한 데가 있다. 게다가 타이틀을 오래 지키지도 못했기에 새 최강자 선발에 올리는 어렵다. 세번의 1차 방어전 상대는 마크 콜먼이었다. 콜먼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7위를 기록한 엘리트 레슬러다. 슈퍼파이트는 이 경기를 기해 UFC 헤비급 타이틀로 바뀐다. 콜먼은 세번을 헤드록으로 항복시키면서 UFC 헤비급 초대 챔피언의 왕좌에 앉았다.

댄 세번과 돈 프라이, 마크 콜먼은 초기 UFC에서 레슬링의 위력을 과시한 3인방이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올라타 상위에서 파운딩으로 공격하는 '그라운드&파운드' 전법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그중 콜먼의 실력이 가장 나왔기에 '그라운드&파운드의 대부'라는 별명을 차지한다. 콜먼은 185cm의 신장에 체중이 약 110kg였다. 근육질 몸매에 힘도 엄청났다. 파워풀한 태클과 펀치와 박치기, 무릎 등이 총동원되는 막강한 파운딩으로 일세를 풍미한 이 선수도 약점이 있었다. 특히 타격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체력 안배에도 자주 실패했다.

콜먼 역시 금방 타이틀을 빼앗겼다. 킥복서 출신의 도전자 모리스 스미스가 지구전으로 콜먼의 체력을 소진시키며 후반에 탈진한 콜먼에게 로직 소나기를 퍼부으며 역전승을 거둔다. 스미스의 타이틀은 랜디 커투어에게 넘어갔다. 커투어는 UFC 헤비급 벨트를 버리고 일본의 링스(1992년 출범한 일본 MMA 단체)로 떠났다. 빈 왕좌엔 케빈 랜들맨이 앉

았다가 바스 루튼에게 타이틀을 빼앗긴다. 루튼은 벨트를 따자마자 은퇴해버렸다. 당시 UFC는 상원 의원 존 매케인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매케인은 UFC를 '인간 투게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곧 미국 48개 주에서 UFC가 금지됐다. UFC가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MMA의 중심은 태평양 너머의 일본을 향했다.

2001년 11월~2003년 3월

3대 최강자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1976년생)

UFC는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벨트의 권위도 바닥을 쳤다. 반면 1997년에 시작한 프라이드는 폭풍 성장하며 그 공백을 메웠다. 규모도 압도적이었다. 당시 UFC는 지방 군소 경기장을 돌며 이벤트를 열었다. 라스베이거스 입성은 먼 얘기였다. 프라이드는 일본 최대 경기장인 도쿄 돐에서 혁신 그레이시와 다카다 노부히코의 대전으로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등장은 대단한 볼거리였다. 관객 규모는 수만을 헤아렸다. 대전료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일본에선 대전료를 밝히지 않는다). 분위기 역시 달랐다. 경기가 조금만 늘어져도 아유가 터지는 미국 관중에 비해 일본 팬은 비난보다는 칭찬에 후했다. 일류 선수들에게는 프라이드 진출이 제 목표였다.

2000년 프라이드 무제한급 그랑프리 출전자의 면면을 살펴볼 때, 당시 MMA를 총괄산하는 이벤트였다. 최초의 최강자 호이스 그레이시, UFC 헤비급 초대 챔피언 마크 콜먼, 당시 가장 위험한 타격가로 이름난 이고르 보브찬친, 신혼 레슬링 강호 마크 커, 삼락 대신 라이온스 덴 대표로 출전한 가이 메츠거, 그레이시 가문 선수를 연파하며 '그레이시 헌터'라 불린 사쿠라바 가즈시 등 굉장한 라인업이었다. 결승전은 도쿄 돐에서 벌어졌다. 관객은 3만 8천

← **켄 삼락** 미국
180cm / 100kg
/ 28승 15패 2무 2KO
23서브미션 / 레슬링



← **호이스 그레이시** 브라질
/ 185cm / 80kg /
14승 2패 3무 12서브미션 / 주짓수
(국적 / 신장 / 체중 / 전적 / 특기)



여기요~ 부킹 3명!
삼삼한 애들로~

← **노게이라** 브라질
191cm / 108kg
/ 34승 7패 1무 1NC 3KO
21서브미션 / 복싱, 주짓수





오브레임
네덜란드
/ 195cm / 120kg
/ 36승 11패 1NC 15KO 19서브미션
/ 무에타이, 진보적인 경험치

명, 우승자는 콜먼, 준우승자는 보브찬친이었다. 2001년 9월, 콜먼 앞에 새 강적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가 나타났다. 그는 링스에서 12승 1패 1무 9 서브미션승을 달리고 있었다. 전적 중 1무 1패는 편파 판정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이 당시 노게이라는 무적이었다. 191cm의 키에 체중 108kg의 그는 주짓수가 특기였고 주먹 솜씨도 상당했다. 호이스와 희슨 그레이시는 주짓수의 대가였지만 체격이 작고 타격은 정말 형편없었던 것에 비해 노게이라는 큰 체격, 주짓수와 쓸 만한 타격 능력을 갖춘 선수였다. 정신력과 체력도 우수하고 멧집까지 역대 최강이었다. 다른 무술계가 주짓수를 배우는 동안 주짓수계는 주짓수를 베이스로 타격 능력을 장착한 최신행 특대 사이즈 파이터를 만들어냈다. 노게이라를 만난 콜먼은 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서브미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게이라와 서서 타격전을 벌일 수도 없었다. 타격 능력이 현격하게 차이 났기 때문이다. 콜먼은 노게이라를 클린치로 잡아놓고 짧은 펀치를 꽂아넣는 더티 복싱을 주공으로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그조차 효과적이지 않았다. 아무 소득 없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콜먼은 결국 그라운드로 끌려내려갔고, 이어 노게이라의 삼각조르기가 터졌다. 총 경기 시간은 6분. 노게이라는 이 6분 동안 자신이 다른 레벨의 선수임을 증명했다. 그해 11월, 프라이드는 헤비급 타이틀을 만든다.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노게이라와 붙은 선수는 텍사스의 '광마(狂馬)' 히스 헤링이었다. 그는 킥복싱으로 밥벌이하던 타격 스페셜리스트였다. 노게이라는 그를 상대로 스탠딩조차 우세했고 완승했다. 노게이라는 프라이드 헤비급 벨트를 손에 넣었고 이후 1년 4개월 동안 6연승을 달렸다. 노게이라의 집권이 장기화할 조짐이 농후했다.

2003년 3월~2010년 6월
4대 최강자 예멜리아넨코 표도르 (1976년생)

표도르는 올림픽을 목표로 유도를 수련하고 있었지만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다. 당시 러시아의 경제는 몹시 어려웠다. 가난했던 표도르는 먹고 살기 위해 MMA 선수가 되었다. 2000년 5월, 링스에서 데뷔한 그는 2002년까지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격력을 선보이며 11승 1패의 전적을 쌓고 프라이드로 진출했다. 데뷔전 상대는 세미 솔츠였다. 결과는 표도르의 판정승. 두 번째 경기에서 헤링을 TKO로 누른 표도르는 이제 노게이라에게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2003년 3월 노게이라-표도르의 1차전은 종합격투기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대결이었다. 이 경기에서 표도르는 타격, 테이크다운, 파운딩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화경의 경지를 선보이며 완승을 거두었다. 신장 182cm에 체중 105kg의 표도르는 헤비급치고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작은 만큼 엄청나게 빨랐고 작은 것치고는 상당한 파괴력이었다. 테이크다운, 그라운드 기술도 당시 평균치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노게이라 역시 보기 드문 굉장한 존재였는데 그보다 한수 위 선수가 동시대에 등장했던 것은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삼국지>의 주유처럼 노



아이 추위

표도르 러시아
183cm / 105kg
/ 35승 4패 1NC 11KO 16서브미션
/ 컴배트 삼보, 유도

게이라도 '왜 하늘은 이 노게이라를 낳으시고, 또 표도르를 보내셨는가!'라고 탄식했음만 하다. 노게이라는 다시 연습 가도를 달렸다. 2003년 후반, 그는 전 UFC 헤비급 챔피언 리코 로드리게즈와, K-1에서 온 크로캅을 연파했다. 2004년엔 프라이드 헤비급 토너먼트가 벌어졌고 16명의 헤비급 선수가 출전했다. K-1 출신의 크로캅과 스태판 레코,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콜먼, 랜들맨, 그리고 헤링과 세르게이 하리토노프에, 노게이라와 표도르가 출전했다. 당시 상위 랭커는 거의 다 등장한 토너먼트였다. 노게이라와 표도르가 결승에 올랐다. 그들의 2차전 경기 초반, 두 선수의 머리가 충돌하면서 표도르의 미간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그로 인해 노컨테스트가 선언됐다. 프라이드는 발 빠르게 3차전을 기획했다. 약 4개월 후인 2004년 12월, 두 선수는 모든 것을 걸고 재결투했다. 표도르의 프라이드 헤비급 챔피언 벨트, 노게이라의 잠정 챔피언 벨트, 프라이드 헤비급 토너먼트 벨트가 걸린 경기였다. 결과는 표도르의 판정승이었다. 2005년 8월, 표도르는 크로캅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 경기는 엄청난 주목을 끌었다. 그라운드 위주의 운영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표도르는 최강 타격가 크로캅을 상대로 타격전에서 맞불을 놓았다. 그리고 완승했다.

2010년 6월~2011년 11월
2차 혼란기 파브리시우 베크움, 알리스타 오브레임,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 케인 벨라스케즈

2007년 프라이드 운영에 아쿠자가 개입했다는 설이 돌았다. 후지 TV가 프라이드에서 손을 뗐다. UFC는 반대로 2002년 새 주인을 만났고 정치권의 견제에서도 벗어났다. 척 리델과 랜디 커투어의 라이벌 구도가 인기를 끌었고 리얼리티 쇼 (TUF)의 성공으로 미국 내 인지도 역시 급상승했다. 여러 규칙이 도입되면서 스포츠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라스베이거스의 메이저 무대에도 진출했다. 결국 파산한 프라이드를 UFC가 인수했다. 프라이드의 우수한 선수들 대부분이 UFC로 이동했다. 그러나 표도르는 UFC와의 계약에 실패하고 장외에 머물게 된다. 다른 모든 체급에서 UFC가 최고 권위의 챔피언을 보유한 단체였으나 헤비급만은 아니었다. 2000년~2007년 동안 25연승을 기록하고 4년 동안 최강 자리를 지켜온 표도르 때문이었다. 당시 UFC 헤비급에선 랜디 커투어와 프랭크 미어, 브록 레스너가 타이틀 전선에서 경쟁했다. 팬들은 이들과 표도르의 매치업을 원했지만 UFC와 표도르는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다. 표도르는 2009년까지 장외에서 팀 실비아, 안드레 알롭스키 등 2명의 UFC 헤비급 전 챔피언과 브렛 로저스를 상대로 3승(2KO 1서브미션)을 추가했다. UFC에서는 브록 레스너가 랜디 커투어를 때려눕히고 챔피언이 되었다. 레스너는 외모만큼이나 괴물 같은 흥행을 기록했다. 그가 챔피언이던 시절 PPV 판매고는 100만은 기본, 최대 160만을 기록했다. 당

시 PPV 1개당 약 40달러였으니 PPV 매출만 6,400만 달러(약 660억 원)에 달했다. 레스너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했다. 시대는 '표도르 vs 레스너'를 요구했다. 이 경기가 성사됐다면 아마 '격투기 사상 최대의 쇼'가 됐겠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 2010년 6월, 2위권 단체 스트라이크포스에서 표도르는 파브리시우 배우둠과 대전했다. 배우둠은 노게이라와 비슷한 선수로, 표도르의 상대가 못 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표도르는 배우둠의 삼각조르기에 걸려 경기 초반에 서브미션패했다. 7년째 세계 MMA 랭킹 부동의 1위였던 표도르의 순위가 내려앉았다. 주요 매체에서 UFC 챔피언 브록 레스너를 헤비급 랭킹 1위로 꼽았고, 이로써 모든 체급의 1인자는 UFC 챔피언으로 통일됐다. 이후 표도르는 안토니오 실바, 댄 헨더슨에게 거짓말 같은 연속 TKO패를 하며 중심권에서 빠르게 이탈했다. 왕관은 배우둠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우수한 주짓수와 관촬은 타격, 멧집, 체력, 정신력을 지닌 선수였다. 뛰어난 연기로 상대를 속이는 것 또한 이 선수의 특기다. 다리에 문제가 있는 척 하며 로킵을 유도한 뒤 그것을 잡아 테이크다운하는 식이다. 2011년 6월, 배우둠은 오브레임과의 접전 끝에 판정 패한다. 오브레임은 원래 프라이드 -93kg급에서 뛰었다. 키(196cm)에 비해 마른 체격이었지만 상당한 파워와 우수한 테크닉을 지닌 선수였다. 특기는 킥 복싱이지만 레슬링 실력도 좋고 그라운드도 관촬었다. 하지만 멧집과 체력의 한계로 정상의 문턱에서 여러번 고배를 들었다. 2008년부터 2년 간 그는 대폭적인 증량을 감행했다. 체중은 120kg으로 늘었고 전투력도 급상승했다. 오브레임은 2010년 K-1 그랑프리에서 우승한다. 특기인 클린치 니킵은 MMA와 입식을 가리지 않고 위력을 발휘하는 결정 병기로 발전했다. 한편, UFC에서는 케인 벨라스케즈가 브록 레스너에게 1라운드 TKO승을 거두며 벨트를 가져간다. 거의 일방적인 구타였다. 레슬링과 타격 능력, 튼튼한 턱과 공격성, 최강의 파운딩, 초인적인 지구력을 자랑하며 9연승(8KO)을 기록한 그는 2010년 10월 UFC 헤비급의 새 챔피언으로 등극하면서 '표도르를 이을 천재'로 회자되었다. 랭킹 1위 표도르를 꺾은 배우둠과 그 배우둠을 꺾은 오브레임, 그리고 벨라스케즈를 비롯한 UFC 상위 랭커 중 누가 최강자인지 꼽기는 애매했다. 그런 와중에 2011년 11월 12일, UFC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가 벨라스케즈를 1라운드 KO로 잡으면서 판세는 더욱 미궁에 빠졌다.

2011년 11월~현재 누가 최강? 산토스, 벨라스케즈, 오브레임, 배우둠

산토스는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일찍 철이 든 그는 식당 접시닦이, 석공 노가다 등을 하며 성실하게 살다가 취미로 복싱을 시작하면서 격투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던 산토스는 노게이라에 의해 중앙 무대에 소개되었다. UFC 데뷔전에서 당시 타이틀 도전을 눈앞에 둔 배우둠을 1라운드 어퍼컷 일발로 침몰시키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산토스는 이후 크로캅, 로이 넬슨, 웨인 카원을 비롯한 6명의 상대를 연파했다. 벨라스케즈와의 타이틀매치에서 산토스는 강력한 오른손 오버핸드를 벨라스케즈의 머리 옆면에 적중시켰다. 그대로 앞으로 떨어진 벨라스케즈에게 산토스의 파운딩이 쏟아졌고, 주심은 즉시 TKO를 선언했다. 산토스의 특기는 복싱이다. 대부분 공격은 두 주먹에서 나온다. 최근 MMA 선수들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복싱과 무에타이, 킥복싱의 킥, 팔꿈치와 무릎 등 다양한 타격 기술과 레슬링, 유도, 삼보의 테이크다운 기술, 그리고 주짓수, 서브미션 레슬링의 그라운드 기술 등을 고루 갖춘 선수가 각 체급 챔피언으로 군림하는 시대다. 반면 산토스는 두 주먹의 공격 의존도가 매우 높다. 마치 고전시대의 선수들이 연상된다. 하지만 테이크다운을 잘 허용하지 않으며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엔 그라운드에서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2007년 그라운드에서 암바를 허용하며 유일한 1패를 기록, 현재 전적 15승 1패 11KO 2 서브미션). 스탠딩에서는 종종 맞기도 한다. 크로캅, 마이클, 넬슨, 카원과 경기에서 산토스도 클린히트

를 맞았다. 그런데 맞았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멧집이 좋고, 맞은 것을 바로 갚아주는 주먹 실력 덕분에 스탠딩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 산토스가 벨라스케즈를 이기자 이 시대 헤비급을 대표하는 4강의 상하 관계가 드러났다. 벨라스케즈와 배우둠은 산토스의 밑으로 내려갔고 오브레임과 산토스가 1, 2위를 가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마침 오브레임도 UFC로 넘어와 레스너를 꺾고 성공적으로 데뷔한 뒤였다. 산토스 대 오브레임전은 1인자를 가리는 중대한 일전이 될 예정이었다. 팬들의 기대도 엄청났다. 2012년 5월로 대전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기습적인 사전 약물 검사에서 오브레임의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는 취소됐다. 오브레임은 9개월 출장 정지라는 페널티를 받았다. 대신 프랭크 미어가 산토스와 경기를 치렀다. 미어는 산토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2라운드 TKO패했다. 오브레임은 약물로 평판이 실추됐지만, 산토스는 상대를 완벽하게 누르면서 주가를 더욱 높였다. UFC 헤비급에서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경쟁에서, 현재까지는 산토스가 가장 앞서 있다. 하지만 '싸움의 월드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토스와 벨라스케즈의 2차전은 오는 12월 30일 UFC 155에서 벌어진다. 12월에 징계가 풀리는 오브레임은 내년 2월, UFC 156에서 안토니오 실바를 상대로 복귀전을 한다. (TUF 브라질)에 출연 중인 배우둠은 한동안 경기 일정이 없지만 내년 여름쯤 노게이라와 붙을 예정이다. 지상 최강 파이터 계보, 한 쪽에는 제왕이 버티고 있고, 그 자릴 노리는 신형 과수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전쟁이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벨라스케즈 미국 / 185cm / 110kg / 10승 1패 9KO / 킥복싱, 레슬링

산토스 브라질 / 193cm / 109kg / 15승 1패 11KO 2서브미션 / 복싱, 주짓수



배우둠 브라질 / 193cm / 112kg / 6승 5패 5KO 8서브미션 / 주짓수, 무에타이

꽃보다 소은



레드 카펫에서의 고풍적인 자태로 사람들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배우 배소은.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도 예뻐다. 게다가 예쁜 몸매만큼 시원시원한 그녀의 입담 덕분에 촬영 내내 MAXIM 스태프의 광대가 춤을 췄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박종원, 박수현 FILM 최성준
HAIR&MAKEUP 이현정 DESIGN 서윤정
COOPERATIONS 잇초닷액세서리(www.itdotacc.com),
슈즈원(02-3443-1703)



레드 카펫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어땠나?

재밌는 경험이었다. 남들이 내 사진을 보고 "어디를 수술한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신기했다. 내 얘기를 남들이 신나게 하다니 참 재밌는 일 아닌가?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나?

쑥덕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보다는 "제가 개야?" 하는 식이다. 아예 나를 못 알아보고 바로 옆에서 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가 그 배소은입니다!"하고 싶었지만 생얼이어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했다.

화제의 드레스는 회사 사람들과 소속사 디자이너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본인의 아이디어도 반영됐나?

나의 예쁜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다. 솔직히 난 등이 끝내준다. 헬스장에서 등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 역삼각형까지는 아니지만, 등이 엄청나게 세시하다(웃음).

그 드레스 처음 입을 때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사실 혼자 드레스를 입고 셀카를 많이 찍었다. '오늘 다 죽었다!'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여배우들보다는 좀 튀겠지?' 생각했는데 그만큼 화제가 돼서 아주 좋았다.

생애 첫 레드 카펫 워킹이었는데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레드 카펫이 생각보다 짧더라. 그냥 후딱 지나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막 걸어가는데, 멀리 조영구 아저씨도 보이고, 김생민, 박슬기 씨도 보이더라. '와, 연예인이다!' 하고 속으로 외쳤다.

이번 화제가 배우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계획성 있는 타입도 아니고 인생을 길게 보지도 않는다. 지금 스물네 살인데, 솔직히 보통 24세 여자가 레드 카펫을 밟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나? 그게 너무 즐겁다.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이런 옷 입고 레드 카펫을 밟았네?'라고 뿌듯해할 것 같다.

“
과거 남친들이 내 베드신을
본다면 어떨까?
”



신인 배우로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나?

〈올드보이〉 강혜정 역할. 아니면 이번 영화 〈닥터〉에서 김창완 선생님께서 연기한 연쇄 살인범 역할을 맡아서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과정을 해보고 싶다. 여자 연쇄살인범은 드무니까.

“이미 한 노출로 징징거리지 않겠다” 는 패기 넘치는 발언을 했다.

〈닥터〉를 보면 그 노출이란 게 별로 기억에 안 남을 거다. 그만큼 짧은 분량인데, 노출 드레스로 화제가 되었으니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화제를 맞추는 듯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한다. 나중에 케이블 TV에서 재방송을 많이 하면 그땐 또 모르겠다.

수위가 별로 안 높나?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 라니, 대체 얼마나 짧기에 그런가?

친구가 부산영화제에서 보면서 “카메라를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이 걱정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정지 화면으로 보이는 게 없다. 친구가 나중에 DVD를 사서 멈춰 놓고 봐야겠다고 하더라.

미래의 남자친구가 베드신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을 해봤는데, ‘미래의 남친보다는 과거 남친들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스릴 있는 것 같다. 아마 기겁하겠지?

대선배 김창완 씨와의 작업은 어땠나?

감독님이 그러시더라. 어떻게 저런 대선배님 앞에서 겁대거리 없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느냐고. 나한테는 이 영화가 첫 작품이기도 하지만 살면서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잖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럽다가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본인의 연애 관점에서 김창완 씨같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연상남은 어떤가?

좋다. 나이를 많이 따지는 타입은 아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다(웃음).

사이코패스를 남편으로 둔 여인을 연기했는데, 여태까지 사귀던 남자 중에 최악이다 싶은 사람이 있나?

나 자체가 최악이었다. 난 집착이 심했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남자친구가 신발 끈을 묶

으려고 잠시 손을 놓으면 “뭐야, 왜 손 놔?”
이렇게 반응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런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이 남자친구
만나는 거였거든. 지금은 일을 하나(웃음).

사이코 기질이 있나?

하나에 꽂히면 진짜 집착하는 성격이다.
예전에 공연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쳤는데
운동이 정말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자전거
를 한 발로 탔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오른쪽 발목이 시큰거린다.

성형수술이 영화의 한 축으로 등장한다.

성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형수술은 자신을 찾기 위한 수술이다. 예
뻐지든 의술로 좋아지든 자신을 찾을 수 있
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비싼 게 단점이지만.

고치고 싶은 부위가 있나?

코! 못 믿겠지만 수술 안 한 거다. 이쪽에 신
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건들 수
없었다. 그래서 대표님께 “성형이 하고 싶은
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뱀뿔. 너는 하나 고쳐서 될 게 아니야”
라며 웃으시더라(웃음).



한국무용이 특기인데, 나중에 <스텝업>같이 댄스를 소재로 하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다면, 소화할 수 있겠는가?

해야지. 가르쳐주면 다 할 수 있다. 카메라 앞에서 나이키 한 번 해주고(웃음).

남자에게 여배우는 쉽게 사귄 수 없는 어려운 존재 같다. 배소은은 '평범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난 정말 평범하다.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하고, 남자를 볼 때 외모, 직업, 차도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치킨 배달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다. 오토바이 배달원 말이다. 그땐 치킨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다.

배우를 준비하는 학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많이 해라. 몸 좀 그만 사리고!

오늘 배소은에게 MAXIMI란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우리 엄마는 커피인 줄 아는 것 ☺



다소 루즈할 것 같던
표범무늬 원피스.
그녀가 입으니 표범이
살아있는 듯 순식간에
무늬가 팽팽해졌다.



배소은

태어난 해: 1988년생

신체: 166cm, 46kg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재학 중

대표작

영화 <닥터>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이상형

교회 오빠, 몸 피부가 좋은

사람

롤모델

하지원.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호감을 맞춰보고 싶은

남자 배우

고수, 이순재 선생님

액세서리 모두 잇츠닷액세서리
구두 모두 슈즈원





에디터의
소총 플레이!



TOP5 FPS GAME GUN

FPS(First Person Shooter)란 1인칭 시점에서 각종 총기를 사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 게임이다. 사용자는 게임 속 캐릭터와 동일한 시점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류의 게임보다 박진감 넘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적을 사살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어느 FPS에서든지 고성능을 발휘하는 최고의 총 5개를 선정해보았다.

BY 김대영 DESIGN 전은경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소총
AK47 소총

파워 ★★★★★

정확도 ★★★★★

반동 ★★★★★

무게 4.78kg / 길이 88cm

총신 길이 42.5cm

사용 탄약 7.62X39mm (M43/M67)

발사 속도 최대 분당 600발



자넨 분명
오른손잡이였는데...?



구 소련이 주력 소총으로 채용한 AK47 소총은 194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해 6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1억 정 이상이 생산된 AK47 소총은 현대사의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 곳에 언제나 등장했다. 구 소련이 낳은 천재적인 총기 설계가 미하일 칼라시니코프(Mikhail Kalashnikov)가 개발한 AK47 소총은 7.62mm 탄을 사용해, 라이벌인 M16 소총에 비해

사거리와 위력이 뛰어났고 신뢰성은 '연장'에 비유될 만큼 튼튼했다. 특히 AK47 소총은 내구성이 좋아 사막에서부터 극지방까지 어떠한 험한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총기 중 하나다. 세계의 3대 돌격 소총으로 꼽힐 만큼 대단히 훌륭한 총이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많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면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FPS Tip FPS 게임 속에서 AK47 소총은 FPS 게임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소총이다. 실제 총과 유사하게 위력은 강하지만 그만큼 반동이 강하다. 특히 연사로 사격 할 경우 총이 위로 틀리면서 정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만큼

숙달되지 않으면 AK47 소총의 장점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단발로 사격하거나 점사로 끊어 사격하는 편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명중률 높은 DIY 소총 M4 카빈 소총

- 파워 ★★★
- 정확도 ★★★★★
- 반동 ★★★
- 무게 2.88kg / 길이 84cm
- 총신 길이 37cm
- 사용 탄약 5.56X45mm 나토탄
- 발사 속도 분당 700~950발

M16 소총인 M4 카빈 소총은 1994년 미군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M16 소총보다 짧은 총신과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등장하자마자 미 특수부대의 사랑을 받았다. 또 2009년에는 '피카티니 레일 시스템'을 도입한 M4A1 카빈 소총이 등장하면서 본격 DIY(Do It Yourself) 소총으로 변신하게 된다. 피카티니 레일 시스템이란 표준 규격으로 총기

의 결합 장치를 만들어, 조준경, 레이저 조준기, 전술용 조명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규격 장비다. 따라서 소총에 필요한 여러 장치를 원하는 대로 장착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M16 소총보다는 총신이 짧아 명중률이 떨어지지만, AK47 소총보다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물론 내구성은 AK47 소총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FPS Tip FPS 게임 속에서 M4 카빈 소총은 AK47 소총에 비해 명중률이 매우 높다. 요즘 출시되는 FPS 게임들은 피카티니 레일 시스템을 재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조준경을 장착한다면 높은 명중률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역시 라이플은 고라빅는 맛이 있어야지). 또 소음기를 장착하면 총의 반동마저 일부 줄일 수 있다. FPS 게임 초보자라면 AK47 소총보다는 M4 소총을 적극 추천한다.





대테러 부대의 상징이 된 총 MP5

파워 ★★
 정확도 ★★★★★ / 반동 ★★★★★
 무게 2.5~3.1kg / 길이 68~70cm
 총신 길이 22.5cm
 사용 탄약 9X19mm 파라블럼탄
 발사 속도 분당 800발



1966년 등장한 MP5 기관단총은 세계 각국의 군경 특수부대에서 사랑받는 기관단총이다. MP5 기관단총이 등장하기 이전의 기관단총은 대부분 개방노리쇠 작동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나 MP5는 소총에서 주로 사용하는 폐쇄노리쇠 작동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정밀한 사격이 가능했다. 특히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 구

출 작전에서 영국 특수부대 SAS가 MP5 기관단총을 사용하는 장면이 영국 공영 방송인 BBC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MP5 기관단총은 대테러 부대의 상징과 같은 총이 되었다. MP5 기관단총은 기본형 외에도 소음기를 장착한 MP5SD 그리고 MP5 기관단총의 크기를 줄인 MP5K등이 있다.



FPS Tip MP5 기관단총은 FPS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총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저평가되고 있는 총기다. 그러나 FPS 게임 속에서 MP5 기관단총은 소총들에 비해 위력이 낮을 뿐, 명중률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총이다. 특히 근접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포인트맨 만세!



작고 가벼운 기관총 FN Minimi

파워 ★★
 정확도 ★★★★★
 반동 ★★★★★
 무게 6.85kg / 길이 10.4cm
 총신 길이 46.5cm
 사용 탄약 5.56X45mm 나토탄
 발사 속도 분당 700~1,150발



1974년 벨기에의 FN(Fabrique Nationale)사는 5.56mm 탄을 사용하는 미니미 기관총을 개발한다. 기존 기관총보다 작고 가벼웠던 미니미 기관총은 세계 각국 군대의 사랑을 받았고, 1984년에는 일부 개량을 거쳐 분대 지원 화기로 미군에 채용되었다. 우리 군도 1989년부터 미니미를 참조한 K-3 기관총을 개발해 운용 중이다.





FPS Tip 최근에는 좀비 모드를 지원하는 게임이 많다. 이 경우엔 일반 모드와 달리 상대해야 할 적도 많고,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보스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탄약을 대량 휴대할 수 있는 미니미아말로 좀비 모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NO.5

원샷 원킬의 저격총 아크틱 위페어 저격총

파워 ★★★★★

정확도 ★★★★★

반동 ★★★★★

무게 6.5kg / 길이 118cm / 총신 길이 66cm

사용 탄약 7.62X51mm 나토탄,

300 윈체스터 매그넘,

338 라푸아 매그넘

오늘날 저격총을 대표하는 아크틱 위페어는 개발국인 영국을 비롯해 21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2001년 2002한일 월드컵에 대비해 아크틱 위페어 저격총을 도입했고, 707 특임대와 경찰특공대 그리고 해군특수전여단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1월에는 영국 육군의 크레이그 해리슨이 아프간에서 아크틱 위페어 매그넘 저격총을 사용해 2,475m의 저격에 성공하기도 했다.



FPS Tip 어떤 FPS 게임이든 아크틱 위페어 저격총이 등장한다. 잘만 사용하면 원샷 원킬의 저격총이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총이다. 특히 볼트 액션 방식을 사용하는 탓에 장전 시간이 길어, 첫발을 맞히지 못할 경우 적의 공격에 손쉽게 당할 수 있다. 완벽하게 사용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칼이 있다면 어떨까? 1→뺑!→3→1→뺑!→3



역시 카모플라주보다는 올블랙이 낫지.



오른쪽 다리가 포인트죠.

세계의 저격왕 이 아저씨들이 레알 저승사자네.

시모 하이하

하이하이 아니다.



별명: 하얀 사신
국적: 핀란드
참전: 겨울전쟁
살상자 수: 510~602명
특이사항:
조준경 미사용(!?)

→ '하얀 사신'으로 불리는 시모 하이하는 경악스럽게도 조준경이 없는 상태로 저격을 했다. 오른쪽 버튼이 망가진 마우스로 FPS 게임, 심지어 스나이퍼를 하면서 통산 600킬 0데스의 기록을 세운 셈이다.

바실리 자이체프

그런 토끼는 아닙니다.



별명: 러시아 토끼
국적: 러시아
참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살상자 수: 225명(공식),
400~500명(비공식)
특이사항: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주인공

→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하필이면 주드 로가 역할을 맡는 바람에 원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던 불운한 영웅. 말년에 와서는 시력 저하로 후임들을 키웠으나... 결국 구 소련은 붕괴했다.

카를로스 헤스록



별명: 하얀 깃털
국적: 미국
참전: 베트남전
살상자 수: 93명(공식),
300명(비공식)
특이사항: 카운터 스나이핑 기록 최대 12명

→ 살상 수가 다른 저격왕들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한 전투에서 혼자 1개 중대를 쓸어버렸다. 적 스나이퍼 12명을 상대로 카운터 스나이핑을 하며 상대의 조준경을 깨버린 얘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다.

GIFT for SOLO

솔로를 위한 선물

솔로들은 크리스마스에 더 행복하다. 선물을 안 해도 되니까 내 선물 더 좋은 거 살 수 있거든. 이게 바로 호강이지 뭐 달리 있겠어? 예수님도 솔로셨다. 커플들의 엉장질에 가슴 아파하지 마라.



↑ 소니 DEV5 망원경 캠코더

집에 앉아서 옆 건물 여자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고 싶다면. 물론 녹화도 하고 싶다면.
가격 2,190,000원 문의 1588-0911

귀라도 호강하자



2 **오디오 테크니카 이어수트**
닥터 드레 헤드폰이 멋지긴 하지만 그건 헤드폰 이야기고 너는 그냥 헤드폰 걸이다. 일상복에 두루 어울리기 힘들단 뜻이다. 오디오 테크니카 이어수트는 가죽 헤드 밴드에 맥북을 연상케 하는 알루미늄 패드를 사용해 어디에나 쉽게 녹아든다.
가격 297,000원 문의 02-2234-2233



3 **아이리버 아스텔앤퀸 MQS 플레이어**
CD도 압축 음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스튜디오에서 막 만들어진 바로 그 24bit/96kHz 음원을 재생 가능한 최고의 프리미엄 음원 플레이어. 음덕들의 심오한 세계란...
가격 698,000원
문의 1577-5557



4 **페라리 바이 로직 3 t350**
남자에게 페라리란 언제나 이런 뜻이다. 존나 멋지대! 페라리 하면 레드지만 이탈리아인 레드는 오직 자동차에만 어울리니 욕심부리지 말도록. 빨간 티셔츠 입은 애들 열라 없어 보여.
가격 535,000원
문의 02-546-0203

죽도록 게임이나 하자! 겨울은 집에 처박혀 게임 하기 가장 좋은 계절!



5 **매드 캣츠 사이보그 MMO 7**
한 손으로 MMORPG를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꿈의 마우스. 다양한 버튼과 자동 사냥 기능 덕분이다. 아무리 그래도 바지에 서 나머지 한 손은 빠지지?
가격 189,000원 문의 070-7500-0477



6 **ZOTEC 지포스 GT680 AMP! 에디션 D5 2GB**
당신의 <블레이드&소울> 캐릭터를 남보다 더 기쁘지고 윤기나게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질러라. 바지에서 손 빠라니?
가격 70만 원대 문의 02-3271-7310



7 **델 울트라사프 모니터 U2713HM**
대형 화면으로 당신의 <블레이드&소울> 캐릭터를 더욱 크고, 생동감있게 느끼고 싶다면 구매를 고려해 볼 것. 휴지는 꼭 좋은 것 쓰고.
가격 768,900원 문의 080-850-6050



8 **인텔 335 시리즈 SSD 드라이브**
로딩 시간을 도저히 못 참겠다나? 이 녀석은 읽기 속도는 물론 쓰기 속도도 동일하게 빠르다. 더불어 모터 구동 소음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용하다!
가격 20만 원대 문의 02-767-2500

GIFT for SOLO

청소해 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청소하자



다이슨 DC37 알러지 머슬헤드

다이슨의 진공청소기를 한 번 보면 이게 왜 청소기계의 명품으로 불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영국 알레르기협회에서 인정받은 뛰어난 방진 기술과 반할 만한 디자인은 99만 원이라는 가격표도 잊게 한다. 자, 잠깐 뭐라고? 99만 원?
가격 998,000원 문의 1588-4253



9



나 말고 애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 룸바650

섹시한 로봇 메이드가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타원형 청소기가 왠지 강아지처럼 귀엽게 느껴질 것이다.
가격 648,000원 문의 1577-4253

이불 속에서
게임하고 싶다면

18



소니 PSP VITA

닌텐도의 아동 지향적인 게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계단 가득한 그래픽이 거슬린다면 선택해 볼 만한 하이스펙 게임기. 좀 더 어른 취향의 게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콘솔 게임기의 이식작이다. 제대로 된 정식 발매 타이틀이 나온 지도 좀 됐다. 가격 248,000원 문의 1588-0911

19



닌텐도 3DS XL

대중적인 게임 라인업, 충실한 한글화, NDS 시절부터 쌓아온 다양한 타이틀에 신기한 3D 기능까지 더했다. 단, 여자친구와 이불 덮고 하기에는 좋지 않다. 옆에서 보면 3D로 안 보이거든, 아, 나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구나?
가격 278,000원 문의 080-070-9300

11



거빙스 열선 의류

'전기방석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열선 의류. 원래는 겨울철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집 안에서 가스비 절약할 겸 입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궁디만 따순 전기장판과는 비교를 불허!
가격 340,000원 문의 02-796-0700



12



TRY 히트업

원래 내복 하면 TRY다. 연말 히트텍 대란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해매지 말고 우아하게 TRY 매장에서 맘에 드는 히트업을 골라보자.
문의 02-3485-6000

안아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발열하라



다이슨 멀티플라이어 냉/온풍기

팬 없는 선풍기로 유명한 다이슨 멀티플라이어가 이제 열풍까지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미 깊게 파고든 8분의 1 가격의 싸구려 전기 열풍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가격 798,000원 문의 1588-4253



솔로는 홀로 마음을 살찌우지

14

다크 나이트 무비 컬렉션 1

서울 시민들을 위해 내가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다크 나이트의 길을 견뎌. 솔로도 그 시련의 하나일 뿐이지! <다크 나이트>에 과몰입한 당신을 위한 배트맨 특집.
가격 85,000원 문의 02-515-2000



15

더 파이팅

아무리 긴 연휴라도 이 녀석을 단번에 완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걸? 1989년 시작해 드디어 단행본 100권이 나왔다. 끝은 어떨까! 그걸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달리고 싶다! (주인공의 대사)
가격 4,500원 문의 02-828-8988



16

Y 더 라스트 맨

수컷 경쟁자가 모조리 사라진 지구의 행복한 모습을 꿈꿔보자. 물론 내용을 읽을수록 네가 상상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전개라는 걸 금세 깨달겠지만. 가격 20,000원 문의 02-3486-6877



17

MAXIM 정기 구독권

이 선물의 최대 강점은... 맥심에 중독된 그녀가 정기구독이 끝날 내년 크리스마스쯤에 다시 또 당신 생각이 간절히 나게 된다는 거지.
가격 12개월 60,200원 문의 02-323-1182



20



MS XBOX360 헤일로4 한정 콘솔

<헤일로>가 시리즈 종로 선언을 꺼고 네 번째 정식 넘버링 타이틀을 발표 거기에 멋진 디자인의 <헤일로4> 한정 콘솔까지 발매 이걸 안 살 수가 없잖아? <헤일로4>는 발매 하루 만에 2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순항 중!
가격 528,000원 문의 080-791-0880

21



소니 PS3 신형

플레이스테이션 3에 비해 무려 50% 이상 작아졌다. 조금 뚱뚱한 노트북 정도 크기다. 초반에 고전하던 모습과는 달리 <갓 오브 워>, <언차티드> 시리즈 등 대작 게임이 많이 출시된 데다가 앞으로도 기대작이 많다. 지금이 구매 적기!
가격 338,000원 문의 1588-0911

22



소니 헤드 마운트 HMZ-T1

좁은 방 안에서라도 바로 눈앞에 750인치 대형 3D 가상 스크린이 펼쳐진다. 마치 가상 현실 속으로 다이브하는 공각기동대처럼 최고의 몰입감으로 게임에 빠져들 수 있다! 그렇다고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리진 말자. 들기면 부끄러워, 국내 미발매



23

BMW R1200GS 어드벤처

기다리는 여자도 없는데 세계 여행이나 떠나자. 이 바이크와 함께라면 유라시아 횡단, 아프리카 중단을 문제없다. 이완 맥그리거가 이미 <롱 웨이 다운>에서 증명했다. 바람과 흙먼지를 맞으며 진정한 어드벤처를 체험하는 여행은 솔로들의 특권이지, 암. 가격 29,700,000원 문의 02-3453-9990

로얄 엔필드 C5M

모터사이클 본연의 모습을 십수 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 클래식 모터사이클. 복잡한 전자 장비를 최대한 배제해 세계 어디에서나 정비할 수 있는 명쾌한 녀석. 그래서 히말라야 산악 투어에도 로얄 엔필드를 이용하는 것이겠지. 가격 11,000,000원 문의 02-461-7411



26

다비다 스피드스터

클래식 모터사이클에 어울리는 클래식 영국 수제 헬멧. 가격 480,000원 문의 02-741-1948



24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그란투리스모

온갖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장거리 여행에서도 섹시함을 잃고 싶지 않다면, 또는 세계 여행을 레이스 하듯 즐기고 싶다면 두카티 밖에 없지. 이 화끈한 이탈리아인 종마는 시종일관 당신의 아드레날린을 뽐뿌질 할 것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1-1098

돈이나 벌자, 버는 게 남는 거지

그렇다고 고무마 장사를 하라는 건 아니야.



Microsoft Surface 31

MS의 태블릿 하드웨어 시장 진 출작. MS 오피스를 돌릴 수 있어 PC를 대체할 수 있는 태블릿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출시는 아직 미정이지만 발매와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태블릿 PC도 엔터테인먼트 용도가 아니다. 이 나쁜 놈들.



아이패드 미니 32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했던 '7 인치는 절대로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앱 등이만 아니라면 23% 얹아지고, 53% 가벼워진 아이패드가 꽤 매력적일 거다. 가격 420,000원 문의 02-330-8877



구글 넥서스 7 33

안드로이드 진영의 얼굴 마담답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드웨어 구성에 완성도 높은 레퍼런스 태블릿이다. 큰 특징은 없지만 이 정도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미래를 응축했다고 볼 수 있다.



Dell XPS 12 34

이건 태블릿이야, 노트북이야? 누가 뭐 상관이나 하겠어? 뒤집고 돌려서 어느 자리에서건 가장 편안한 포지션을 찾을 수 있거만 하면 되지.



면도기 브라운 시리즈 790cc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면도한 남자를 좋아한다. 수염을 기른다고 딱히 네가 차승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깨끗이 밀어버리자. 강력한 초음파 진동으로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게 뿌리까지 수염을 자를 수 있다.

가격 720,000원 문의 02-3471-1098

GIFT for SOLO

슬로 탈출을 계획한다면...



Teenage Engineering OP-1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이 왜 잘나가는지 아는가? 스튜디오로 데려가서 음악 만드는 거 조금 보여주면 그냥 게임 끝이거든. 그런데 갈 능력은 없어도 이 아름다운 디자인의 휴대용 신디사이저로 즉석에서 얼렁뚱땅 비트만 몇 개 만들어도 당신의 밤이 외롭진 않을 것이다.

가격 898,000원 문의 1688-1176



프리버드 혼(魂)

기타만큼 남자를 섹시하게 만드는 악기도 없지.

가격 720,000원

문의 02-3471-1098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Disklavier DC3E3

기타 치는 남자가 그녀의 티셔츠를 올라가게 한다면 피아노 치는 남자는 그녀의 소녀 감성을 폭발시킨다. 피아노 배울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랜드 피아노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키보드의 자동 연주 기능을 가진 야마하의 디스크 라비어가 딱이다. 손싱크만 잘 맞추면 라흐마니노프도 겸이다.

가격 4,500만 원대 문의 02-3467-3300

최신 애니팡 머신



애플 아이폰 5

더 길어진 스크린과 빨리진 프로세서, 800만 화소에 달하는 iSight 카메라, 더 뭉 원해? 우린 널 위해 빨리 나와라!

35



삼성 갤럭시 S3

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온 우주(갤럭시)를 손에 쥔 갤럭시투스(마블 세계관의 거대 악당) 같은 기분이 들거다. 다른 갤럭시S3와 접촉하면 파일이 전송된다. 우주의 기운! 우주의 기술!

36



HTC 윈도폰 8

엑스박스 라이브의 게임 기능과 ZUNE의 음악 감상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 주머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셈이다.

37



LG 옵티머스 뷰

반은 폰이고, 반은 태블릿이러니! 이것은 LG의 진정한 슬램덩크다! 거기에 폰보다 더 대박난 번들 이어폰은 덤이다.

38

GIFT for COUPLE

커플을 위한 선물

나에게 주는 선물인데 알고 보면 여성을 위한 선물



39 미니가드

칠칠맞게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여친에게 귀여운 족쇄를 채우자. 평소에는 핸드프리로 사용하다가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는 거리까지 멀어지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내 휴대폰 분실을 방지한다.
가격 79,000원 문의 02-547-2011

추운데 자주 밖으로 나가자는 그녀. 집에서 모두 해결하자!

40



40 아마하 YAS-101 가상 서라운드 스피커

이제 극장에서 그녀 손 한 번 더 잡아보려고 눈치 보지 마라. 대형 텔레비전과 아마하의 신기한 서라운드 스피커만 있으면 개인 전용관이 필요 없다. 골드 클래스? 거기도 이렇게 이불 갈아주나? 가격 49만 원대 문의 02-3467-3300

42



42 네스프레소 U

이 작고 귀여운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면 더 이상 커피 마시러 밖에 나가자는 그녀의 투정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 이제 집에서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내내 그녀의 품속에 파묻혀 있을 수 있다.
가격 249,000원 문의 080-734-1111



41

41 LG OLED TV

기술적으로 여러모로 불완전했던 LCD를 완벽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OLED. 픽셀 스스로가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더욱 얇은 디스플레이 제작이 가능하고 색상 왜곡 또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제조 수율이 한 자릿수라는 소문이... 율 해는 못 보는 거야? 가격 1,000만 원대 문의 02-3777-1114



43

43 옵토마 HD33 3D DLP 프로젝터

“영화관이 무슨 필요야? 여기가 영화관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200인치 대형 화면은 필수. 진정한 홈시네마가 뭔지 보여주는 이 프로젝터로 여친 앞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라!
가격 260만 원대 문의 080-344-0004

역시 파티에는 술 아니겠어?

49



걸인 더 문 밀러 보틀슈트 밀러의 쿨링 보틀슈트. 잠수복 재질이라 튼튼하고 지퍼가 달려서 쓰기 편하다. 그중 'Girl in the Moon' 디자인은 강렬한 레드에 로맨틱하게 그려진 달 속의 소녀 이미지가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린다.
국내 미발매. 가격 3만 원대

50



X 24

카스 라이트 다이어트 한다고 술을 멀리하는 그녀에게 일반 맥주보다 33%나 칼로리가 낮은 맥주를 선물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자. 방심하고 훌쩍 훌쩍 마시다가 어느새 무장 해제된 그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가격 한 상자 3만 원대
문의 02-3471-1098

51



헨드릭스 진 만들기 쉽고 분위기도 살려줄 진 토너 칵테일을 그녀에게 건네면 서 다정, 심세한 남자로 여필하라. 여자들이 환장할 만한 깜찍한 3D 입체 크리스마스 패키지 안에는 헨드릭스 진 1병과 도자기 잔 받침이 들어있다.
가격 5만 7천 원 알코올 도수 44%



44 B&O 베오 플레이 A8

요즘 애플 제품들의 단자가 30핀에서 8핀으로 바뀌는 중이지만 B&O 베오 플레이 A8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애플 에어 플레이를 지원해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간지를 위해 꼭 독에 꽂아야겠다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무료로 8핀 커넥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 1,680,000원 문의 02-518-1380



45 B&W 제플린 에어

이름만 보면 BMW 짝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B&W는 그 BMW보다 더 고급스러운 영국 오디오 명가의 이름이다. 제플린이란 영화 촬영할 때 쓰는 붐 마이크를 떠올리면 쉽다. 모양이 딱 그렇지? 섬세한 현악 표현에 어울리는 부드럽고 청명한 소리를 낸다. 가격 959,000원 문의 02-335-0006



그녀와의 무드에 음악이 빠질 수 없지



46 아이팟 5세대

아이폰5가 도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아이팟 5세대 유저들은 그 신세계를 체험하고 있다. 오랜만에 등장한 라임, 핑크, 블루 컬러가 그동안 없던 상큼함을 선사한다. 가격 399,000원 문의 080-330-8877



당신의 폭음을 부추길 재미난 아이템!



47

시핑 시트 플라스크 쿠션

(Sippin' Seat Flask Stadium Seat Cushion) 낚시, 캠핑, 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술 반입이 금지된 곳에서도 원하는 술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방석 안에 숨은 봉지에 미리 담은 술을 튜브로 따라 마시면 된다. 알보지 마라. 와인 한 병은 거뜬히 담을 수 있당께 국내 미발매. 가격 35,000원대



48

합스 홀스터 12칸 아모 팩

(Hops Holster 12 Can Ammo Pack) 이게 뭘 병신 맥주서들인가 싶겠지만, 맥주캔 12개를 주렁주렁 단 사나이를 실제로 마주친다면 경외심이 들 거대 그리고... 후식 전쟁 중에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 아침, 이걸 메고 친구들 사이에 서있으면 노예나 인간 노새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국내 미발매. 가격 40,000원대.

크리스마스? 몰라, 독주와 함께 잊어버리자!

52



하바나 클럽 아네호 7 아노스 계집애들이나 흠찍이는 모히또는 이제 그만. 쿠바의 럼 브랜드 하바나 클럽이 만든 '하바나클럽 (아바나 클럽) 아네호 7 아노스'를 스트레이트, 언더룩으로 맛보라. 당신의 뇌에 '현실 망각'이라는 선물을 내려줄지니. 가격 5만 원대 알코올 도수 40%

53



발베니 더블우드 12년 혼자 공상떨지 말고 새 친구를 만들자. 수제 싱글 몰트 위스키는 어떤가. 두 가지 오크통에서 숙성시켰다고 하여 '더블우드'다. 미즈와 리(물 섞기), 언더룩, 스트레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보라. 혀를 얼얼하게 마비시키는 달콤한 자극이 여체 못지않게 즐겁다. 가격 9만 원대 알코올 도수 40%

54



시바스 리갈 12년 Made for Gentlemen by Tim Little 구두 브랜드 그렌슨의 오너이자 디렉터 팀 리틀이 디자인한 수제 화 패턴의 틴케이스가 지름신을 부른다. 장난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남성다움이 느껴진다. 직장 선배나 상사에게 점수 따기 좋은 선물 아이템. 가격 4만 원대 알코올 도수 40%

GIFT for COUPLE

데이트에 타고 나갈 차는 있나?

55 푸조 RCZ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유일한 버블 루프의 독특한 포스와 바닥에 붙어 달리는 것 같은 와이드 보디가 실제 몸값보다 훨씬 비싸 보인다. 이 가격으로 여성들을 무한 공급받겠다고 생각해보면 결코 아까운 투자가 아닐걸?

가격 55,450,000원 문의 080-734-1111



55

56 토요타 86

이거 사면 혼자 고갯길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솔로로 복귀할 확률이 높다. 그녀의 굴곡에서 즐기던 와인딩이 최고로 재미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거든.

가격 38,500,000원 부터
문의 02-2165-4280



56

미니 폴딩 바이크

돌아오는 봄에는 자동차 뒷 트렁크에 쏙 들어가는 미니 폴딩 바이크를 신고 팔당뎀 라이딩을 즐겨보자. 근처에는 멋진 카페나 맛집도 즐비하니 이보다 더 로맨틱한 데이트는 없겠구나.

가격 850,000원 문의 080-646-4001



58

58 시트로엥 DS3

은색, 흰색, 검정색으로 압축되는 거리의 차량 색상에 질리지 않나? 자동차도 충분히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시트로엥 DS3는 세련된 프랑스 여인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감각적인 인디비주얼 컬러 선택으로 개성을 뽐낼 수 있다.

가격 29,550,000원 문의 02-545-5665

정력 증진 계획

63



아장 프로보카티르 클래식 Birthday Suit Set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신을 주겠다며 온 몸을 포장하고 있는 그녀에게 몸으로 때울 생각이냐며 엉덩이를 찰싹 때려주자. 가격 브라, 브리프, 서스펜더 세트 544,000원
문의 02-516-5685

64



빅토리아 시크릿 사틴 베이비들
올랜도 (씨)볼름에게서 그녀를 빼앗을 수 없다면 저 보라색 사틴 베이비들 원피스라도 빼앗아 그녀에게 선물하자. 가격 52달러

65



미즈노 수영복
사실 겨울이야말로 실내 수영장에 놀러 갈 최고의 계절이다. 사람이 정말 없거든 그녀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며 색시 뒤편을 맘껏 감상하자.

66



번인텐스 X 30
그녀와 한 캔씩 나눠 마시고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까지 밤새도록 해보자(말?)
가격 한 상자 3만 원대



파나소닉 루믹스 GX1

단렌즈가 카메라를 작게 만들어주고 심도가 얇은 예쁜 사진을 찍어주긴 하지만 그녀는 좀 없는 카메라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린 그녀는 발 zoom을 포기하고 발로 찍은 사진을 만들어 낼 확률이 높다. 루믹스 GX1은 단렌즈 크기에 표준 zoom 렌즈를 담아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았다.

가격 1,098,000원 문의 02-533-8452



59



캐논 EOS M

캐논 하면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인물 표현은 그들이 만든 최초의 미러리스에서도 여전하다. 그 많은 사진을 일일이 보정하지 않고 바로 카톡 사진으로 쓸 수 있으니 그녀의 포토샵 셔틀을 안 해도 된다. 만세!

가격 978,000원 문의 1588-8133



62



60



올림푸스 OM-D

그녀가 들고 다니기에 조금 무겁고 커보이긴 하지만 클래식한 외관과 사진 찍을 때마다 느껴지는 찰진 셔터음은 어느새 그녀를 카메라 덕후로 만들어 버릴 게 확실하다. 올림푸스는 바로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다.

가격 1,798,000원 문의 1544-3200

그녀의 손에 들려줄 깜찍한 미러리스 카메라



펜탁스 K-01

다른 브랜드에서 쓰지 않는 색상에 도전하길 좋아하는 펜탁스에서 이번에는 옐로우 컬러에 도전했다. 유명 산업 디자이너인 마크 뉴슨의 손을 빌어 미니멀하지만 발랄한 생김세로 마치 장난감 카메라처럼 생긴 미러리스를 만들어냈다.

가격 608,000원 문의 02-3668-3173



61

직접 야동을 찍고 싶은 탐험가라면

67

소니 DSLT A57

보급기가 초당 12연사라니! 강력한 연사 능력으로 사진만으로 그럴듯한 GIF 파일도 만들 수 있겠다. 유튜브가 느껴져서 못살겠다던 웹에서 간단히 볼 수 있는 GIF 파일이 겁이 없지. 그렇다고 그녀와의 개인적인 사진까지 웹에 올리진 말고.

가격 978,000원 문의 1588-0911



68

소니 프로젝트 캠코더 PJ260/B

가끔 장신 나간 것처럼 희한한 제품을 내놓는 소니에서 이번에는 찍은 영상을 바로 벽에 투사해서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캠코더를 선보였다.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당신의 상상력에 달렸다!

가격 999,000원 문의 1588-0911



고프로 히어로3 블랙 에디션

서핑이나 모터사이클 라이딩처럼 극한 상황에서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는 익스트림 캠이다. 그 말은 그녀와의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도 마친가자라는 말 아니겠어? 최신 버전은 HD를 뛰어넘는 초고화질과 와이파이 컨트롤 모드를 탑재했다.

가격 599,000원 문의 031-776-0360

69

★ The
MAXIM
 With Blizzard
 Party★
 FINAL FANT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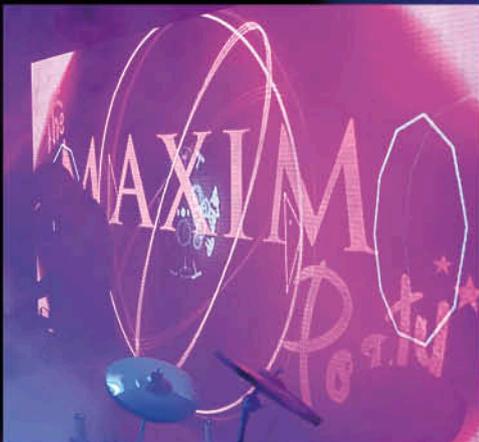


남자라면 환장할 수 밖에 없는 MAXIM 파티,
 그리고 게임의 끝판왕 블리자드! 이 둘이 만났으니
 그 끝이 얼마나 창대했는지 짐작이 가지?

BY 손연나 PHOTOGRAPH ARC STUDIO 김명호
 DESIGN 신숙희 FILM 최성준 ASSISTANTS 박수현, 최동희



올해는 어느 때보다 MAXIM PARTY가 풍성한 한해였다. 반얀트리 서울에서의 풀 파티를 시작으로, 대전 해변에서 에이콘(Akon)과 함께한 비치 파티, 클럽 엘루이에서의 광란의 밤까지...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잖아? 저물어가는 2012년의 끝을 잡고 마지막을 불사르고 싶은 사람들, 손!





핫 뜨거운
파티 현장



그래서 준비한 2012년 마지막 MAXIM PARTY는 지난 11월 13일 서울 워커힌 호텔 우바에서 열렸다. 게임 마니아들이 많이 올 것이기에 혹여 남탕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슬대없는 기우였다. 파티장으로 입장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던 줄에는 핫하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초미니 원피스 차림의 미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 게임 피플들도 청담동 못지않게 물이 좋구나!



어지간한 걸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모의 코스프레 팀 스파이럴 캣츠도 함께했다. 스타크 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블리자드의 게임 캐릭터로 변신한 그녀들과 함께한 이번 파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FINAL FANTASY. 몽환적인 조명, 술과 음악 거기에 어시시한 게임 캐릭터들이 파티장을 휘젓고 다니니 그야말로 환상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아, 여기가 꿈이야 현실이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취하고 싶은 만큼 취하고,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한가? 이번 파티에서는 맥주, 와인, 칵테일 등 다양한 술과 핑거 푸드가 무제한으로 제공됐다. 게다가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쓰게 해준다'는 레드불까지 무제한! 기분 좋게 취한 남녀들은 와인 잔을 하나씩 들고 스테이지에서 몸을 부벼 댔다. 늦은 시간까지도 입장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만 술이 동이 날까 걱정되지는 않았다. 통 큰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MAXIM 파티에 무제한 알코올을 약속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몸이 달은 싱글 남녀들은 짝을 MAXIM 파티라는 A급 어장에서 찾기 위해 사냥질에 여념이 없었다. 1층의 메인 무대와 VIP를 위한 2층 라운지로 꾸민 파티장은 혼자 온 남녀들의 짝짓기를 위한 안성맞춤이었다. 파티션들로 나뉜 공간에서 남녀가 뒤엎켜 무슨 일을 벌이는지는 머느리도 모를 일. 각자 온 남자가 상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파티장을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흐뭇한 엄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거사치르고 아침에 스타 한 판씩들 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에디터가 여러 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알게 된 지극히 현실적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줄게.

BY 김희성 DESIGN 전은경



비싼 크리스마스 메뉴, 어딜가도 만원인 식당...
 평소 같으면 짜증을 내고도 남았을 테지만 여자들은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단지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용서해 버린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2년 전이었던가? 당시 만나던 남자에게 크리스마스는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이 별로라고 했다. '크리스마스가 뭐 별거냐며 쿨한 척 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에 만나도 사람만 많고 비싸기만 하니 다른 날 만나서 더 재미있게 놀자고 착한 척도 했다. 미안, 사실 그 날 다른 남자랑 약속이 있었어.



크리스마스엔 참으로 많은 것이 특별해진다. 거리의 장식도,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표정도 평소와는 사뭇 다르다. 그뿐이 아니다. 그녀의 마음가짐도 평소와는 다르다. 12월 중 하루일 뿐인 이 특별한 것도 없는 날이 뭐라고 크리스마스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고 온갖 것들이 잔뜩 기대되는 흥분 상태가 된다. 크리스마스를 잘만 활용하면 6개월 걸려도 못 했던 진도를 단숨에 좌악 뺄 수 있다는 거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첫날밤에 대한 로망만큼이나 크리스마스 데이트에 대한 로망도 크다. 크리스마스에는 평소와 가던 곳과 레벨이 다른 곳에서 근사하고 우아하게 보내고 싶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러다 보니 좀 관찮다 싶은 데는 자리가 없는 게 함정. 크리스마스에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예약은 필수다. 여친이 "어차피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도 많고 그냥 우리 둘이 조출하게 보내지"라고 해서 관찮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진짜로 조출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앞으로 적어도 한 달은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근사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만으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녀에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 그녀가 빠지면 당신만 피곤해지잖아?

마음의 준비

평소 자주 가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메뉴판이 싹 바뀌어 있었다. 그는 다른 데로 가자고 했다. 돌아다녀도 자리는 없고 나는 힐을 신고 있어서 다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추웠다!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



관찮다 싶은 가게들은 크리스마스 메뉴판을 따로 제작한다. 반짝이풀이나 리본이나 뭐니 해서 요란스레 꾸미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소 8,000원 하던 파스타가 1만5,000원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크리스마스에 여자 손 잡고 좀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처음 겪어보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체크카드에 잔고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식사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만큼 진담나는 일도 없잖아? 평소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지만, 혹시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해 놔을지도 모르니 미리 전화를 걸어 가격대를 조사하는 게 좋을 거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에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그녀에게 들리면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크리스마스 로망이 싹 달아날 테니까... 자, 울지 마. 몇 시간 후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린 게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는 건 엄청난 모험이다. 알다시피 이날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고 비싸다. 평소라면 그녀가 먼저 화를 내며 "오빠, 우리 다른 데 가자. 내가 더 맛있고 싼 곳을 알아"라고 하겠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은 그렇지 않다. 여자들은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단지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용서해 버리기 때문이다.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남자 선물 고르기다. 작년 크리스마스 뭘 뭘 줄까 고민하다가 흥대 앞 콘돔 전문점에 가서 막대 사탕처럼 포장된 콘돔을 잔뜩 사서 꽃다발처럼 포장해서 줬다. 처음엔 사탕인줄 알고 반응이 뜨뜻미지근 하더니 그 사탕의 실체를 깨달은 순간 박장대소했다. 이런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라며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와는 헤어졌지만 이후 다른 남자들에게도 종종 써먹고 있다.



크리스마스에 또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분위기 좋은 데서 비싼 돈 들어가며 밥도 먹었는데 선물까지 챙겨줘야 하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챙겨주는 편이 낫다. 솔직히 애기하면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받고 싶은 게 여자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비싸고 반짝이는 걸 원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박혀 있는 여자들이라면 상대방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생일 선물과 달리 그냥 기분 내는 용도지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만 호구가 되어 그녀에게 선물을 주긴 좀(많이) 억울하다. 그래서 그녀에게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내는 법을 알려주려고. 먼저, 크리스마스를 2주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그녀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주기적으로 물어보라. 그러면 그녀의 머릿속엔 "아,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겨주는 타입인가 보군"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면 그녀도 그때부터 슬슬 당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하기 시작





당신이 평소 갖고 싶었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그녀와 대화하는 중에 은근히 흘려라.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고민에 빠진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그 떡밥을 냉큼 물어버릴 거다. 그리고 사실 이걸 여자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낼 때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 작업

크리스마스 때 마음에 드는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친구들 눈치 때문에 거절한 적이 몇 번 있다. 웬만하면 같이 놀고 싶었지만 잡고 있는 손을 이렇 정도로 꼭꼭 누르는 친구가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다. 아, 아까비!



아, 미안하다. 크리스마스에 같이 밥 먹을 사람조차 없는 수컷들의 표정이 썩어있을 걸 생각하니 에디터의 마음이 아프다. 걱정 마라.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는 여자도 많으니까. 당신은 거리로 나가 암컷 무리를 공략하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건 크리스마스에 모여 있는 암컷 무리를 모두 솔로라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거다. 같이 노는 무리 중에서도 남친 있는 애와 없는 애가 갈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남친과 보내고, 25일은 친구들과 보내는 습성이 있다. 누가 그렇게 정한 건진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암묵적인 약속이라고나 할까? 그러니 25일보다는 24일에 떼로 모여 있는 암컷들을 공략하는 게 당신의 작업 성공 확률을 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24일, 클럽이나 술집 혹은 길거리에 무리지어 있는 그녀들에게 들이대봐라. 어차피 너나 나나 크리스마스에 외로운 건 마찬가지고 날이 날이니만큼 평소

할 거다. 2주 전부터 물어보라는 건 그녀에게도 고민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게다가 크리스마스에 압박해서는 택배 발송량이 많아 일찌감치 준비해야 하니까. 사실 여자들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남친을 만나기로 했다면 뭘 사줄지만 고민이고 뭐라고 규정짓기가 애매한 사이의 남자를 만날 땐 선물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된다. 항상 여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니 당신이 그녀의 고민을 줄여주란 말이다. 당신이 평소 갖고 싶었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그녀와 대화하는 중에 은근히 흘려라.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고민에 빠진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그걸 냉큼 물어버릴 거다. 그리고 사실 이걸 여자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낼 때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고? 그러지 않으면 십자수 세트를 선물로 받는 재앙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녀가 이제까지 당신을 밀어내기만 했다면 크리스마스가 절호의 기회다. 여자들은 왜 하고많은 날 중 남의 생일에 섹스를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엔 도도하게 굴었을 그녀들도 쉽게 오케이할 가능성이 크다. 간혹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정말 당신이 별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 여자들은 놀기 전에 이후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들처럼 놀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고 약속을 하거나 반대로 "놀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합석하자", "합석은 하더라도 둘둘씩 사라지진 말자" 등 다양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친구들과 끝까지 놀기로 약속한 날엔 당신이 아무리 원빈이라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다. 아, 원빈이라면 얘기가 좀 다른가? 어찌됐든 한 번 거절 당했다고 절대 주눅들지 말라는 거다. 한 번 시도했던 곳을 집중적 공략하지 말고 여러 무리의 여자들에게 집적대는 편이 훨씬 유리할 거다. 한가지 더. 그녀와 합석하기로 했다면 술을 절대 많이 마시지 마라. 당신이 술김에 섹스하자고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여자는 섹스를 앞둔 순간이 되면 의미 없이 당신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도 수십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법. 괜히 오해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다음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녀가 좋아하는 술로 분위기를 살짝 업시키는 정도로 간단하게 마신 다음 그녀의 손을 잡고 나오면 된다.



크리스마스니까 괜찮아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랑 밤새 놀기 위해 흥대에서 만났다. 날이 날이니만큼 합석을 제안하는 사람도 번호를 따가는 사람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그날은 별로 내 타입이 아닌 사람들이라든 번호를 알려줬다. 왜? 크리스마스니까.



이상하게도 여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평소에 눈이 오면 출근길 대란이지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에는 아무리 추워도 '크리스마스다운 겨울 날씨가 되는 거다. 평소보다 두세 배 비싼 파스타도 '크리스마스 메뉴니까' 하며 그냥 용인하듯이.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에 첫 섹스를 결심하는 여자도 많다. 크리스마스라면 첫 경험을 해도 왠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이다. 영화에서처럼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 친구에게 아예 대놓고 크리스마스 때 섹스를 허락하겠다고 말하는 여자도 은근히 많다. 아직 그녀와의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녀가 이제까지 한사코 당신을 거부하기만 했다면 크리스마스가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여자들은 왜 하고많은 날 중에 남의 생일에 섹스를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니까 괜찮아 2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에 하룻밤을 보낸 상대와는 연락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크리스마스에는 뽀해도 낭만적이고 뽀해도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아, 술도 약하지만 분위기에다 약해서 큰일이야.



크리스마스에 용납되는 게 또 있다. 원 나이트 스탠드가 그렇다. 그날 딱히 약속을 잡을 만한 상대가 없는 여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불태우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클럽이다. 술도 음악도 남자도 다 있으니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대다수의 여자들은 애초부터 섹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럽을 찾진 않는다. 분위기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놀다가 뽀 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자리에 가서 술 한잔 하자는 남자들의 제안을 싸가지 없을 만큼 쿨하게 거절하는 여자들도 이날은 좀 외롭다. 모르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건 그렇고 그런 여자들이나 하는 짓으로 치부해버리던 여자들도 크리스마스 이브의 원 나이트 스탠드는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서 이뤄지는 낭만적인 사랑으로 치환해버린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적극적으로 들이대도 괜찮다.

궁극적인 문제

둘이 한껏 달아올라 밖으로 나왔지만 빈방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사이에 술이 다 깨는 것만큼 기분이 나쁜 경우도 없다. 그래도 그냥 헤어지긴 아쉽잖아? 결국 우리집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클럽을 나오는 순간 근본적인 문제가 눈앞에 펼쳐진다. 12월 24일, 빈방이 있을 리가 있다. 이때 "오빠, 우리 집이 비었어"라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는 여자아말로 하느님이요 성모마리아! 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주님이 찾아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 불타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 근처에 방을 하나 잡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 클럽에서 놀면 집에 들어가 피곤할 것 같아서,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아예 방을 잡아뒀다는 식의 멘트 하나면 충분하다. 에디터 같은 고단수라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 까고도 남겠지만 그런 짓쯤은 당연히 모른 척하고 넘어 갈테니 걱정 마. 아는 척 해서 득 될 게 없잖아?

단, 아무 방이나 고르면 안 된다. 모던한 인테리어가 필수, 심플한 곳이 좋다. 흑시라도 재수 없게 침대 위에 캐노피가 쳐져 있다거나 핑크색 벽지로 장식한 공주테마의 방이 걸렸다면 방을 바꿔달라고 할 것. 공주풍으로 도배된 방에 혼자 자려고 했던 남자라... 별로잖아?

축! 성탄

평소 아끼지기한 거라면 환장하는 내 취향을 파악했던 건지 갈 데가 있다며 나를 불러내 인어공주 콘셉트로 꾸며진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는 무려 조개모양이었고 벽지도 조명도 완전 근사했다! 환상적인 바다 왕국에 사는 진짜 인어공주라든 된 느낌이였다. 근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사실 여기 떠남 자랑 봐왔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엔 MT 예약이 필수다. '이렇게 많은 모텔 중에 방 한 칸 안 남겠어?' 하는 인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크리스마스고 뭐고 없다. 그렇게 많은 모텔뿐만이 아니라 싸구려 여인숙에도 당신 설 곳 없으니. 젠장, 세상에 이렇게 커플들이 많았던가?

이렇게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성탄절을 보내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우리는 왜들 그렇게 섹스를 하려는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남의 생일을 축하해 보겠어.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

MAXIM KOREA

2013년 정기 공개 채용



세계 85개국에서 발행되는 최강의 글로벌 남성 매거진 MAXIM의 한국 법인에서 2013년 정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MAXIM과 함께 지구 최고의 매거진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재치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전형 절차〉

소속	모집직군	전형 절차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차 면접전형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임원 비서직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과제전형 ▶ 3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온라인 뉴스 기자	
디자인팀	영상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편집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부	스타일링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전형 절차	기간	유의 사항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2012년 11월 7일 ~ 2013년 1월 22일 자정까지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접수. ※ 정해진 방법 외로 접수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증명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1차 전형(서류) 합격자 발표	2013년 1월 28일 저녁 9시	MAXIM KOREA 홈페이지에 공고
이후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후 일정 통지

〈서류 전형 면제자〉

대상자: MAXIM에서 6개월 이상 어시스턴트로 근무하였거나, MAXIM에서 대학생 인턴십을 수료한 자. (필수 지원 자격은 갖추어야 함)
특전: 서류전형 통과 (근무했을 때와 다른 부서에 지원 가능)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상의 〈서류전형 면제자〉란에 체크하고, 자기소개서 없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여 접수할 것.

〈근무 형태〉

인턴직: 사내 규정상의 인턴기간동안 근무하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진
급여조건과 복리후생: 사내 규정에 따름
근무장소: 서울 홍대입구 MAXIM KOREA 빌딩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소속	모집직군	모집인원	필수 지원 자격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0명	-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 가산점 유)
	온라인 뉴스 기자	0명	- 전공 무관
	영상 에디터	0명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스타일링 에디터	0명	
디자인팀	편집 디자이너	0명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일러스트레이터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 가산점 유)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0명	- 전공 무관 / 관련 학과 우대
	임원 비서직	0명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필요적성 및 우대요건>

소속	모집직군	직무	필요 적성 및 우대 요건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온라인 홍보/ 바이럴 마케팅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기획 -클럽 파티 플래닝 -모델 에이전트	-클럽 파티 플래닝 유경험자 -홍보대행업무 유경험자 -바이럴 마케팅 유경험 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자 -대외관계 및 친화력이 좋은 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우수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콘텐츠 기획 -기사 작성 -화보 촬영 디렉팅 -섭외 -기타 MAXIM 매거진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	-작문 능력이 있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자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자 -영어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 -매거진 에디터 및 어시스턴트, 인터넷 뉴스미디어 유경험자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능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온라인 뉴스 기자	-대외 취재 활동 전반 -온라인 기사 작성 -해외 MAXIM 기사 번역 등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영상 에디터	-화보 현장 촬영 -영상 취재 -영상 편집 -기타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업무 전반	-영상 촬영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세련되고 감각적인 촬영/ 편집이 가능한 자 -영상 관련학과 및 경험 우대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스타일링 에디터	-화보 의상 스타일링 -헤어 및 메이크업 스타일링 -기타 편집부 지원 업무	-직접 헤어/ 메이크업 가능한 자 -헤어/ 메이크업/ 의상 관련 학과 또는 교육기관 수료자 -패션과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뛰어난 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디자인팀	편집 디자이너	-매거진 편집 디자인 -디지털 매거진 제작 -전자출판 관리 -웹디자인 -기타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	-Adobe Indesign 툴 사용이 능숙한 자 -지면 구성, 시각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자 -시각 디자인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일러스트레이터	-매거진 삽화 -웹툰 -티셔츠 등 제품 삽화 디자인	-Painter 툴 사용이 가능한 자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자 -회화, 웹툰, 캐리커처에 능하고 다양한 그림체가 가능한 자 -외향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회화, 만화 기타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직무 유경험자 -MAXIM의 매체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리는 자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매거진 유통 및 재고 관리 -구매 고객 관리 -판로 개척 -온/오프라인 서점 감독 -전산 설비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친절하며 대외 친화력이 좋은 자 -온라인 쇼핑몰 MD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임원 비서직	-CEO 또는 편집장 보좌 업무	-수행비서로서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비서 기타 서비스직의 적성을 가진 자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직무 유경험자

<문의 사항>

공채 관련 문의사항은 recruit@maximkorea.net 으로 이메일 문의 바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MAXIM BUYER'S EDGE



아이소이 에센스로 얼굴의 주홍글씨를 지우자

아이소이에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천연 기능성 화장품 아크니 닥터 퍼스트 컨트롤 에센스를 내놓았다. 이 제품의 성분인 실새삼씨 추출물, 광중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등은 트러블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히 관리해준다. 또 티트리 오일과 로즈힙 열매 오일 성분은 피지 분비를 조절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인 모공 막힘과 유수분 불균형을 해결한다. 아이소이 에센스로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겠지?

가격 38,000원 문의 아이소이(1544-4302, www.isoi.co.kr)



연말연시 특별한 만찬을 위해 '더 키친 살바토레'

정통 나폴리탄 레스토랑 '더 키친 살바토레'가 연말연시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찬을 위한 스페셜 코스를 준비했다. 이번 스페셜 코스는 카프레제, 로메인 샐러드, 브루스케타 등 입맛을 돋우는 모듬 전채요리를 시작으로 더 키친 살바토레의 대표 메뉴인 D.O.C 피자, 계절 해산물 링귀네 파스타와 포르치니 버섯 리조토를 즐길 수 있다. 또 다양한 그릴 요리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으니 이만하면 완벽한 만찬이 아닐 수 없겠지? 1인당 6만 원으로 12월 1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더 키친 살바토레 쿠오모(02-3447-0071), 더 키친 살바토레 앤 베키(02-730-5545)



12월을 뜨겁게 달굴 UFC 빅 매치!

남자라면 UFC! 오는 12월 9일 일요일 오전,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한국계 UFC 파이터 벤슨 헨더슨 선수의 2차 방어전이 열린다. 도전자는 좀비 파이터로 악명 높은 네이트 디아즈 선수. 이어 12월 30일 일요일 오전에는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 선수와 케인 벨라스케스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 이런 빅 매치를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에 선사해주다니! 두 경기 모두 액션 전문 채널 슈퍼액션에서 HD로 생중계한다. 집에서 밥 먹으면서 보다 손가락 던지지 말길...

문의 슈퍼액션(080-080-0780)



청결제 하면 소유스킨 쏘 클린 클렌저!

소유스킨에서 중요 부위를 책임질 쏘 클린 클렌저를 제안한다. 소유스킨 쏘 클린 클렌저는 남성들의 살 부분에 습기로 인한 습진이나 피부 질환 등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편백나무에서 추출되는 피톤치드와 천연 한방 쏘 추출물이 들어 있다. 게다가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의 진정 효과에도 뛰어난 SKINPIA-10(스킨피아틴)이 함유돼 누구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의 청결로 여성 질염의 82%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 존슨 청결 출발~

가격 33,000원 문의 소유스킨(02-445-5760)



성탄절 선물? 닥터 브로너스 유기농 세트 추천이요!

미국 유기농 브랜드의 아이콘, 천연 유기농 비누 전문 브랜드 닥터 브로너스가 성탄절을 맞아 다양하고 실속있는 유기농 스킨&보디 케어 선물 세트를 제안한다. 합성 성분을 배제한 유기농 클렌저 퓨어 캐스틸 비누와 촉촉한 피부 보습을 선사하는 보디 로션으로 구성된다.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겨울에 사용하기 좋으며, 컬러풀한 패키지와 환경 친화적인 선물 박스가 어우러져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CJ 오쇼핑과 닥터 브로너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닥터 브로너스(02-3414-1109)



군인과 전역자 대상 시력교정수술 이벤트 실시

군대 휴가를 틈타 시력을 높여 주거나, 전역 전에 라식, 라섹 수술을 받고 싶은 예비 전역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서울밝은안과에서 군 장병과 전역자를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히 원데이 라식과 라섹 수술은 짧은 회복 기간으로 휴가 기간을 잘 이용하면, 수술은 물론 사회 복귀 준비와 유희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 20년 넘게 안경을 쓰고 지냈거나,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면 MAXIM 에디터가 추천하는 서울밝은안과에서 정밀한 검사와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자.

문의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



보닌(VONIN)의 더 스타일 블루 허브 에센셜 워터 크림

겨울철, 이보다 더 건조할 수 없는 푸석푸석해진 피부에 생명을 수를 끼었을 보닌의 허브 에센셜 워터 크림을 소개한다. 뛰어난 정화 효과가 있는 허브로 스트레스로 지친 남성의 피부를 더 맑고 생기 있게 가꾸어준다. 피부에 흡수가 빠른 젤 형태의

워터 크림으로 건조한 피부로 인한 트러블 방지 및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제격이다.

가격 35,000원 문의 보닌(080-023-7007)



뮤지컬 <고스트> 대학생 마케팅 크리에이터 모집!

공연 기획사 신시컴퍼니에서 뮤지컬 <고스트>를 함께할 마케팅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뮤지컬 <고스트>는 영화 <사랑과 영혼>을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단숨에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를 섭렵한 작품. 마케팅 크리에이터는 뮤지컬 <고스트>의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과 홍보 지원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며, 1년 동안 오디션 및 행사의 기획과 진행은 물론 신시컴퍼니의 생생한 공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제작 공연 관람, 마케팅 크리에이터 수료증을 주고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하니 공연계를 직접 느끼고 싶다면 좋은 기회.

문의 신시컴퍼니
(www.iseensee.com)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주름 걱정 끝!

찬 바람에 옆구리가 시려 죽을지라도 건조한 날씨에 더 깊어진 주름만큼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주름을 한 방에 파줄 해결책을 소개하겠다. 엠도씨에서 나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고농도의 천연 유래 효모 발효 추출수를 80% 함유해 당신의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또 효모 내에 있는 비타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세월이 흘러도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울거울,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한 방울이면 당신의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격 35,000원 문의 엠도씨(www.mdo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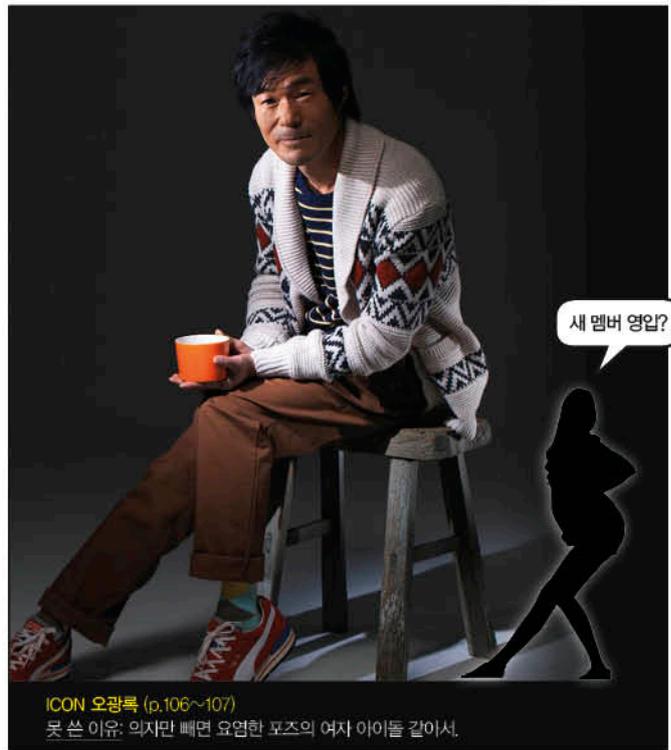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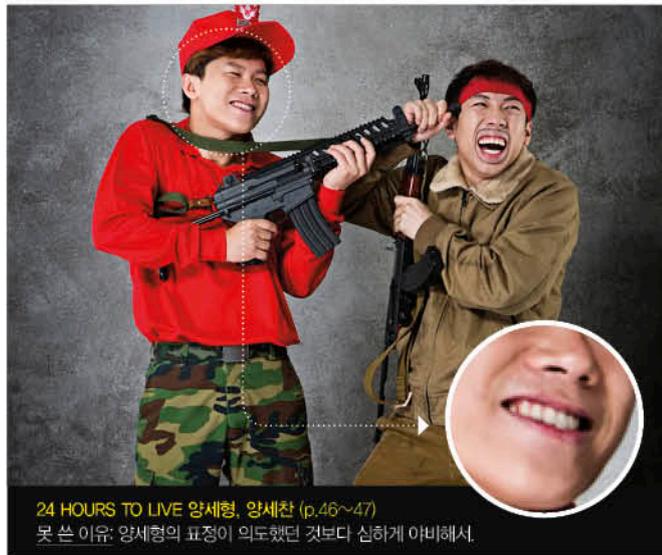
핫트랙스, 2013년 다이어리 및 달력 판매 시작

2013년 새해의 완벽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면 핫트랙스에서 다이어리와 달력을 구매하자. 특히 핫트랙스 대표 다이어리 중 독일 명품 브랜드 로이툼(Leuchtturm) 다이어리는 잉크 번짐을 방지하는 고급 재질을 사용했다. 또 오랫동안 다이어리를 간직해도 변형되지 않고 보존력이 뛰어나다. 이 밖에 프랭클린 다이어리, 몰스킨, 양자사, 어린왕자 등의 인기 브랜드도 동시 판매한다. 일부 다이어리 제품은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물에서는 구매금액에 따라 다양한 선물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문의 핫트랙스(1611-1112, www.hottracks.co.kr)

이달의 ~~못~~몸쓸 사진

이번 호에 실지 못한 아쉬운 미공개 컷 공개!



이달의 환영식: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송!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송종민 에디터. MAXIM 스태프들은 그의 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 짹 짹 마중을 나가기로 했다. 딱히 할 일도 없었고...

- 1 외로이 카트를 빗살아 귀환한 독거 노인 발견.
- 2 이어진 인턴 에디터 박수현의 격한 환영 인사. 화려한 꽃목걸이가 인턴 공항 내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 3 도망을 치려 했으나 결국 사지를 붙들린 그는 모두에게 비싼 공항 밥을 사주고 돌아갔다는 훈훈한 후문. (원장까지: 정가 9,000원)



슈퍼액션
공식블로그



나는 코리안 파이터다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계 챔피언이다!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전

UFC

헨더슨 VS 디아즈

12월 9일 (일) 오전 9시 30분

**SUPER
ACTION**

MAXIM

KOREA

TALK

개그맨 형제와 죽음의 인터뷰

양세형&양세찬

DRINK

보르도 메독 와인 일주일 벼락치기
맥주와 섹스의 연결고리: 코에도

MOTOR

MAXIM 선정 이달의 자동차: 더 비틀
미녀들의 시승 토크: 미니 쿠퍼 쿠페
에디터 시승기: 토요타 두목 벤자

007
BOND CAR
50

ICON: 오광록

靑春俳優(靑춘배우)

GIRL

산타 핀업걸 곽지민
MISS MAXIM 엄상미 VS. 대님푸
아이유, 국민 여동생은 됐고
레드카펫의 여신 배소은
<각시탈> 속 전설의 악녀
정택이 반한 MAXIM 최고 미녀

GEAR

MAXIM 선정 이달의 기어:
오디오퀘스트 드래곤플라이

에디터의 구매 이유:
와콤 뱀부 스타일러스 포켓

태그호이어가 레이서의 로망인 이유
섹슈얼 파티를 위한 HOT STUFF 6
하두리 캠의 추억

MAXIM KOREA
2013 공개 채용

VOTE NOW!
2012 MISS MAXIM
결승전
지금 투표 중!

DECEMBER 2012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